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박사학위논문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남 경 임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지도교수 조용환, 진미정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남 경 임

남경임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 위 원 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업을 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에 대한 상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속에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지만, 사범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았다. 그러나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범대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ertz의 의미구조를 이용하여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Geertz(1973)는 인간을 “자신이 뿜어낸 의미의 그물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거미와 같은 존재”라고 했던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문화란 그 그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인 사범대에 다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것은 이 학생들이 뭔가 특정한 의미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의미의 그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

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그물”이 바로 Geertz의 의미구조인 것이다.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만의 독특한 의미구조를 찾기 위하여 세 가지 단계를 거쳤다. 우선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실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학업생활의 양상 이면에서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이러한 양상으로 드러나도록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도출해 내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석된 구조 속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학생들만의 독특한 의미구조를 규명해 내었다.

연구 결과, 이 학생들은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학업생활에 대해 대리, 거래, 대기, 경쟁, 수집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구조가 이 학생들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내 수업에서 보여 주었던 수업 태도와 연결됨을 확인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독특한 의미구조가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더 나아가 사범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학생들의 ‘이성의 힘’ 강화, 부모들의 영향 개선, 사범대 교수들의 사범대 교수로서의 정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의미구조, 외부 지향, 사범대, 가정교육과 학생, 진로 갈등, 학업 부적응
학 번: 2007-30387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8
3. 연구 방법 ·····10
⑴ 질적 연구 ·····10
⑵ 연구 참여자 ·····14
⑶ 자료 수집 방법 ·····16
⑷ 자료 분석 방법 ·····18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21

Ⅱ. 선행연구 고찰 ·····24
1.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양적 연구 고찰 ·····24
2.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고찰 ·····28

Ⅲ. 학업생활의 양상 ·····32
1. 학과 선택 ·····32
⑴ 학과 이미지: “뭐 배우는 데예요?” ·····32
⑵ 대학교 이름: “좋은 대학을 가자” ·····37
⑶ 교사 자격증: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40
⑷ 전과 가능성: “전과를 할 생각으로” ·····43
2. 학업 고충 ·····48
⑴ 문과 vs. 이과: “나 왜 갑자기 이런 거 해야 되지?” ·····49
⑵ 복전 vs. 단전: “시험도 너무 뒤떨어지고” ·····53
⑶ 임용 vs. 취업: “그딴 정보는 없다구 이러시니까” ·····59
3. 진로 난관 ·····67
⑴ 폐과 위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68
⑵ 임용 희박: “여덟 명을 뽑는 상황에서” ·····73

⑶ 취업 불리: “깊게 안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76

Ⅳ. 학업생활의 구조 ·····79
1. 소상황 ·····80
⑴ 입시 성적: “언어를 너무 못 보다 보니까” ·····80
⑵ 경제적 의존: “나중에 제가 돈을 벌어서” ·····86
2. 대상황 ·····92
⑴ 사회 인식 ·····93
⑵ 노동 환경 ·····101
3. 매개상황 ·····108
⑴ 부모의 영향 ·····109
⑵ 교사의 영향 ·····124
⑶ 교수의 영향 ·····135

Ⅴ. 학업생활의 의미 ·····146
1. 외부 지향의 특징 ·····147
⑴ 본인의 내면: “다 맞는 거 같은데, 뭐지?” ·····148
⑵ 타인의 시선: “제 시선이 아니라” ·····151
2. 외부 지향의 결과 ·····154
⑴ 대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154
⑵ 거래: “칭찬만 들어 왔는데” ·····158
⑶ 대기: “졸업은 시켜 주겠지” ·····161
⑷ 경쟁: “늘봄대랑 우리 싸움인데” ·····164
⑸ 수집: “학위라도 하나 더 해서” ·····169
3. 외부 지향의 장벽 ·····173
⑴ 개선의 가능성: “내 길이다 생각하고 전진하려구요” ··174
⑵ 개선의 어려움: “시간이 뺏길 거 같기도 해서” ·····178

Ⅵ. 해석 및 논의 ·····182
1. 함의 ·····182

2. 적용 ·····185
3. 제언 ·····190

참고 문헌 ·····193

Abstract ·····19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

나는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한빛대[1] 가정교육과에서 예비 가정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담당하였다. 2010년 2학기에 내가 담당했던 강좌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이었다. 그 당시는 이 강좌가 아직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껏 부푼 마음으로 개강을 기다리고 있다가 학과 조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학과 조교는 학과 학생들이 이 강좌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아 학교 본부로부터 폐강 통지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학과장님이 이 강좌가 중요하므로 폐강을 막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학과 조교들이 학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폐강을 막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렇게 첫 번째 강의는 수강 최소 인원을 겨우 채워서 시작할 수 있었다.

2011년 2학기에 나는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과 <가정과 논리 및 논술> 두 강좌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원래부터 전공 필수 과목이었고, 이때부터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두 강좌 모두 학생들이 넘쳐났다. 나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더욱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였다.

그런데 개강 후 학생들의 반응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수업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지각을 해서 이미 수업이 진행 중인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앞문을 홱 열어젖히면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 학생들은 나와 눈이 마주쳐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지각을 한 학생들은 수업이 진행 중인 것을 뻔히 보고도 얼른 자리에 들어가서 앉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미리 와서 앉아 있는 학생들과 낄낄거리며 인사를 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학생들은 수업 중에 핸드폰이 울리면 소리를 얼른 끄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울

1) 한빛대는 가명이다.

려대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게다가 그 학생들은 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받겠다고 소리가 울려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강의실을 빠져 나갔다. 그동안 핸드폰은 그 학생의 손에서 계속 울려댔다. 또한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강의실을 빠져 나간 학생들 중에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아예 안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다. 내가 쉬는 시간에 몇 번 그런 학생들을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학생들은 특별한 용무도 없는지 화장실이나 복도 중간 어딘가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욱 강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업에 정성을 들였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수업에 정성을 들여도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학생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못해 적대적인 느낌이 진해져 갔다. 이런 분위기는 2010년 2학기 때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 2010년 2학기에 나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내 수업을 추가적으로 수강하게 되어 부담이 크니까 내 수업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분위기가 2년이나 똑같이 이어지자 나는 학생들의 이러한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쉬는 시간에 내가 강의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과대표 학생이 큰 소리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쳤다. "가정과로 임고[2] 볼 사람 있어? ○○○[3] 교수님이 면담하신다고 인원 알아 오래." 나는 처음에 질문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전부 가정교육과 학생들인데, 가정과로 안 볼 사람을 물어봐야지….'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학생들이 아무도 과대표 학생의 질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깜짝 놀라서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그러자 과대표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으로 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

---

2) '임용고시' 의 줄임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 임용 시험을 임용고시라고 부른다.

3)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고유 명사에는 가명을 사용하였지만, 맥락상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고유 명사에는 따로 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람 이름의 경우에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 라고 표시하였다.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내가 수업에 정성을 들이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수업에는 집중하기를 싫어하다가 막상 성적 처리를 할 때가 되면 마치 성적에 자기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1점, 2점까지 예민하게 따지는 학생들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적에 관심이 많으면 수업에 집중을 하든가 수업에 집중을 안 하면 성적에도 관심이 적든가 할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수업에는 집중하기 싫어하면서 성적은 엄청나게 챙겼다. 나는 성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장학금 때문에 그러는지를 물어보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학생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나는 학생들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2012년 2학기에 나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좌를 또 다시 담당하게 되었다. 2년 연속으로 학생들의 강의 평가가 형편없이 좋지 않아서 나는 한빛대에서 실시하는 강사 개별 교육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가정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한 중요한 수업인데 그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혹은 그럴 생각조차 없는 학생들에게 가정 교사 자격증이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에게 수업을 맞춰 주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정 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가정 교육의 질이 엉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수업이 없는 날이라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급하게 학교로 와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 학과장님은 학과 교수님들이 모두 모여서 내 수업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다. 내가 학교에 방문하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학부모 한 명이 내 수업과 관련하여 나를 고소하겠다고 학과로 연락을 해 온 상태였다. 그 학부모는 내가 그 전 주에 수업에서 퇴출시킨 학생의 어머니였다. 그 학부모는 내가 그 학생을 퇴출시킨 그 주 주말 내내 나한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싸움을 걸더니 내가 한두 번 들어 보고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 학생을 수업에서 퇴출시킨 사연은 이랬다. 학생들 사이에 내 수업이 만만치 않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는지 이전 학기들과 달리 2012년 2학기에는 개강을 하자마자부터 학생들이 수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다. 내가 수업 시간에 무슨 말을 하면 말끝마다 마치 후렴구를 붙이듯이 "뭐가 그래?"라고 한다거나, 내가 과제를 설명하고 있으면 "이걸 해서 뭐해?"라고 한다거나, 내가 학생들이 과제를 할 때 많이 틀리는 내용을 정리한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나눠 주며 책상 앞에 붙여 두고 과제를 할 때 보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면 "책상이 없는데요?"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더 강력하게 수업을 밀고 나갔다. 그런데 내가 강하게 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나에게 더 공격적으로 반발심을 드러내었다. 어떤 학생의 경우 어느 날 자리를 바꿔서 교탁 바로 앞에 딱 붙어 앉더니 수업 중에 내가 교탁에 붙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책상으로 교탁을 홱 밀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며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은 화장실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다른 학생들과 낄낄거리면서 강의실에서 빠져 나갔다. 그리고 그 학생이 그런 식으로 화장실에 가고 나서 잠시 후 또 다른 학생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강의실을 빠져 나갔고, 또 다른 학생이 잠시 후 또 그런 식으로 강의실을 빠져 나갔다. 학생들은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이미 경고가 두 차례 누적되어 있던 그 학생을 내 수업에서 퇴출시켰던 것이다.

그 학생의 어머니의 고소 이유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학부모가 나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했을 때에는 전혀 언급도 안 하던 내용이었다. 그 학부모는 며칠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온 것이었다. 게다가 더 황당한 일이 있었다. 학과 교수님들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사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수강생들 중 여섯 명 정도가 사실 확인을 해 주었다고 하셨다.

나는 교수님들 앞에서 여러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불경의 한 구절을 교수님들 앞에서 다시 한 번 암송하였다. 학생들이 없는 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너무 심해 보여서 내가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불경의 한 구절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들이 내가 들려준 불경까지 왜곡해서 나를 모함한 것이었다. 교수님들은 나의 암송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떨구셨고

나에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교수님들은 다른 대학교들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을 언급하시면서 이번 일은 학생이 나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조용히 넘어가 주기를 부탁하셨다.

나는 어차피 그 학생을 정말로 내 수업에서 퇴출시킬 생각이 없었다. 그 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기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학생은 나한테 경고를 받거나 퇴출을 당할 당시에는 마치 내 수업이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행동하더니 뒤에 가서 그렇게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학생은 그 자리에 불려온 후 교수님들이 나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앞서 있었던 고소 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바로 사과를 했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나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겠냐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 학생을 한 번 더 용서해 줬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학생을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수업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 학생은 학생들 앞에서 나에게 사과를 한 후 자리에 돌아가서 앉더니 바로 책상에 엎드려 버렸고, 수업을 방해하던 많은 학생들은 그 학생을 감싸고돌며 나에게 더 큰 적대감을 드러내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강의 평가에서 학생들이 쏟아내는 적대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나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상황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수업을 들었던 몇몇 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내용에 대해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도와줄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때 연락을 받은 학생들이 의외로 선뜻 돕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2013년 2학기에 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 논리 및 논술> 강좌를 한 번 더 담당하게 되었다. 나는 첫 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앞서 다른 학생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 연구를 도와줄 생각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때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돕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여러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 내에서 사범대는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범대의 교사교육은 독립된 하나의 교육이라는 의미 이외에 장래 중등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교육의 근간을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범대 내 각 교과교육 전공과정은 중등학교에서 해당 교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장래 중등학교 교과교육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범대의 실상은 앞서 살펴본 이상과 차이가 있다. 사범대 학생들이라고 해서 전부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를 희망하는 사범대 학생들이 전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부 사범대의 경우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정우, 2004). 즉, 사범대의 이상과 사범대 학생들의 실상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실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범대의 교육과정이나 사범대에 관한 연구는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물론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학생들의 개인적 입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했다(김유경, 신세인, 이준기, 2018; 허은정, 2020).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학생들이 “별종” 혹은 “주변인”과 같은 약자로 그려졌다.

그런데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학생들을 개인 차원이 아닌 수업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학생들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다. 사범대의 각 학과 내에는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다수의 학생들이 있다. 게다가 사범대의 각 학과 내에는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부류의 학생들도 있다. 바로 복

수 전공을 통해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의 교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은 전부 학과 내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에 놓여 있다. 즉, 사범대의 각 학과에는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학생들이 합쳐져서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였을 때 이 학생들이 전공 수업에 미칠 수 있는 힘은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수업 차원에서는 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 교사를 진로로 희망하지 않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전공 수업을 폐강시킬 수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수강 신청을 했을 때에는 단체로 수업을 방해하여 수업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출 수도 있었으며, 수업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 주지 않는 강사에 대해 없는 말까지 만들어 내서 모함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과 교사를 희망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의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과 내에서 합쳐졌을 때 전공 수업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사범대 내 모든 학과의 전공 수업에서 앞서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사범대의 각 학과에는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교과교육 교사를 진로로 희망하지 않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은 대학교에서의 많은 시간을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을 들으며 보내고 있다. 이는 이 학생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진로 준비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지만, 사범대의 측면에서도 교사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범대 내의 각 학과에서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

응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지만, 사범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았다. 그러나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범대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 사용된 연구 방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Geertz의 의미구조를 이용하여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독자들에게 연구 설계상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보여 주거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원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과 함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볼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독자들은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다.

2. 연구 문제

앞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 연구 문제를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실태를 탐색해 볼 것이다. 예컨대 이 학생들이 가정

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지, 특별히 가정교육과 학생이라서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없는지, 가정 교사 임용 준비를 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탐색을 여기에서 해 볼 것이다. 가정교육과가 가정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이기는 하지만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전부 가정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정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많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가정 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모습은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통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궤도에서 벗어나게 된 지점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 어디쯤에 있는지를 탐색해 볼 것이다.

둘째,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구조는 어떠한가? 이 연구 문제를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하고 있는 다층적 상황들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겉으로 드러난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 이면에서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들의 체계와 각 상황들 간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작업이다.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밝힐 것이다.

셋째,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작업을 통해 찾고자 하는 의미는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업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의미는 아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Geertz의 의미구조 속에서의 의미이다. 이 작업은,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구조 속에서 이 학생들이 어떤 독특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어떤 독특한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구조는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 연구 방법

⑴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이제 다양한 하위 방법론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하위 방법론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고, 질적 연구의 기본에 충실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질적 연구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그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기본을 살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의 성격을 양적 연구의 성격에 비교해 가면서 질적 연구의 기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비교하는 이유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대척점에 있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다. 사실 질적 연구의 대척점에 있는 연구는 양적 연구가 아니라 문적 연구[4]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에는 차이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켰을 때 질적 연구의 기본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성격을 비교해 가면서 질적 연구의 기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

4) ‘문적 연구’라는 연구 방법은 실재하는 연구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질(質)’은 의미상 ‘양(量)’이 아니라 ‘문(文)’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논어>의 옹야(雍也) 편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공자가 말하였다. 질(質)이 문(文)을 이기면 야(野)이고, 문(文)이 질(質)을 이기면 사(史)이니, 문(文)과 질(質)이 조화를 이룰 때에 군자가 된다.(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 然後君子)” 질적 연구는 사회과학 연구가 겉으로 보이는 것, 즉 문(文)에 갇히지 않고 그 바탕, 즉 질(質)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의 ‘질(質)’은 공자가 말하는 “문질빈빈(文質彬彬)”에서의 질(質)에 가깝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의 ‘질(質)’에 반대되는 말은 양(量)이 아니라 문(文)인 것이다.(조용환, 2012, pp. 6-11 인용 및 참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차이점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육하원칙 중 세 가지, 즉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있어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질적 연구의 세 가지 기본 특성이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누가 연구하는가?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자와 양적 연구에서의 연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연구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즉, 양적 연구에서는 같은 연구의 결과물이 그 연구를 실행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나오면 그 연구는 신뢰도가 낮다고 평가 받는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마치 기계가 연구를 하듯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연구의 수준을 결정한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우리를 그 이방인들의 생활에 얼마나 근접시킬 수 있는가 하는 학문적 상상력의 정도에 의해서” 연구를 평가한다.(Geertz/문옥표 역, 2012, p. 29)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주관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낯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연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주관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였다. 나는 연구 과정의 매 순간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낯설게 보는 작업을 거듭하면서 나의 주관을 확장시켰고 그런 방식을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실제 학업생활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주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무엇을 연구하는가?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에서의 가설과 양적 연구에서의 가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에서 가설은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할 질문지를 만든 후 그 질문

지에 근거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그렇게 수집된 연구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 가설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질적 연구에서 가설은 임시로 사용하는 보조 수단일 뿐이다.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삶이지 연구자가 만든 가설이나 질문지가 아니다. 물론 질적 연구에서도 가설이나 질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때의 가설이나 질문지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수없이 폐기되고 새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도 질문지[5]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가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질문지는 본 연구의 초안일 뿐이었다. 내가 연구 참여자와 만나 면담을 하는 첫 순간부터 이 초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참여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가 묻고자 했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질문지가 아닌 참여자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가설을 끊임없이 수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자료 수집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 더 나아가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나의 가설은 수없이 수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설은 최종적으로 입증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연구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보조 수단이었다.

셋째, 어떻게 연구하는가? 여기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식과 양적 연구에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모집단의 일부를 통해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해 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는지가 타당성 평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즉,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분포도가 연구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양적 연구에서는 누구를 연구 대상으로

5) 질문지는 조용환(2009)에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하였다.

선정했는가가 연구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찾아낸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삶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가 타당성 평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 즉,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그럴듯함, 즉 개연성이 연구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누구를 참여자로 선택했는가가 아니라 연구 결과가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 삶에 얼마나 근접했는가가 연구의 타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는 22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택할 때 사용한 기준은 단 한 가지였다. 이 사람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었다. 나는 내 연구 참여자들이 전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더 나아가 전체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얼마나 잘 대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나는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구조화해야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은 단순히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22명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끊임없이 비교, 대조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핵심 줄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고, 이후 이렇게 찾은 핵심 줄기에 22명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찾아줌으로써 22명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부 하나의 핵심 줄기에 꿰어지도록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그럴듯함, 즉 개연성을 22명 연구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해 겹겹이 입증하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⑵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22명이었다. 이 참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예비 가정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할 때 내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참여자가 이렇게 구성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예비 가정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할 때 나와 학생들 간의 관계는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었다. 따라서 처음 참여자를 찾을 때 나는 내 수업을 수강했던 혹은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할 학생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내에서도 내 수업을 수강한 적이 없는 다른 학년의 학생들 중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찾고 한빛대 이외에 다른 대학교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도 연구 참여자를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우선적으로 내 수업을 수강했던 혹은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나의 연구 동기를 밝혔을 때 나의 예상과는 달리 22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다. 사실 선택형 질문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22명이면 연구 대상이 너무 적어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22명이면 참여자가 너무 많아서 면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낼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급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골라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면담해 보고 학생들 중에서 일부를 골라낼지 학생들 전부를 참여자로 선택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22명의 학생들과 면담

을 한 결과 어느 한 학생의 자료도 버릴 것이 없었다. 그래서 22명의 학생들을 전부 참여자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나는 22명의 참여자들과 면담을 하다가 혹은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 자료를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하다가 부족함이 느껴지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나 한빛대가 아닌 다른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시점까지도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 자료만으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참여자를 찾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22명의 참여자는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본 연구에 도움을 주었지만, 나는 그밖에 많은 가정교육과 학생들로부터 본 연구에 도움을 받았다. 나에게는 이러한 학생들도 연구 참여자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내 수업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본 연구의 이름 없는 참여자들이었다. 이 학생들이 몸소 보여 주었던 모습들은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방향을 잡아 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즉, 이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한 역할은 일반적인 연구 참여자들이 하는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었지만, 이 학생들은 일반적인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만으로는 절대로 해 줄 수 없는 또 다른 연구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었다.

다음으로 내가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예비 가정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할 때 나와 마주쳤던 모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본 연구의 이름 없는 참여자들이었다. 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강의실에서건 복도에서건 교정에서건 가정교육과 학생들과 마주치면 유심히 관찰하였고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주어지면 학생들이 원

하는 시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대화하였다. 이때 내가 얻은 자료들은 기록으로 남겨 두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이후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연구 자료를 볼 때마다 앞서 내가 얻었던 자료가 없었으면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이 연구 자료에서 내가 읽어 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읽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예비 가정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할 때 나와 마주쳤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모두가 본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 연구 참여자들이었다.

마지막으로 간접적으로 본 연구에 도움을 준 가정교육과 학생들도 있었는데 이 학생들도 본 연구의 이름 없는 연구 참여자들이었다. 22명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다른 학과로 전과한 학생들이나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다니다가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 학생들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학생들도 등장했다. 따라서 나는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살필 수 있었다. 즉, 22명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모든 가정교육과 학생들 역시 본 연구의 연구 자료가 가질 수 있었던 한계를 보강해 준 연구 참여자들이었다.

(3) 자료 수집 방법

앞서 (2) 연구 참여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자료는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 자료만이 아니었다.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내가 보고 들은 모든 자료들이 본 연구에 연구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집한 연구 자료는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얻은 면담 자료이므로 여기에서는 22명의 참여자들로부터 면담 자료를 수집한 방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면담은 2013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여자 22명과 면담을 한 시간은 총 38시간 21분이었다. 따라서 참여자 한 명 당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2시간이 조금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면담은 주로 한빛대 내의 빈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한빛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빈 강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담은 참여자와 면담 일시를 미리 정한 후 내가 그 시간에 비어 있는 강의실을 찾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그곳에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면담 초반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했다. 가장 처음 면담을 했던 윤하나와 면담을 할 때에는 방학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윤하나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면담하였고, 두 번째로 면담을 했던 이언희와 면담을 할 때에는 이 참여자가 졸업을 앞두고 미리 취업이 되어 직장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언희의 직장 근처까지 찾아가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면담하였다. 세 번째로 면담을 했던 정선애와는 총 3회에 걸쳐 면담을 하였는데, 첫 번째 면담을 할 때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소비자 상담실이 있어서 학과 조교에게 부탁을 해서 그곳에서 면담하였지만, 두 번째 면담을 할 때에는 소비자 상담실이 없어져서 그때부터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 학과 조교로부터 한빛대 내에 빈 강의실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면담이 한빛대 내의 빈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참여자들이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인해 면담

시간을 빼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도 학교 내에서 면담을 하니까 학생들이 면담을 위해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다. 게다가 처음 두 번을 카페에서 면담할 때에는 몰랐는데, 소비자 상담실이나 강의실과 같이 주변 소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면담을 해 보니까 확실히 카페와 같이 주변 소음이 있는 공간보다는 소비자 상담실이나 강의실과 같이 조용한 곳이 면담에 집중하기가 확실히 수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⑷ 자료 분석 방법

Geertz(1973)는 인간을 “자신이 뿜어낸 의미의 그물 가운데 고정되어 있는 거미와 같은 존재”라고 했던 막스 베버를 인용하면서 문화란 그 그물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인 사범대에 다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것은 이 학생들이 뭔가 특정한 의미의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의미의 그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그물”이 바로 Geertz의 의미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Geertz의 의미구조란 무엇이며, 본 연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의미구조를 찾아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Geertz(1973)는 길버트 라일의 “오른쪽 눈꺼풀의 수축”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자신이 말하는 “의미구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른쪽 눈꺼풀의 수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자.

> 라일이 말하는 오른쪽 눈의 눈꺼풀을 황급히 수축시키고 있는 두 명의 소년을 생각해보자. 한 명의 경우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었으며, 다른 한 명의 경우는 친구에게 보내는 음모의 신호였다고 하자. 이 경우, 두 개의 동작은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카메라식의, 또는 "현상적" 관찰에만 의한다면, 이 두 개의 동작 중 어느 것이 윙크이고 어느 것이 눈의 경련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눈의 경련과 윙크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눈의 경련을 윙크로 착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우선 윙크라는 것은 의사전달 방법의 하나이며, 그것도 아주 정확하고 특별한 수단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윙크를 한다는 것은 1) 의도적으로, 2) 특정인에게, 3)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4) 사회적으로 인정된 코드에 의하여, 5)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라일의 지적과 같이 윙크를 하는 사람은 눈꺼풀을 수축시키는 동시에 윙크를 하는 것이지만, 눈에 경련을 일으키는 사람은 단순히 눈꺼풀을 수축시킬 뿐인 것이다. 정의하자면, 눈꺼풀을 수축하는 것이 하나의 공모의 신호로 여겨지는 공적인 코드가 존재하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눈꺼풀을 수축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윙크이다. 이렇게 정의해볼 때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즉 하나의 행위는 곧 그 문화의 일부가 되며, 그럴 경우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제스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설명은 라일의 논의에서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 가령, 여기에 세 번째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는 친구들을 재미있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서툴고 눈에 드러나도록 첫 번째 소년의 윙크를 흉내낸다고 하자. 물론 이 소년도 눈의 경련을 일으켰던 첫 번째 소년이나 실제로 윙크를 했던 두 번째 소년과 동일한 동작, 즉 눈꺼풀을 수축시키는 동작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소년은 윙크를 한 것도, 눈의 경련을 일으킨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본 대로 다른 소년의 동작을 흉내내었을 뿐이다. 여기에도 물론 하나의 사회적으로 인정된 코드는 존재하며, 그 소년도 그것에 따라서 마치 어릿광대역을 하는 배우처럼 억지로 서툴게 그리고 과장해서 윙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메시지도 전달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음모의 분위기가 아니라 조롱의 분위기인 점만이 다를 뿐이다. 만일 그의 친구들이 이 세 번째 소년의 행위를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윙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소년의 계획은 완전히 낭패를 보게 되며, 이러한 낭패는, 비록 결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그 소년이

윙크 흉내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만일 이 세 번째 소년이 자신의 흉내내는 능력에 자신이 없어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윙크를 연습해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이 소년이 하는 행위는 눈의 경련도, 윙크도, 윙크 흉내도 아닌 다만 연습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기라든가 급진적인 행동주의자라면 이 소년이 하는 행위를 다른 모든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오른쪽 눈꺼풀을 수축시키고 있다"라고만 기록할 것이다. (Geertz/문옥표 역, 2012, pp. 14-16)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오른쪽 눈꺼풀의 수축"이라는 아주 작은 행위조차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 행위가 왜 이 의미이고 저 의미가 아닌지를 이해하려면 그러한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체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eertz(1973)는 인간의 행위가 이러한 체계, 즉 "의미구조"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으며 해석된다고 하였다.

앞에서 말한 경련을 일으키는 자, 윙크하는 자, 거짓 윙크하는 자, 흉내내는 자, 흉내를 연습하는 자나 모두가 이 의미구조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눈꺼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해주는 의미구조 없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의 문화적 범주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듯이 보이는 눈의 경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윙크가 눈의 경련만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눈의 경련이 윙크가 아닌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도 문화적 의미구조 속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Geertz/문옥표 역, 2012, p. 16)

그런데 이러한 의미구조를 찾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Geertz(1973)는 <심층 놀이: 발리의 닭싸움에 관한 기록들>에서 발리 인들의 닭싸움의 양상을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닭싸움에 대해 발리 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구조를 밝혀내었다. 그러나

초심자인 내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만을 보고 바로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구조를 찾아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에 한 단계를 추가하여 총 세 단계를 거쳐 의미구조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첫째,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실태를 짚어 보았다. 둘째, 이러한 학업생활의 양상 이면에서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이러한 양상으로 드러나도록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도출한 후 그 상황들을 통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렇게 분석된 구조 속에서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을 도출한 후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학생들만의 독특한 의미구조를 규명해 내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지금까지 본 연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과 연구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바로 이러한 목적의식과 연구 방법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한계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갖게 된 한계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속에서 이 학생들이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겪는 원인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된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소소하게나마 해결할 방법을 스스로 찾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본 연구가 기존의 질적 연구와 같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만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였다면, 본 연구에서도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골고루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속에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집중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문제만 있는 것처럼 혹은 문제만 많은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내가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보고 들었던 내용들만을 근거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의 시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는 일이 수차례 일어났으며,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가정교사를 거의 선발하지 않았던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2010년 2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의 시기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로 준비에 있어서 극한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태였다. 본 연구는 이런 극한의 위기를 맞아 밑바닥을 전부 드러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학생들이 이 정도의 위기를 벗어났을 때에는 어떤 다른 학업생활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마치 전체 한빛대 가정교육

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대표하는 것처럼 파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연구 자료를 수집한 이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연구가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내가 예비 가정 교사를 위한 교과교육 수업을 거부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것은 2010년 2학기였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은 내가 목격했던 모습에서 많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범대에는 여전히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 그리고 교사를 희망하더라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의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즉, 사범대의 각 학과에서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계없는 전공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런 학생들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범대의 교원양성교육 연구에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다. 그 이유는, 기존의 연구 방법은 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존에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연구들을 연구 방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연구 방법에서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에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양적 연구 고찰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보인 연구 자체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련된 양적 연구들 중에서 이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 양적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의 양적 연구들 사이에는 연구 방법 이외에 큰 차이가 하나 더 있었다. 본 연구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지만, 기존의 양적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특별히 진로 갈등이나 학업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김성교, 채정현(2008)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재학 만족도가 3.15였고, 양지선, 유태명(2010)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교과신념 성취도가 3.52였고, 신혜원(2013)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일반적 관심 만족이 3.44, 사회적 인식 만족이 2.68, 진로결정수준이 3.17이었고, 노희연 외(2020)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가정 교사로서의 진로정체성이 4.02였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이 학생들이 특별히 학업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만한 수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연구들에서 발견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양지선, 유태명(2010)에서는 교사 임용 시험을 가정 과목으로 응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74.2%인데 반해, 신혜원(2013)에서는 진로로 가정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1%밖에 안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 과정이 그다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나 진로정체성이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진로로 가정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데 양적 연구는 이러한 수치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전혀 보여 주지 못한다. 따라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진로로 가정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이처럼 요동치고 있는 상태에서 학과만족도와 진로정체성이 어떻게 해서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특별히 학업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한 양적 연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련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양적 연구들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특별히 학업생활에서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관계로 이런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만

으로는 양적 연구가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한계점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없었다.

반면,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에 관한 양적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강은정, 박진원, 이경언, 2015; 도종훈, 박윤범, 박혜숙, 2014; 박은수, 2016; 박은수, 2017; 박진경, 2017; 오소제, 2010; 윤창환, 2016; 이봉우, 김희경, 2018). 따라서 여기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로 범위를 확대하여 양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박진경(2017)은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성취형, 탐색유예형, 혼미형, 유실형, 방치형, 미분화형의 총 6개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성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14.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성취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여타 유형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개인특성 변인 중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으로 설정되었던 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 지지와 진학동기가, 전공특성 변인 중에서 전공 만족도의 하위요인으로 설정되었던 사회적 인식만족, 경력개발센터 이용 여부, 교육봉사 경험 여부가 그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요인은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 속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해서 설문지를 만들어 두고 학생들에게 이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해서 얻어낸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인을 도출하면 그 원인이 연구자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예상했던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 즉,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는 연구자가 설문지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요인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윤창환(2016)은 전공선택동기를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로 나누어 전공선택동기의 차이가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성숙과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즉, 이미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공선택동기의 차이가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성숙과 취업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게다가 이 연구에서도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공선택동기 척도 및 진로성숙 척도와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연구자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해 낸 후 설문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되면 설문지를 벗어난 영역에 있는 이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원인은 알 수 없게 된다.

물론 양적 연구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는 연구도 있었다. 강은정 외(2015)는 수학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로 수학 교사를 희망하는 정도가 재학 기간 중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고 상승한 경우와 하강한 경우로 나누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원인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쓰도록 한 후 그 내용을 연구자가 전공학습, 임용고사, 적성 및 흥미, 교육실습 및 교육봉사, 개인과외, 교권하락, 기타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로 환원하지 않고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방법은 양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고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 정도의 보완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를 통해서만 보아야 한다는 한계를 갖게 된다. 또한 양적 연구에서는 연구를 통해 찾은 원인이 실제 학생들의 학

업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맥락 역시 보여 주지 못한다. 따라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실제 원인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지금까지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존에 이루어진 질적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고찰

질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양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기존의 질적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소홀히 한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 연구한 실제 사례를 통해 기존의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업생활과 관련해서도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질적 연구는 찾을 수가 없었다. 반면,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에 관한 질적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강민수, 임소정, 최지혜, 2021; 고홍월, 2017; 김갑성, 2011; 김병찬, 2003; 김선영, 2020; 김유경, 신세인, 이준기, 2018; 김재은, 조홍식, 2014; 김태영, 김윤경, 2014; 노경란, 김민희, 이은경, 2013; 이도영, 2020; 이정우, 2004; 장원형, 홍훈기, 2020; 장환영, 김경민, 2014; 한재영, 2012; 허은정, 2020). 따라서 여기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에 관한 연구로 범위를 확장하여 기존의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김유경 외(2018)는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생물교육과 학생들의 진로 갈등 양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범대를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사범대에 입학하고 이후 사범대에서 스스로를 '주변인'이라 칭하며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범대 학생들의 모습을 잘 보여 주었다.

김재은, 조홍식(2014)은 사범대 체육교육과 학생들을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나누어 각각의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며 겪는 갈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를 교사로 희망하든 그렇지 않든 진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범대 학생들의 입장을 잘 드러내었다.

허은정(2020)은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학생들만 뽑아서 이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학생들이 교사를 희망하지 않게 된 이유부터, 나름대로 교직 이외의 분야에서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 교사 임용과 관련된 수업에서 했던 경험, 그리고 사범대에 기대하는 바까지를 꼼꼼히 보여 주었다.

이처럼 질적 연구는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양상을 연구자의 연구 설계상으로 옮겨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 속에서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기존의 질적 연구물들은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이러한 양상으로 드러나게 된 원인을 따로 규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대안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질적 연구 중에서도 원인을 따로 밝힌 연구들이 있었다. 김병찬(2003)은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 양상을 "교차현상"과 "이중성"이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 주었다. 이 연구에서 사범대 학생들은 처음에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고 사범대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것

이 아니며 처음에 교사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사범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끝까지 교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교차 현상”과,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사 이외의 진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며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 “이중성”을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차현상”과 “이중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밝힌 원인은 연구 참여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직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변하였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원인은 Geertz(1973)의 표현에 따르면 “첫 번째 해석”에 불과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를 원인이라고 지목한 것은 이 연구만이 아니다. 기존의 질적 연구물들 중에는 처음부터 사범대 학생들이 겪는 진로 갈등이나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시작된 연구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도 앞서 살펴본 김병찬(2003)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장원형, 홍훈기(2020)는 사범대 과학교육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학생들이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의 현장 감각을 길러 주지 못하는 점과 현직 교사가 겪어야 하는 낮은 처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 학생들이 사범대에 재학하면서 교사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 원인임을 밝혀내었다.

김선영(2020)은 사범대 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공을 중시하는 사범대의 풍토, 전공에서의 과중한 학습부담, 수준차가 고려되지 않는 수업, 온라인 수업의 질 저하, 원활하지 않은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이 학생들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원인으로 밝혀내었다.

물론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도 이 학생들

이 겪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 뒤에는 이 학생들이 그것이 원인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근본적' 원인이 별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만을 제거한다면, 그 '근본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는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원인을 해결했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전술한 이유들 때문에, 기존의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역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찾는 방법을 고안하여 그 방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학업생활의 양상

이 장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시간 순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 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입학 이후에 학업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학과 선택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 교사가 되고 싶다고 나서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가정 교사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왜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일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를 선택한 동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과 이미지: “뭐 배우는 데예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처음부터 가정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말하는 학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참여자 22명 중에서도 그런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이 참여자는 삼수를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였는데, 이 학생도 재수를 할 때까지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생각이 없었다고 했다.

한소윤: 재수해서 학교를 갔는데, 식품영양학을 갔는데

연구자: 좋은 데 갔는데 왜?

한소윤: 전 문과인데 교차 지원[6]으로 이과로 갔는데, 너무 어렵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아, 여기서 보낼 순 없다.' 해가지고 휴학하고 반수[7]를 했어요. 근데 반수를 하는 게 단순히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중략) 내가 전공에 힘들어해서 대학을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나한테 맞는 적성이 뭔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제 꿈이 다른 게 있었거든요.

연구자: 뭔데요?

한소윤: 아나운서요. 계속 꿈꿨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신문방송학을 가자니 그 꿈에 대한 열정? 그런 게 시들해진 상태였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가정 과목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중략) 원래는 다른 대학교의 가정교육과를 목표로 해가지고 딱 붙여 놓고 했는데, 거기는 떨어지고 다행히도 여기 학교돼서

이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가정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참여자조차 찾기가 힘들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가정교육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였다고 했다.

이경진: 처음에는 아예 모르고 온 거죠, 가정교육과가. 그니까 담임 선생님이 원서 쓰는 날 그렇게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과 쓰지 말고, 들어가서 너가 복수 전공을 하든, 일단은 가정교육과 들어가면 교직[8]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넣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게 "가정교육과가 뭐 배우는데예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

6) 대학교에 지원할 때 문과 출신 학생이 이과 계열 학과로, 이과 출신 학생이 문과 계열 학과로 엇갈려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7) 대학교 입학시험을 다시 준비하되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즉 반년 동안만 하는 것을 반수라고 한다.

8) '교사 자격증'을 의미한다.

유미나: 제가 가정교육에 흥미가 있어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중략) 처음에는 '가정교육? 가정교육과? 가정, 가정... 아, 가정도 이렇게 사범대가 있지!' 처음에는 이제, 와서 이렇게 '아!' 놀랐고, 처음에는 생각이 없이 와가지고.

양아정: 가정교육과가 어떤 학과인지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에는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도 놀라운 일이 또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가정교육과에 다니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정선애: 전 가정을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성적 맞춰서 온 경우라서.

이세영: 저는 여기를 넣긴 넣었는데 그렇게 여기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사실.

유재현: 저 가정교육을 처음에 입학할 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 교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현상의 발단을 알 수 있다. 이 현상은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남녀 불문하고 모두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은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상태가 된 것일까? 많은 참여자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배울 때에 좋지 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장세희: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가정 교과가 그렇게 좋은 뭐, 잘 못 느꼈어요, 필요성을.

양아정: 고등학교, 중학교 때 가정 교과를 배웠을 때는 저도 똑같이 희생양처럼 소 부위 어떻고 그것만 암기하고,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즐겨하고, '아, 이게 진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느껴 본 적은 없었는데,

이세영: 어렸을 때 분명히 저도 가정 시간에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쓸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기억도 안 나고.

참여자들 중에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주변에 가정 과목 혹은 가정교육과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다. 한 참여자의 경우에는 담임과 부모가,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는 학교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선애: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솔직히 전 기술·가정[9] 점수는 되게 좋았는데, 항상 담임 선생님도 중간고사 전에 기술·가정 공부하고 있으면 "국, 영, 수나 해라. 지금 벌써 기술·가정 하냐." 이게 쫌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기술·가정 거의 100점 맞고 이래도 부모님도 그렇게 별로 안 기뻐하시고 과학이나 영어, 수학 100점 맞으면, 어우, 너무 칭찬해 주시는데, 기술·가정은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게 쫌 아직도 있는 거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서.

오상훈: 처음에 (가정교육과에)[10] 갔을 때도, 고등학교 때 수시 붙으면 수능 전에 발표가 나니까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그런단 말이

9) 참여자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가정 과목을 배울 당시에 가정교육은 기술교육과 합쳐진 상태였고, 이때의 과목명은 기술·가정이었다.

10) 참여자의 말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참여자가 한 말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참여자가 한 말의 앞뒤 맥락에서 그 내용을 찾아 이처럼 괄호 안에 추가하였다.

에요. 그러면 괜히 질투도 하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말도 하고

연구자: 안 좋은 말 뭘 많이 해요?

오상훈: 그니까 “너 그런 데 가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다닌 후 가정교육에 호감이 생겼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다. 여기서 이 참여자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홍아람: 선생님이 될 마음은 원래 없긴 하지만, 가정교육을 살리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해 왔어요, 배우면서 재미있어서.

유미나: 가정에 관련된 이론과 내용들은 되게 흥미롭게 느껴져요, 다른 거보다는.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 (중략) 이건 또 제 의견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친구들하고. “와, 역시 가정 수업이 그래도 재밌어.” 이런 거.

이경진: 제가 (가정교육과에) 국어나 영어를 (복수 전공) 하려고 왔는데, (식품영양) 연계 전공[11]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거에도 영향이 좀 있었죠. 과 전공 막상 배워 보니까 국어, 영어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 같고.

이언희: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중략) 안타깝죠. 근데 좋은 건 우리만, 느낀 사람만 알잖아요. 맛있는 집도 먹어본 사람만 맛있다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

11) 한빛대 내에는 다양한 연계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연계 전공은 공통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학과의 교수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학문 분야에 개설한 또 하나의 독립된 전공이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계 전공에는 소비자학, 식품영양학 등이 있다. 이러한 연계 전공을 통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가정교육과에서 배우는 다양한 학문 분야 중 특정한 학문 분야에 대해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고, 졸업할 때에는 복수 전공과 마찬가지로 주 전공 이외에 전공을 추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히 가정교육에 호감을 갖게 된 참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심지어 가정 교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양아정: 가정교육과를 들어오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저도 모르는 가정적인 모습, (중략) 나랑 잘 맞고 재밌어하고 이러니까 '아, 나랑 맞다.' 싶어서 '가정 선생님이 되겠다.' 1학년 때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가정 교사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대표 학생이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학생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나서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3. 진로 난관 (2) 임용 희박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쨌든 절대 다수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시점에는 이처럼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것일까?

(2) 대학교 이름: "좋은 대학을 가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는 것이 아니었다. 최대한 높은 이름값을 가진 대학교에 가는 것이었다.

오근화: 사실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가자.' 요거니까 '좋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부족했나 봐

요, 공부가.

연구자: 그럼 재수할 때도 특별히 과 이런 거 가리지 말고 '좋은 대학으로 가자.'

오근화: 네. 일단 대학교를 먼저 우선순위로 보고 하니까,

이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 이름값에 하한선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이름값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아무리 못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는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연구자: 이 학교에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양아정: 한빛대 자체를 선호해서 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일단 인 서울(in Seoul)[12] 아무데나는 입학을 해야겠다.' 는 생각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처럼 이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가장 우선하여 고려한 사항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자신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이름값을 가진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지원했던 두 곳에 동시에 합격했을 때 자신이 어느 학과에 더 가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대학교의 이름값이 더 높은지만 생각했다고 했다.

윤하나: 나군에는 ○○대[13] 의류학과를 넣구, 가군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를 넣구 그랬거든요.

연구자: 그럼 ○○대 의류학과도...

윤하나: (자랑하고 싶은 듯 어조가 바뀜) 붙었어요. (중략) 근데 붙었는데, 여길 오게 된 거는 거의 그쪽에서도 네임 밸류(name value)를 제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크크.

---

12) '인 서울(in Seoul)' 이란 '서울에 있는 대학교'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다.' 라는 뜻이다.

13) 대학교 이름의 경우 서로 다른 대학교라 하더라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대' 로 통일하여 표시하였다.

연구자: 어떤 네임(name)?
윤하나: 그니까 제가 그렇게 의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으니까... 그냥 '○○대랑 한빛대 붙었으면 한빛대...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챙겼던 것은 학과가 아니라 대학교 이름값이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뚜렷하게 있었지만, 대학교 이름값을 낮추기 싫어서 그 학과로 가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자: 수학교육하고 비슷한 거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정교육으로 바꿔야겠다.' 생각했어요?
권영오: 아... 이과가 가정교육과밖에 없었어요.
연구자: 다른 학교에 가면 또 비슷한 거 있잖아요.
권영오: (대학교) 수준이란 게... 헤~ 네. 이렇게 좀 안 되고 하니까. 딱 그 선을 보니까.

이렇게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적어도 한빛대의 대학교 이름값에는 만족하고 있으리라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학생들 중에는 한빛대의 이름값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정선애: 한빛대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았었는데... 헤~
연구자: 어디 가고 싶었어요?
정선애: 그냥 더 높은 데 가고 싶었죠.
연구자: 더 높은 데가 어디야?
정선애: ○○대나, 더 높으면 뭐 ○○대나 뭐, 너무 높긴 하지만.

오근화: 부모님은 사실 성적이 좋진 않았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긴 했는데, (중략) 근데 부모님도 그 상황에서 가장 쓰린 게 당사자인 걸 아시니까, 거기에 보태서 "너 왜 이것밖에 못했니?"라곤 얘기하지 않으신데, 사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상태였는데,

한빛대의 이름값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중에는 대학교 이름값을 더 높이기 위해 다른 대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학생도 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대학교 이름값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장세희: 솔직히 다니면서도 아, 대학 이름이 너무 욕심이 생기니까 (책상을 딱딱 치면서) '편입을 준비해야 되나?' 하는데 또 교사는 되고 싶고,
연구자: 한빛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장세희: 네.
연구자: 어디?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장세희: 그냥... 남들 생각하는 최소한은, '○○대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대학교 이름값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대학교 이름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학생들은 왜 한빛대의 이름값에 만족하지도 못하면서 한빛대에 입학했을까?

(3) 교사 자격증: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한 참여자는 한빛대 내에서도 두 개의 학과에 동시에 합격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집안 어른들이 사범대를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학과가 아니라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했다.

홍아람: 제가 여기 입학할 때 선택권이 있었어요, 가정교육과를 하느냐,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가느냐. (중략) 그랬는데... 집안에서 다들... "여자는 역시 사범대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그냥... '어른들 소원대로 해 주되 복수 전공 하면 되니까...' 그래서 가정교육과로... 오게 됐어요.

이 참여자는 본인은 교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 중에서 교사가 될 생각이 없는 상태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오기 전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오상훈: 제가 옛날, 중학교 때부터 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황유선: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었기 때문에,

백수아: 내가 교사는 꿈이 맞는데, 꿈이 맞아서 사범대를 대학교에 여러 학교에 지원했고 여길 왔는데,

이경진: 원래 처음에는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김다예: 처음에 제가 가정교육과를 선택한 이유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오기는 왔는데,

장세희: 제가 원래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양아정: 선생님이 되고 싶단 마음은 옛날부터 꿈이었고

권영오: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교사니까,

모든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때 가정교육과를 졸업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했다.

최서영: 사범대면 선생님을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나쁜 인상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윤하나: 가정교육과가... 그래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구,

이처럼 교사 자격증은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교 이름값만큼이나 중요하게 고려한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그리 넉넉한 성적을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이언희: 편입이든 수능이든 점수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맞추고, 또 과를 이렇게 교사가 될 수 있는 과를 오다 보니까 가정교육과를 오게 됐고,

오상훈: 사범대 쪽으로 가고 싶어서, 경쟁률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시 볼 때? 그런 거 봐서 일단 사범대로 지원해서 가정교육과 오게 된 거거든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대학교 이름값만이 아니었다. 교사 자격증도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무작정 대학교 이름값만 높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가 있다. 앞서 (2) 대학교 이름에서는 한 참여자가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다른 대학교로의 편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는 것보다 교사 자격증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남았다.

장세희: 막상 또 알아보니까, 제가 교사가 되고 싶은데 (다른 대학교에서) 사범대는 편입생을 거의 안 뽑고, 그렇다고 교대는 다시 수

> 능 봐야 되고, 그래서 '아, 뭐, 내가 잘하면 됐지. (교사) 자격증이 더 중요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중략) (교사) 자격증 두 개 받아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지금은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그래도 막상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교사가 헤~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처럼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대학교 이름값에다가 교사 자격증까지 챙기고자 했다. 그런데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받은 성적은 그만큼 넉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한빛대의 이름값에는 만족하지도 못했고, 가정교육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즉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이었다.

그래도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함으로써 대학교 이름값도 어느 정도 챙겼고 교사 자격증도 챙겼다. 자신들이 필요로 했던 두 가지를 모두 챙긴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문제는 이제 시작된다.

⑷ 전과 가능성: "전과를 할 생각으로"

앞서 ⑴ 학과 이미지에서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가고 싶은 학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특별히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이 꼭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오상훈: 원래는 제가 국어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국어교육과도 복수 전

공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언희: 저는 원래 그 사범대,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권영오: 원래 제가 수학교육과를 가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게 공부가 이제 뜻대로,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헤헤 그래서...

연구자: 수학이 재밌다고 그러면서 왜 수학은 (원서를) 안 넣었어요?
백수아: 수학교육에 성적이 안 돼서, 헤~ 못 넣었었어요. 넣기가 너무 힘들어서...

심진용: 일단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라서 누구보다 애정이 강해요.
연구자: 그럼 왜 역사교육으로 가지, 여기로 왔어요?
심진용: 역사교육이 가고 싶었어요, 한빛대 역사교육, 맨 처음에. 근데 씁~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황유선: 솔직하게 말하면, 가정교육...과는, 원래 다른 데는 다 지리교육과로 지원을 했었어요.

유재현: 그니까 생각한 게 두 개였죠,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면 중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지리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자.'

양아정: 처음에는 초등 교사가 꿈이었는데 교대를 못 갔으, 교대를 갈 실력이 안 돼서,

장세희: 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쪼끔 아쉽긴 하지만,
연구자: 그럼 교대도 시험을 쳐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장세희: 네에...

이세영: 원래 제가 여기 지원 안 하고 다른 학교는 교육학과를 넣었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일까? 특이하게도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다른 학과로 전과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입학 동기들 중 3분의 1 정도가 전과를 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윤하나: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저희가 30명인데 한 열 명 정도는 전과를 했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던 많은 학생들이 전과를 했다. 그런데 전과를 하지 않고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던 학생들 중에서도 전과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 학생들은 전과를 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과를 할 수 없어서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전과를 하지 못하고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이 학생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첫째, 전과를 하려고 하는 학과가 사범대 내에 있는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었다. 한빛대는 사범대 내에서의 전과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재현: 저도 여기 와서 전과를 할 생각으로 왔거든요, 사실은.
연구자: 어디로?
유재현: 지리 쪽이요. (중략) 사범, 저희 09학번부터는 전과가 불가능해져가지고.

권영오: 원래 수학교육과 가고 싶었으니까. 근데 전과가 안 됐어요. 그것도 다 알아봤어요. 사범대끼리는 전과 안 돼요. 사범대 안으로

아예 전과가 막혀 있어요.

둘째, 전과를 하려는 학과가 비사범계 학과라고 하더라도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있는 학생은 전과를 주저했다. 사범대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지만, 비사범계 학과 학생은 교사 자격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선애: 저는 교직[14]을 따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사범대 학생이 그 과를 복수 전공 하면 교직이 나와요, 바로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근데 거기 과에 (전과해서) 가면 (성적으로) 10% 안에 들어서 교직을 또 신청해야 되거든요, 교직을 따려면. 차라리 교직 딸 거면 사범대에서 복수 교직[15]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연구자: 거기는 사범대가 아니니까.

정선애: 네, 교직을 따려면 성적을 많이 보니까.

연구자: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장세희: 바꾸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전과를 해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교직이 주는 그 자격증이라는 메리트가 너무 커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16]

셋째,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 임용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우에 그 학생은 전과를 할 수 없었다. 한 참여자는 부모가 반대해서 전과를

14) 이 참여자는 여기서 '교직'이라는 단어를 '교사 자격증'이라는 뜻과 '교직 과정'이라는 뜻에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자격증'이라는 뜻으로 쓰인 '교직'이라는 단어에는 밑줄을 쳐서 구분하였다.

15) '복수 교직'이란 복수 전공을 하되 일반적인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 과정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복수 교직'을 한 학생은 가정교육과를 졸업할 때 가정 과목의 교사 자격증 이외에 '복수 교직'을 한 그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6) 이 참여자는 비사범계 학과인 영어영문학부의 영어통번역학전공에서 개설한 교직 과정에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참여자가 영어통번역학전공으로 전과를 하게 되면 비사범계 학과의 학생이 되기 때문에 교사 자격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못 하고 있었다.

홍아람: 전과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중략) 전과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어... 계속 다니게 됐어요,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넷째, 편입생의 경우 전과를 할 수 없었다. 한빛대는 편입생에게는 전과의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황유선: 바꿀 수만 있다면 그냥 지리교육과로 확 바꿔 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연구자: 왜요?
황유선: 편입생이라서. 복수 전공은 가능한데, 전과는 안 돼요, 네.

이렇게 살펴보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던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전과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나온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과를 하지 않고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생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학생들은 본인이나 부모가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있는 학생들이었다. 즉, 이 학생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따로 없어서 전과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교사 임용 때문에 걸려서 전과를 못 한 것이었다.

이처럼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학생들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 그래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암울하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연구자: 전공은 나에게 어떤 의미예요?
정선애: 전공은... 빼도 박도 못 하는. 허~ 그냥 거기 콱 박혀 버린 거?

어차피 따라다닐 이름표? 그런 거.

(중략)

연구자: 아까 정선애 학생은 전공을 '빼도 박도 못 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선애: 다른 애들도 저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때 기억나세요? ○○○ 언니가 (교수님이) "나에게 가정교육이란?" 했을 때 "족쇄"라고 했잖아요?[17] 그때 ○○○ 언니도 경영으로 전과하고 싶은데 못 했고, (중략)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다른 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학업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업 고충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였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기회만 있다면 가정교육과를 떠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앞서 1. 학과 선택 (4) 전과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번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가정교육과를 떠나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이 학생들은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으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다. 여기는 여기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7) 내가 2012년 2학기 <가정과 논리 및 논술> 수업 시간의 도입부에 연습 문제로 내 준 질문들 중 하나가 "나에게 가정교육이란?"이었다. 이 참여자는 이때 한 학생이 "족쇄"라고 대답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⑴ 문과 vs. 이과: “나 왜 갑자기 이런 거 해야 되지?”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이과 계열 학과이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문과 출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참여자 22명 중에서도 이과 출신 학생은 5명뿐이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Ⅳ. 학업생활의 구조 1. 소상황 ⑴ 입시 성적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문과 출신 학생들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이과 계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문과 출신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전공 수업은 식생활 수업이었다.

홍아람: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거 배우는 줄 하나도 모르고 와가지고. 처음에, 1학년 때 기초영양학이라고 듣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가정교육과는 가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 왜 배워?’ 이러면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연구자: “가정교육과는 가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가정”은 뭐예요, 그럼? 영양 빼고 딴 거? 뭐?

홍아람: 네, 영양 빼고 그냥 가족 있잖아요, 가족에 대해서 배우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내가 이거 왜 배워?” 이러고. 그리고 안 그래도 과학을 한동안 멀리 했었으니까 갑자기 과학에 대해서 하는데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지질이 뭐고, 탄수화물이 뭐고, 이러니까... 그래서 1학년 때 정말 교수님들이 저를 엄청 싫어하셨을 거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수업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경진: 저는 원래 문과생이고 이래서 사회 공부만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근현대사 이런 거고, 근현대사 뭐 한국지리 이런 것만 쭉 하다가, 가정교육과 와서 영양학 배우고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 나 왜 갑자기 이런 거 해

야 되지?' 이러면서,

김다예: 가정교육과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식(食) 파트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니까 저는 화학식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정교육과가) 이과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너 이거 화학식 알지?" 이러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산화가 돼서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완전 이러고 있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장세희: 저는 글리코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들은) 그런 거 설명하시고, 막 폴, 어려워요. 호~

한소윤: 전 문과였거든요. 근데 식(食) 파트가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생물이랑 그런 쪽, 과학이랑 밀접하니까...

유재현: 식(食) 파트나 영양 쪽 있잖아요. 그런 건 너무 싫은 거예요, 하기가. (중략)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문과 출신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수강하는 수업들 중에는 가정교육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기초 수업들도 있다. 이 수업들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의 전공 수업을 수강하기에 앞서 학문적 기초를 닦는 수업들이다. 그런데 문과 출신 참여자들 중에는 이러한 기초 수업을 수강할 때부터 이과 계열 수업 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었다.

연구자: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예요?

장세희: (중략) 제가 문과인데 이과 과목에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생물 같은 게 졸업하려면 꼭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중략) 일반 생물학 및 실험 1, 2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중략) '아, 이게 그렇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냥

(제가) 문과라서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가정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했던 유일한 참여자인 한소윤도 문과 출신이다. 이 학생은 입학 후 식생활 수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자신은 가정 교사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소윤: 이 과가 좋아서 왔는데, 1, 2학년 때 이제 2년을 하고 나니까 '아, 나랑은 좀 안 맞나?' 식(食) 파트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정... 어쨌든 선생님이 되려면 식(食) 파트를 무조건 잘 알아야 되고, 임용을 보려면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내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방황도 하고,

이처럼 식생활 수업은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문과 출신 학생들 중에서는 식생활 전공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참여자는 이렇게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학생 덕분에 자신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김다예: 이제 교수님들이 다 아세요, 문과 애들이 많다는 거를. 그래서 기초영양학 할 때도 처음에는 "이거 알지? 저거 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떤 애가 쪽지를 보냈나 봐요. "제가 문과라서 이해가 안 간다."고 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아예 강의 자체가 되게 자세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래도 좋았던 거 같아요.

이 참여자만 이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 참여자보다 2년 후에 입학한 문과 출신 참여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였다.

오근화: 식(食) 파트나 의(衣) 파트에서, 제가 문과다 보니까, 화학 이야

기나 물리 이쪽이 나오면 그 부분은 생소해서 좀...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럼 그런 생소한 부분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결해요?

오근화: 교수님들께서 그걸 다 아시니까, 저희가 대부분 문과라는 걸 아셔서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그 정도 들으면 다 커버(cover)가 되는 느낌이에요.

장세희: ○○○ 교수님은 정말 딱 잘 알려 주시는 거 같아요. 식품영양학과 수준도 아닌 교양도 아닌 딱 가정교육과 수준에 맞게.

그런데 이러한 해결책에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과 출신 참여자의 경우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이과 출신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유미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이과생이었다 보니까, (중략) 같이 모이게 되면 하는 내용들이 너무 달라지더라구요. (중략) 다른 친구들은 화학이든지 뭐든지 자기들끼리 이제 생물적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들을. 그러면 '그게 뭐였지?' 까먹고 이럴 때 '내가 (가정교육과에) 이과생으로 왔는데...' 또 가정교육과가 이과에 있긴 있어요. 근데 이과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느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과 출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이과 계열 학과이지만 전공 수업은 이과 계열 수업과 문과 계열 수업이 반씩 섞여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과 출신 학생들은 문과 계열 수업도 많이 수강해야 한다. 이과 출신 참여자들은 문과 계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했다.

유미나: 가족학, 아동발달 하면서 과제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이과적인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게 있긴 있었는데

(중략)

유미나: 아동발달이라든지 그쪽 부분에서는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선 좀 쉬운 거 같고, 제일 어려웠던 건 가계 경제랑 소비자 쪽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정선애: 소비자는 진짜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과였는데 항상 과학, 수학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소비자가 딱 하니까 내용이 음... 제 생각에는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강했고.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그 과목이.

이처럼 이과 출신 학생들은 이과 계열 학과인 가정교육과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문과 계열 전공 수업을 들어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이과 출신 참여자들 중에서는 전과를 고려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유미나: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어요. 그래서 전과를 해서 화학과라든지 생물 쪽으로 가서 하든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문과 출신이든 이과 출신이든 상관없이 전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전공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2) 복전[18] vs. 단전[19]: “시험도 너무 뒤떨어지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 22명 중에서도 복수 전공을 하지 않은 학생은 3명뿐이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18) ‘복수 전공’의 줄임말이다.
19) ‘단일 전공’의 줄임말이다.

하게 되었을까?

앞서 1. 학과 선택 ⑷ 전과 가능성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전과를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 학생들 대부분은 전과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다.

이런 학생들 이외에도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또 있었다. 한 참여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복수 전공을 염두에 두고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했다.

오상훈: 국어교육과 경쟁률이 많고, 딴 과보다 높았어요, 커트라인 같은 게. 그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가자.' 그래서, 한빛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도 많이 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일단 가정교육과를 지원했죠.

그런데 복수 전공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일단 복수 전공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쟁률이 높은 전공에 복수 전공을 신청했던 학생들 중에는 복수 전공을 하지 못하고 탈락한 학생도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 한 명은 복수 전공에 신청했다가 탈락해서 다른 대학교의 가정교육과로 편입을 했다고 한다.

윤하나: 친구 중에 한 명은 ○○대 가정교육과로 편입했어요. 영어 (교사) 임용을 위해서 간 거 같은데?

연구자: 에? 왜 그럼 한빛대에 남아서 복수 전공을 안 하고, ○○대?

윤하나: 교직 복수[20]가 안 됐어요. ○○○랑 ○○○랑 ○○○는 영어통번역을 그냥 복수 전공이 아니라 교직 복수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안 됐어요, 교직 복수가. 성적이 안 돼서.

20) '교직 복수'는 앞서 1. 학과 선택 ⑷ 전과 가능성에서 나왔던 '복수 교직'과 같은 의미이다. 같은 의미인데도 학생에 따라 '교직 복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복수 교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많은 참여자들은 복수 전공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 학과에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 학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권영오: 수학 쪽으로 넘어오면 이해하는 데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죠.

정선애: 생명과학과는 어려운 게 정말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머리 싸매면서 하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성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복수 전공의 성적이 노력한 만큼 잘 나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다.

연구자: 복수 전공 성적이 좀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적에 만족해요?

정선애: 어... 휴~(한숨) 너무 공부가 어려워서... 노력보다는 덜 나온 거 같아요. 한 과목이 있었는데, 2학년 때 처음으로 들은 과목이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밤새우고 이랬는데도 성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유미나: 발표랑 그런 거에 제가 공포증이 많다 보니까, 국어교육 수업이 너무 발표 수업이 많아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결과가 안 좋고.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복수 전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런 학생들 중 한 명인 한 참여자는 막상 복수 전공에서의 학업생활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만큼 잘 돌아가지 않자 모든 학업생활에 의욕을 상실해 버렸다.

연구자: 학생이 요새 수업 시간에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황유선: 원래 말 잘 안 해요.
연구자: 음, 말도 안 할 뿐더러 약간 이렇게 의기소침해졌다 해야 되나? 내가 잘못 본 건가?
황유선: 씁, 맞는 거 같아요. 처음보다는 쪼끔 의욕이 떨어진 거 같긴 한데,
연구자: 왜?
황유선: 좀... 힘들기도 하고...
(중략)
연구자: 공부가 뜻대로 잘 안 돼요?
황유선: 그냥 목적 없이 다니고 있는 거 같아요, 학교를.
연구자: 오... "원래는 지리교육 하고 싶어서 사대 소속인 우리 과로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황유선: 네.
연구자: 근데 지리교육에서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나 봐요?
황유선: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연구자: (수업을) 들어 보니까 학생이 배우려고 했던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황유선: 그니까 수업은 재밌는데, 시험도 몇 번 쳐 보니까 너무 뒤떨어지고...

이처럼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실제로 복수 전공을 해보고 나서야 복수 전공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했다. 이렇게 복수 전공에서 어려움을 실감한 학생들 중에는 가정 교사 임용 준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들도 있었다.

유미나: 이제 배우다 보니까 '아, 이 국교[21]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이쪽으로 임용을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정 쪽으로 저는 이제 임용을 보고 싶어요.

21) '국어교육'의 줄임말이다.

김다예: 수학교육과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수학이 아닌 거예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다른 수학이잖아요.

연구자: 그렇지.

김다예: 내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이과 수학을 혼자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도, 그런 수학이 아니라 너무 고차원적이거나 아니면 해석학 이런 거는 정말 암호 같고 이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가정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봐야지 했는데,

그런데 특이한 일이 있었다. 복수 전공에서 어려움을 느껴서 가정 교사 임용 준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하는 참여자들이 하나 같이 복수 전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근화: 가정 하나만 집중해서 전공 수업 많이 듣고 싶은데, 국어교육 복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니까, '가정에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하나, 한 우물을 파는 게 나을까 싶다가도,

(중략)

오근화: 국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을 취할 수 있다면, '이게 국교여서 아예 동떨어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배울 게 많으니까 같이 병행하는 걸로, 네, 생각은 굳혔어요.

유미나: 이제 가정교육과로 임용을 보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갈등도 좀 있어서

이 학생들이 복수 전공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교사 임용에 대한 꿈을 품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많은 학생들에게 복수 전공은 교사 임용을 보장해 줄 "안전한 장치"였던 것이다.

이언희: 사범대 오면 교직 복수가 가능하니까, 오면서부터 뭔가 안전한

장치가 있으니까 좀 더 선택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참여자는 복수 전공이 “보험”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복수 전공을 통해 그 과목의 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받는 것과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과목의 교사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근화: 그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보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데 또 그런 건 아닌 거 같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만약에 가정 선생님이 안 됐을 때, 방향 선회가 가능해야 보험인데, 방향 선회가 안 되더라구요.

(중략)

연구자: 국교가 보험이 안 될 것 같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도 돼요?

오근화: (중략) 선생님을 한다고 했을 때, 국교로 임용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교로 기간제나 사립학교? 이런 걸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을 했을 때, 국교 애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제가 그 아이들에 비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니까 그쪽으로 선회가 불가능한 느낌? 어차피 선생님으로는? 그래서 보험으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구요, 저는.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참여자 역시 복수 전공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가정 교사 임용 준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들조차도 복수 전공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할 수도 단일 전공을 할 수도 없는 상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다.

(3) 임용 vs. 취업[22]: “그딴 정보는 없다구 이러시니까”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는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한 명도 없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전부 식품영양학, 의류학, 소비자학, 아동학 등 가정학의 세부 학문들 중 하나를 전공한 상태였다. 한 참여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전공 수업 시간에 가정교육 수업이 아니라 가정학 수업을 한다고 했다.

> 윤하나: 교수님들이 소비자 파트 있고 식(食) 파트가 있고 의(衣) 파트가 있고 그런데, “너희들이 (가정 교사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 지식만 가르쳐 주시니깐, 내가 영양사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생활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가정교육과) 연계가 안 되고...

게다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수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과 학생들의 교사 임용에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혹은 가정 교사 임용 준비에 관심이 있던 학생들은 이런 학과 교수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 한소윤: 교수님들도 대책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거나 그런 게, 그니까 서포트(support),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도 덜 들어서...

> 윤하나: 교수님들은 임용에 대해서 그렇게 서포트(support)가 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봐.” 이렇게 말씀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

22) 취업은 일반적으로 ‘직업을 얻음’이라는 뜻이므로 교사로 임용되는 것도 취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범대 학생들은 취업이라는 용어를 ‘교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을 얻음’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지원만 못 받는 것이 아니었다. 이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검증을 받을 기회도 거의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참여자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생 실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언희: 저희가 이런 말이 돌아요. (어떤 학생이) "아, 교사 해야 될지, 취업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게 교생 실습을 나가 보면 극명하게 나뉜대요. 교생 실습을 나가서 진짜 교사에 대한 마음을 굳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을 들었어요.

연구자: 교생 실습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기보미: 근데 되게 영향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안 맞는데도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도 있고, 갔다 와서 좋았으니까 '아, 교사 가는 게 맞구나.' 싶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영향 많이 준대요. 생각이 달라진다는, 한 번 갔다 오면.

실제로 참여자들 중에서도 교생 실습을 다녀와서 교사를 하려던 마음을 접은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교생 실습은 졸업 직전에 나간다. 이 참여자는 사범대에 내내 다니다가 졸업 직전에 교생 실습 한 번의 충격으로 교사 임용을 단념한 것이었다.

최서영: 마지막 주에 중2 애들을 가르쳐 봤거든요. 수업을 두 차시인가를 맡아서 세, 네 반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 반 애들이 컨트롤(control)이 안 되는 그런 반이었어요. (중략) 그때의 인상 때문에 '아, 나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이 좀 덜한가?', '정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략) 교생 때 약간 삐끗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난 차라리 원래 하고 싶었던 대로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문제는, 이 학생들이 교생 실습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생 실습에 대한 질적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참여자들 중에는 교생 실습을 이미 다녀온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교생 실습의 현장은 이런 모습이었다.

김다예: 제가 교생을 나가 보니까, 저를 맡았던 선생님께서, 식품이었나? 사범대가 아닌 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셔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1년차셨는데, 저한테 아동가족 파트를 주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그 자료들을 자기한테 다 달라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전공한 식(食) 파트 외에는 다른 부분, 의(衣) 파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혹시 학교에 돌아가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가정 선생님이신데, 다른 거를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셔서 실습을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정선애: 제가 (교생 실습을) 가정으로 나갔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계신데, 가정은 와도 수업 준비가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뭐

(중략)

정선애: 고등학교로 교생 나간 친구는, (가정 과목은) 애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이라서 수업을 잘 안 들었대요. 좀 쉬우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최서영: 그 학교가 가정 선생님이 두 분 다 할머니이시다 보니까 수업을 할 때, (중략) 내가 들어도 왜 배우는지를 모르, 목표가 없고, 그냥 컨텐츠만 계속 나오니까 애들도 너무 지루해 하고, (중략) 담임 반을 상담을 하잖아요. 애들이 "아, 저는 가정 과목에 대해서, 이게 다른 과목들이랑 다른 이유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때, (중략) 그때는 저도 그 아이들의 입장이 되어 보면 재미

도 없고,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 시험도 안 봤어요, 그 학교가.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더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수행 평가만 억지로 하고, 포스터 만들기 이런 것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가정 교사들은 교생을 지도하기는커녕 교사 본인의 가정 수업도 감당할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이런 수준의 교생 실습을 통하여 스스로 교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학과의 학생들이 학과 교수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한 참여자는 다른 대학교의 유아교육과에 다니다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편입하였다. 이 참여자는 유아교육과에 입학한 후 1학년 때 바로 학과 교수들로부터 유아 교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검증을 받았다고 했다.

연구자: 예전에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이언희: 원래는 유아교육과.
(중략)
연구자: 임용은 (거기가)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굳이 가정교육과로 왔어요?
이언희: 저희 교과 연구 그거 지도하는 거 그거[23]처럼요, 거기서도 1학년 때 이 수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저는 애기들보다는 큰 학생들이 더 어울리겠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학자의 길을 걷거나 교수가 되거나 그렇지, 그니까 학생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카리스마는 있는데, 애기들한테 무서울 수도 있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다른 학과의 교수들 중에는 학과 학생들에게 단순히 교사로서의 자질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의 특성에 맞는 교

23) <가정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말한다.

사로서의 자질까지 검증하는 교수들도 있었다. 그런데 앞서 1. 학과 선택 (4) 전과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가정 과목의 교사가 아닌 다른 과목의 교사 혹은 중등 교사가 아닌 초등 교사를 하고 싶어 했던 학생들이 많았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사실 교사로서의 자질 이외에도 가정 교사로서의 자질과 중등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이러한 세밀한 검증을 받기는커녕 단순히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2) 복전 vs. 단전에서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다른 학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하는 그 학과의 교수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검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복수 전공을 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그 학과의 교수들로부터 검증을 받기는커녕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선애: 교수님들도 거기서는 살짝 그게 있더라고요. “넌 복수 전공생이니까 그냥 편하게 해라.”

오근화: 거기 교수님들은 국교 임용에 대한 정보가 생겼을 때, 세미나를 열어도 그쪽 애들이 그래도 우선이 되잖아요.

교사를 하고자 하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이처럼 학교 내에서 교수들로부터 교사로서의 자질에 대해 검증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교생 실습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참여자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참여자들이 두 명 있었다. 이 참여자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 한 명으로부터 교사 임용에 대해 조언이나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

데 이 참여자들이 이 교수로부터 받은 조언이나 권유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참여자는 이 교수로부터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이 참여자가 이 교수로부터 받은 조언은 이런 것이었다.

연구자: (학생이) "생물이나 화학 쪽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복수 전공을 교직으로 할 거면 그쪽 관련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거 같은데, 굳이 왜 본인에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국교를 하게 됐을까?

유미나: 처음에 2학년 때는 생물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는 봤었는데, 상담을 그때 ○○○ 교수님하고 했었는데, ○○○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너가 차선책으로 한다고 했으면, 가정교육이 많이 안 뽑으니까 주전공," 주로 된 것들 있잖아요,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쪽이 주가 되니까, "생물 쪽을 한다고 하면 생물도 가정하고 똑같다. 별로 뽑지도 않고 많이 힘든 부분인데, 이쪽으로 너가 할 그게 되냐? 마음가짐을 갖고 해야 한다, 생물로 복전하려면." 제가 고민하다가 포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연구자: 그럼 차라리 수학교육이나 이런 걸 하지 그랬어요?

유미나: 수학은 너무 어려울 거 같아서.

앞서 (1) 문과 vs. 이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참여자는 이과 출신 학생이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전공 수업 중에서도 문과 계열 수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학생이 학과 교수로부터 교사 선발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복수 전공을 하라는 조언을 듣고 문과 계열 학과인 국어교육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과 출신인 이 참여자가 국어교육으로 복수 전공을 하면서 겪고 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서 (2) 복전 vs. 단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또한 이 교수는 학과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과 관련하여 조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한 명의 참여자는 이 교수로부터

교사를 해 보라는 권유까지 받았다고 했다.

이세영: ○○○ 교수님하고 상담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략) 저희가 1 학기 때 수업 관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요. 수업을 20분 동안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교수님한테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과제예요. 그때 교수님이 "(교사를) 해 보는 거 어떠냐?" 그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좀 생각을 해 봤죠. 그래서 '음...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일단은 교수님한테도 본다고는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임용 준비를 한다고.

그런데 이 교수가 어떤 학생에게 교사를 해 보라고 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참여자는 교육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세영: 거긴 영어 학원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관리직으로 들어갔어요. (중략) 이윤 창출해야 되니까 중심적인 거는 관리팀에서 해 주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면 공장 돌아가듯이 그냥 기계일 뿐이고, 관리직에서 생산, 이윤을 창출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중략) 또 교육적인 것도 거기서 많이 봤죠.

연구자: 교육적인 거라는 건 뭘 봤다는 거예요?

이세영: (중략) 그 학원에서 추구하는 시스템이 딱 있어요. 그럼 "어떤 적시에 어떤 게 필요해서 이 사람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중략) '아, 교육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요런 거 많이 보고, 신기한 것도 많이 느꼈죠, 교육에 대해서.

이 참여자가 이야기하는 교육 속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 참여자가 말하는 교육에서 교사는 누군가가 설계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였고, 이 참여자가 말하는 교육에서 학생은 그 기계가 제시간에, 오차 없이 생산해 낸 제품이었다. 앞서 살펴본 교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 덜컥 교사를 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었다.

결국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교사를 하고자 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 교사 임용과 관련해서 조언이나 검증을 아예 못 받거나 잘못된 조언이나 검증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는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학과 내에서 조언이나 검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과 내에서 발붙일 틈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윤하나: 1학년 끝나곤가? 그때쯤에 과에 과 사무실이라는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갔어요. “임용 준비자 말고 취업~ 방향은 어떻게 되냐?” 이거를 물어보러 갔어요. (중략) 그때 그 조교분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아, 그러한 정보는 없다.” (어이없이 웃으며) 굉장히 쌀쌀맞게.

따라서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고 취업 준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학생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가 쉬웠다. 참여자들 중에도 취업 준비 쪽으로 돌아섰다가 시작도 못 하고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윤하나: ‘아, 나도 이제 쪼끔 찾아는 봐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과 사무실에) 갔는데 “그런 정보는 없다.” 그니까 좀 우스우셨나 봐요. 그런 정보, 그딴 정보는 없다구 이러시니까. ‘아하, 그럼 나는 임용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님 다른 데를 가서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 하고 거기서 튕겨 나와서 그냥 방방 다니고... 이렇게 3학년을 마치게 됐습니다.

유재현: 지금까지 정말, ‘내가 3학년인데 3년 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계속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중략) 나중에 이력서 같은 거를 쓰려면 ‘뭘 써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정 과목의 교사 선발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자 취업을 준비하던 학생들 중 상당수가 가정 과목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보겠다고 몰려들었다.

연구자: 올해 가정 교사 티오(TO)[24]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전국적으로 90명인가?

(중략)

정선애: 솔직히 저희 과 그때 되게 많이 동요가 일어났었어요. 어떤 언니들도 “돌려야겠다, 가정으로.”

연구자: 뭐 하다가?

정선애: 뭐... 아예 취업으로 준비하려던 언니들도 “가정 볼까? 한 번 볼까?” 이렇게 얘기도 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는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전문적인 조언이나 검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교사 임용 준비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제대로 시작하지도 그렇다고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진로 난관

24) 본 논문에서 ‘티오(TO)’는 ‘교사 선발 인원’이라는 뜻이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앞서 2. 학업 고충에서도 다루어졌다. 그런데 앞서 2. 학업 고충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특히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좀 더 부각시켜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앞서 2. 학업 고충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 자체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폐과 위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한 참여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처음으로 교사들로부터 늘봄대[25]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이때 이 참여자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기도 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윤하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딴 선생님이 “너 어디 가니?” 하셔가지구, “한빛대 가정교육과 갑니다.”
연구자: 그게 언제죠? 2010년 2월이에요?
윤하나: 네. “너 그거 알아? 늘봄대는 (가정교육과가) 없어진대.”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랑하고 다닌 상황에서, “한 번 학교 와. 선생님이 할 말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나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 가정교육과 간대.” 그 선생님이 늘봄대 (가정교육과)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구 막... 학교 오라구 한 번, 졸업하구 나서
(중략)

25) 늘봄대는 가명이다.

연구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은 어땠어요?
윤하나: (웃으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참여자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이후에 실제로 늘봄대에서는 가정교육과가 폐과되었다. 그 당시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빛대에서도 가정교육과가 폐과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선애: 옛날에도 사범대에서 한 과가 없어진다고 소문이 좀 돌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 애들이 "아, 우리 과 없어지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윤하나: 1학년 땐가 2학년 땐가 다니면서도 "우리 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들리구... 그랬어요. "우리 과랑 체육과랑 없어진다.", "소문인데 교수님들만 아는 건데 이게 우리한테 퍼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신다."
연구자: 아하하~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 애들, 그냥 학생들한테?
윤하나: 네. (목소리를 작게) "가정교육과가 없어진대. 우리가 흔들릴까봐 말을 안 하고 계신대." (웃으며) 으흐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이런 소문을 흘려듣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당시에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더 나아가 가정교육 전체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언희: 전 시위 현장도 가 봤으니까, 뭔가 학회[26]라고 하나요? 이런 데가 위태위태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구나.' 그니까 교육계에서 우리 과에 대한 이런 필요성 엄청 느끼면 (가정 교사를) 더 많이 뽑고, 그렇게 (가정교육과를) 폐지 결정 안 할 거 아니에요? (중략) 그리고 제가 교생 하려

26) 맥락상 '학계'라는 용어가 더 잘 맞는다.

고 전화를 모교로 했을 때도, (중략) (가정 과목이) 없어졌대요.

김다예: 저희끼리 그런 얘길 했었거든요. “진짜 가정교육과 없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늘봄대도 없어지고 계속 없어지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저희가 소비자학 교수님이 비어 계신데 안 오시잖아요. “가정교육과에 교수님들이 안 오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다. 이러다 가정교육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될 것이라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참여자들은 가정교육과가 한빛대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폐과되는 것이 시간문제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연구자: 학생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교육과가 위태위태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가 어떨 거 같아요?

이언희: ...(오래도록 생각함) 아까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가정 교사가) 배출되지 않는 이상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니까 교사를 배출해야 교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이런 거를 해 주는데, 저희가 졸업해도 막상 가정과 선생님으로, 기간제든 어디든 하고 있다고 저는 잘 듣지를 못했거든요.

김다예: 진짜 가정교육과가 분명히 우리가 배워서 필요성은 있지만, ‘아...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들?

연구자: 가정교육이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중략)

윤하나: ‘없어져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지만, ‘없어져도 뭐라고 찍소리 못 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런데 모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정교육과가 폐과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를 폐과시키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 만약에 한빛대학교에 가정교육과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 같아요?

정선애: 하~(한숨) 그때는... (중략) 오히려 (가정 교사) 티오(TO) 안 나고 그런데 계속 (신입생을) 받아 봤자 애들만... 차라리 다른 과 가서 다른 데 취업을 하면 나을 텐데, (티오가) 나지도 않는 걸 무작정 받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좀 그게 안타깝죠, 너무 티오(TO)도 안 나고...

연구자: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 거 같아요?

정선애: 네. 차라리. 차라리 다른 과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전과 하는 것도 힘들고, 복수 전공도, 제가 해 봤지만, 힘들거든요, 좀.

반면에 참여자들 중에는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서 폐과를 반대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러한 참여자들 중에서도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지 않도록 나서서 막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연구자: 한빛대학교에서도 "가정교육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가 내려온다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윤하나: ... 제가 발 벗고 폐지 반대를 나서기에는, 참... 제 입지가... 제가 그 (가정 교사) 준비생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가정 교사 임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없애시면 어떡합니까? 저의 친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긴 한데, 반대를 아주 뒤에서 작게나마 외칠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안 되는... (강조하며) 반대인데, 반대 운동까지는 못 할 거 같애요. 반대죠, 결사반대. (중략)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너 임용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쑥스럽게 웃으며) "아, 그건 아니지... 그냥 국민으로서" 이렇게 말하기가...

이 참여자의 논리대로라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지 않도록 나서서 막을 수 있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다고 공공연하게 나서는 학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빛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강사로 온 나에게 한빛대 가정교육과를 부탁했다.

이언희: 꼭 제가 잘돼서 과에 뭔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가정과를 지켜 주세요. 헤~ 지켜 주세요, 정말. 저는 못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왜 학과 교수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일까? 앞서 2. 학업 고충 (3) 임용 vs. 취업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전부 가정교육이 아니라 가정학의 세부 학문들 중 하나를 전공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한 참여자는 학과 교수들은 전부 "가실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윤하나: 만약에 (가정교육과가) 없어지더라도 교수님들은 가실 길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갈 길이 없는데, 우린 아직 학생인데, 너무 교수님들이 신경 안 써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처럼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중간에 소속 학과가 없어질까 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특히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학생들은 가정 교사 임용 준비를 하다가 의지할 곳이 사라질까 봐 진로를 가정 교사로 정하는 데에 더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이것 이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었다.

⑵ 임용 희박: “여덟 명을 뽑는 상황에서”

앞서 2. 학업 고충 ⑵ 복전 vs. 단전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반드시 복수 전공을 한 그 과목으로 교사 임용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참여자는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매년 발표되는 과목별 교사 선발 인원을 봐 가면서 복수 전공과 가정교육 중에서 어느 과목으로 교사 임용 준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정 교사를 전국적으로 거의 선발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정 과목으로 교사 임용 준비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고 했다.

> 김다예: (가정 교사) 임용 티오(TO) 안 나고 이럴 때 애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중략)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3학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한 게, 국어 (교사 자격증)도 있고 가정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제 (어떤 과목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볼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3학년 때 교육학을 (준비)하지만 4학년 때 전공 준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애들이.

실제로 참여자들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가정 교사를 거의 선발하

지 않는 기간이 길어졌던 사건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예 가정 교사 임용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했고, 또 다른 참여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복수 전공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경진: 작년에 (가정 교사 티오가) 여덟 명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임용을 본다 해도, 가정을 여덟 명을 뽑는 상황에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쪽이잖아요? 그래서... 임용 티오(TO)가 이렇게 올해처럼 났으면 저도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상황, 여덟 명, 또 이렇게 났더라면 좀 좌절스러웠을 거 같아요. '아, 하고 싶어도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양아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정 교사를) 아예 뽑지도 않고 이랬었잖아요, 충남 네 명만 뽑고.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럼 일단 교사는 꿈이니까...' 사립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국어교육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면 사립을 가더라도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처음에는 국어교육을 했어요, 복수 전공, 2학년 때.

그런데 앞서 2. 학업 고충 ⑵ 복전 vs. 단전에서 살펴봤듯이 복수 전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던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복수 전공 이외에 또 있을까? 이 학생들 중에는 취업 준비로 돌아선 학생들도 있었다.

연구자: 그럼 교사는 안 하구, 기업으로 가는 걸로 바꾸게 된 거네요.
김다예: 네네네네.

양아정: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 교수님이 되게 힘이 세다." 으흐 "어떤 선배님들도 은행에 막 꽂아 주시고" 그런 소문이 나돌아 다녀서 '아, 이렇게 특별 관리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소비자 연계 전공을 했어요.

연구자: 영양사예요, 영양 교사예요, 학생이 하고 싶은 게?
이경진: 영양사요. 그쪽으로도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식품 회사 쪽 취업도 생각하고...

이 참여자들만 취업 준비로 돌아선 것이 아니었다. 가정 교사가 되고 싶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했던 유일한 참여자인 한소윤도 이때 교사의 꿈을 접고 취업 준비 쪽으로 돌아섰다고 했다.

한소윤: 저희가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가정
연구자: 임용 티오(TO)가 없었죠.
한소윤: 에에. 가정이 과학이랑, 한문이랑 다 합쳐지면서 입지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2학년, 3학년 때가 돼도 빛이 안 보이고 그래서, ○○○ 교수님이나 담당 교수님들한테 전망이 어떨 거 같으냐고 걱정스럽게 계속 여쭤봤어요. 그런데도 "언젠가는, 주기가 있으니까, 돌아올 거다, 가정을 또 많이 뽑는. 그니까 일단은 기다리고, 너가 진짜 뜻이 있으면은 계속 해라." 그랬는데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계속 바꿨어요. 그래서 방황을 좀...
(중략)
한소윤: 그때 그래서 성우 하겠다, 공무원 하겠다, 뭐 하겠다 계속 그랬던 거 같아요. 내 이 깊은 마음속에는 '가정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아우, 현실이 너무 바늘구멍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도 불안하고,

이처럼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그 당시에 폐과 위기라는 어려움에다가 가정 교사 선발 인원 축소라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학생들은 복수 전공이나 취업 준비로 돌아섰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1. 학과 선택 (1) 학과 이미지에서 살펴본 아이러니한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던 것인지를 설명해 준

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과대표 학생이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는 학생이 있느냐고 물었을 당시에 이 학생들은 모두 가정 교사 임용에 대한 기대를 접고 복수 전공이나 취업 준비로 돌아선 상태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이 학생들 중에서 취업 준비로 돌아선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⑶ 취업 불리: “깊게 안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사범대 학생들은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보다 취업하기가 어려웠다. 사범대 학생들은 사범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현장에서 기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 참여자는 취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 자신이 사범대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 김다예: 제가 취업을 준비한다고 3학년 때 생각을 했을 때, 대외 활동 같은 걸 시작했거든요? 지원서를 쓰니까, 사범대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다 떨어지더라구요. “임용고시 준비를 왜 안 하고?” 그래서 몇 개 면접을 보러 가면 다 질문이 그거예요. “가정교육과면 사범대인데, 왜 임용 준비 안 하고 대외 활동해요?” 다 그 질문이더라구요.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게. 그니까 ‘내가 사범대지만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건데, 기업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애잖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범대 학생들 중에서 특히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웠다. 가정교육과에서 배운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

중 하나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세부 학문 분야에는 그 세부 학문 분야만 집중적으로 전공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어요?
기보미: 공부하고 그런 거보다는, 다른 친구들도 그렇지만, 진로 때문에 제일 고민이에요.
연구자: 왜요?
기보미: 가정과를 살려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니까 뭐랄까? 가정(교육)과 자체가, 의, 식, 주, 소비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배우잖아요. 근데 식품이면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도 있는데, 또 의(衣) 파트면 의류학과도 있는데... (가정교육과는) 깊게 안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하니까...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학생들 중에는 취업을 하더라도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떤 다른 학생들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이 학생들이 자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선택하는 것은 연계 전공이었다.

이경진: 지금 식품영양 연계 전공 하고 있어요.
(중략)
연구자: 이거 하고 나면 영양사 자격증이 나와요?
이경진: 시험 봐야 돼요, 영양사 국가고시.
연구자: (연계 전공 수업을) 들으면 영양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경진: 네.
(중략)
이경진: 제가 사실 소비자학 (연계) 전공 하려고 소비자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한 20학점 정도 들었나? 다른 과 것도 연계 전공 하

는 걸로 들어 보고 그러다가 식(食) 파트로 (연계 전공을) 바꾼 건데,

김다예: 저는 소비자학을 복수 전공[27] 해가지고, 그래서 경영학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중략)

김다예: 지금 저도 소비자 업무 전문가 자격증을 땄거든요.

그런데 연계 전공을 하고 있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연계 전공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학생들이 교수들의 일까지 하면서 연계 전공을 했다고 이야기했고, 다른 참여자들은 연계 전공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김다예: 저희 과 내에서 소비자학 (연계 전공)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세 명이거든요. 저희 셋이 소비자학 (연계 전공)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커리큘럼(curriculum)이 없어서 저희가 커리큘럼(curriculum)을 만들어 가면서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양아정: (연계 전공을) 좀 하다 보니까 교수님 이제 퇴임하시고, 별로 얼굴 볼 일도 없는 거 같고, 흐지부지되면서

이경진: ○○○ 교수님이 식(食) 파트이시긴 한데 연구년이셔서, 제가 이쪽으로 (연계) 전공 정하자마자 연구년 되셔가지고 상담 받을 사람도 없고

이처럼 가정 교사를 할 마음이 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취업 준비로 돌아서서도 가정교육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27) 맥락상 '연계 전공'이라는 용어가 더 잘 맞는다.

Ⅳ. 학업생활의 구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에서 살펴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은, 이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가고 싶은 학과로 가지 않고 가정교육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은,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이 학생들은 복수 전공에도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학생들 역시 가정 교사 임용 준비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은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은 어떻게 해서 이런 양상으로 드러나게 되었을까? 이 장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했던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구조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조 분석의 기준으로는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2006)의 상황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소상황, 대상황, 매개상황’ 이다.

> 인간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자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상황을 연계해서 고려해야 한다. 소상황은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구체적·특수적·가시적·일상적·체험적 상황이며, 한 체제 안의 현장적 조건 혹은 내부적 맥락이다. 이와 달리, 대상황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

상적·보편적·비가시적·비일상적·이론적 상황이며, 한 체제 밖의 환경적 조건 혹은 외부적 맥락이다. 그리고 매개상황은 대상황과 소상황을 매개하는 해석적 메타-소통 상황이다(조용환 외, 2006, p. 53).[28)]

1. 소상황

여기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이 학생들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소상황은 두 가지였다. 바로 입시 성적과 경제적 의존이었다.

(1) 입시 성적: "언어를 너무 못 보다 보니까"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은 학생들의 학업생활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던 현상에 한정하여 그 현상에 작용했던 특수한 소상황에 대해서만 먼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여자들 중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학생이 있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자신의 성적으로도 한빛대 가정교육과 이외에 다른 곳에는 합격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연구자: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수석으로 붙을 정도면, 다른 데 원서 넣었던 것도 많이 붙었을 거 같은데,
최서영: 아니요. 안 붙었어요.

한빛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있다. 그

28) 소상황과 대상황을 분석할 때에는 강은영(2010)의 실제 연구 사례를 참고하였다.

런데 어떻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이 다른 곳에는 합격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⑴ 문과 vs. 이과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이과 계열 학과이지만,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문과 출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문과 출신 참여자들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이 있었다. 바로 수능을 봤을 때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심진용: 제가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헤~

장세희: 제가 언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 이럴 때는 되게 잘 점수를 받았는데, 큰 시험에 있어서는 제가 제 실력 발휘를 못 한 거 같기도 하고,

오근화: 언어를 망했어요, 심하게. 사실 다른 과목들보다 언어가 시험 볼 때도 부담스럽고 그러긴 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안 나온, 원래 못했지만 더 안 좋게...

기보미: 저는 언어가 되게 약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의 말에 따르면, 보통 어느 대학교나 문과 계열 학과들은 입학생을 뽑을 때 학생들의 수능 성적 중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을 많이 본다고 한다. 그래서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은 문과 계열 학과로 가려면 대학교 이름값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했다.

최서영: 제가 언어를 너무 못 보다 보니까 여기를 썼는데, 정치외교학과를 쓰자면 대학을 많이 낮춰야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오근화: 그때 사실 제 성적으로 이 라인(line)의 대학교에서는 가정교육과, 한빛대 말고는, 그냥 문과로 가면 뭐 영문이나, 영문은 세다고 하지만, 다른 역사학과, 철학과 이런 데로 해도 문과로는 지원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저희 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 한 아이들은. 그래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2) 대학교 이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대학교 이름값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낮출 마음은 없었다.

장세희: 교대를 가고 싶었는데, 그게 쪼끔 아쉽긴 하지만,
연구자: 교대도 시험을 쳐 봤는데 안 된 거예요?
장세희: 네에... 교대도 욕심을 낮춰서 ○○ 교대라도 썼으면 됐을 텐데, 자꾸 서울 교대[29]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과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모두 챙기기에는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받은 성적이 부족해서 대학교 이름값만 챙긴 것이었다.

그래도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이과 계열 학과이다. 그런데 이과 출신도 아닌 문과 출신 학생들이, 특히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들이 이과 계열 학과인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대거 입학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참여자는 자신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수능 성적 중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을 10% 밖에 안 봤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이라 하더라도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

29) 학교의 이름을 밝혀야 참여자가 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 특별히 사생활 보호에 지장이 없으면 학교 이름에 가명을 사용하지 않고 본래 학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는 데에는 특별히 티가 나지 않게 된다.

최서영: 여기가 언어를 10%밖에 안 봤잖아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연구자: 여기는 언어를 10%밖에 안 봐요?
최서영: 에에에

그런데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 중에는 이과 출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과 계열 학과인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문과 출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러니하게도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입학 전형은 이과 출신 학생들이 아니라 문과 출신 학생들에게 더 유리했다고 한다.

연구자: 언어를 조금 보면 이과 애들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서영: ... 근데 그게 이과 애들이... 영어를 잘 보는... 막상 그렇게 잘 보진 않잖아요. (중략) 수학 같은 거 잘 보지만, 근데 저희가 영어가 40%인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랑, 사탐[30]을 맞았어요, 40%, 30%인가? 거기다 제2 외국어도 교차로... 될 수 있고... 사탐 하나를 버리고, 제2 외국어를 넣을 수 있고.
연구자: 문과 쪽 학생들이 선택지가 되게 넓네요.
최서영: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한빛대 정도의 이름값을 가진 대학교들 중에서 문과 출신 학생들이 교차 지원 할 수 있는 이과 계열 학과는 한빛대 가정교육과밖에 없었을까? 참여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는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들이 교차 지원 할 수 있는 이과 계열 학과도 많지 않다고 한다.

30) ‘사회탐구’의 줄임말이다.

홍아람: 언어가 안 좋으면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교차 지원이 되는 곳이. 식품영양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가정교육과, 이렇게 네 가지였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아, 간호학과도 있었어요.

기보미: 문과에서 언어를 못 치고 다른 걸 잘 치면 갈 데가 없어요, 진짜. 학교가 몇 개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 식품영양학과, ○○대 간호학과 등등등. 몇 개 말고는 없었어요, 진짜. 그냥 문과 쪽으로 맞춰서 가면 학교 레벨이 뚝 떨어지고.

그런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3) 교사 자격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대학교 이름값만이 아니었다. 교사 자격증도 있었다. 그런데 앞서 두 참여자가 나열한 이과 계열 학과들 중에 사범대 소속 학과는 가정교육과밖에 없다. 따라서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문과 출신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을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이다.

기보미: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여기가 교차 지원이 되는 과예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좀 많고, 대부분이요. (책상을 쾅쾅 두드리며) 언어 점수가 낮고, 수리, 외국어, 사탐 점수가 높아서 입학한 애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정교육과 자체를 좋아서 입학한 친구들보다는 그냥 성적 맞춰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문과 출신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과 출신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지 않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을까? 지금부터는 이과 출신 참여자 다섯 명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2) 대학교 이름에서는 권영오가 대학교 “수준”을 보느라 자신이 원하는 수학교육과에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또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4) 전과 가능성에는 백수아가 수학교육과로 가고 싶었지만 성적이 안 돼서 수학교육과에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의 이과 출신 참여자들의 이야기도 앞서 나온 두 참여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했다.

연구자: 전공 같은 건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었고요?
정선애: 공대 쪽이나 생물, 수시 썼을 때는 다 생물 쪽을 썼었어요. 여기만 가정교육 쓰고.

유미나: 제가 이과 쪽이다 보니까, 여러 개 넣었었는데 이게 된 거예요.

진소이: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수학교육과 이런 쪽으로 대학교를 다 넣었는데, ○○대랑 같이, 교육 쪽으로는 다 떨어지고 ○○대만 붙은 거예요.[31]

결국 이과 출신 참여자 다섯 명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모두 문과 출신 참여자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들도 자신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대학교 이름값과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모두 챙길 수 없어서 대학교 이름값만 챙긴 것이었다. 결국 문과 출신, 이과 출신을 막론하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받았던 성적은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한계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받은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만으

31) 뒤에 나올 Ⅴ. 학업생활의 의미 2. 외부 지향의 결과 (1) 대리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진소이는 처음 입학했던 이 대학교에서 한 학기 만에 나왔다. 그리고 다시 대학교 입학시험을 봐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였다.

로도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바로 대학교 이름값을 낮추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갈 수 없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지 않은 현상, 즉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는 이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넉넉한 성적을 받지 못했던 소상황과 대학교 이름값을 무시할 수 없었던 대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지 않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현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을 무시할 수 없었던 대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대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2. 대상황 (1) 사회 인식 가. 학벌주의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지 않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현상만 따로 떼어 이 현상에 작용한 소상황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의 전반에 작용한 소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적 의존: “나중에 제가 돈을 벌어서”

한 참여자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했다. 이 참여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학기에는 휴학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경진: 내년에 제가 휴학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이경진: (울면서) 사실 작년에, 흠(헛기침), 여름에 아빠가 쓰러지셔가지고요,
연구자: 오... 왜, 왜?

이경진: 뇌출혈.
(중략)
연구자: 부모님하고는 의논이 다 된 애기예요? 휴학하겠다는 애기?
이경진: 네
연구자: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경진: (끄덕)
(중략)
연구자: 그러면은 학비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이번 학기에?
이경진: 이번 학기에 학자금 대출 받았어요.

이 참여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경제적 의존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었다. 사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기더라도 스스로 학업생활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본 적이 없다.

물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의 경제력으로는 학비를 마련하기는커녕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도 힘들어 보였다. 여기서 잠깐 참여자들의 아르바이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진용: 지금 제가 근로[32]를 2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중략)
연구자: 뭘 하고 있는데요? 근로를?
심진용: 교수님들 컴퓨터도 봐 드리고,
(중략)
연구자: 그러면 돈은 많이 줘요, 거기서?
심진용: 그냥 용돈벌이죠, 뭐. 많이 주는 건 아니고. 한 한 달에 45?

연구자: 정선애 학생도 아르바이트 해요?

32) '근로 장학생'의 줄임말이다. 근로 장학생이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학교로부터 일정 금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받는 학생을 뜻한다.

정선애: 지금은 안 하는데 했었어요. 1학년부터 2학년까지 1년 6개월?
연구자: 뭐 했었어요?
정선애: 저는 과외는 안 했고, 떡집에서 카운터 지키는 거 했었어요. (중략) 그건 주말에만 일곱 시간씩. 토, 일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쉬어서, 여섯 번 해서, 20만 원 넘게 받았어서
연구자: 한 달에?
정선애: 네.

양아정: 학교 되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중략) 입학하기 전까지 3개월 정도 빵집에서 알바[33] 했었고, 여름 방학 때는 커피집
연구자: 그럼 지금은 하고 있는 거 없구요?
양아정: 지금은 과외 해요.
연구자: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양아정: 과외는 1학년 때 겨울에 잠깐 했었구요. 그러다가 안하다가 3학년 와서 한 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연구자: 그 학생만 쭉 5개월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양아정: 아뇨, 다른 학생이에요.
연구자: 바뀌었어요, 중간에?
양아정: 네네.
연구자: 얼마 정도 받아요?
양아정: 25에서 30.

연구자: (학교) 본관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오상훈: 영상 장비실에서 근무하는데,
(중략)
연구자: 그거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상훈: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으로 계산되는 거라서 일반 아르바이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연구자: 얼마 정도 받아요?
오상훈: 시급이 6000원이라서

33) '아르바이트'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오상훈: 저는 일찍 전역해가지고 알바도 다니고, 네.
연구자: 뭐 했어요?
오상훈: 저는 학원에서 애들 도와주고 보조해 주는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중략)
연구자: 그걸 3개월 한 거예요?
오상훈: 네네, 아, 4개월 했어요, 4개월.
(중략)
연구자: 그거 하면 얼마씩 받아요?
오상훈: 그때는 시급 5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참여자들 중에는 다른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었다. 이 참여자는 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른 직후부터 4년간 연속으로 자신이 고등학생 때 다녔던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다고 했다.

연구자: 아르바이트 하고 있나요?
김다예: 지금은 안 하구요, 4년 동안은 계속 했었어요.
연구자: 뭐 했었어요?
김다예: 저는 원래 수학 강사여가지구, 학원에서 4년 동안 계속 강의하구...
(중략)
연구자: 얼마 정도를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김다예: 한 달에, 일주일에 세 번 가면은, 75만 원, 80만 원 정도 받구요. (중략)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연구자: 와~ 학생치고는 굉장히 큰돈을 벌었네요. 다 어디다 썼어요?
김다예: (웃으며) 다 모아 놨는데...

이 정도의 경제력이면 대학교 등록금을 스스로 조달할 정도는 안 돼도 생계를 독립적으로 꾸려 나갈 정도는 된다. 그런데 이 참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 참여자는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경제적 독립을 재촉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

활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로 돌아섰다고 했다.

김다예: 저희 엄마나 아빠는 빨리 졸업을 하고 빨리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진학한다든지, 사실 임용고시를 포기한 이유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엄마가 "너는 좀 한 번에 (임용고시에) 붙었으면 좋겠다. 해도 재수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길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한 직장에서 4년을 연속적으로 일했고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을 보장 받았다는 점에서 이 참여자의 경제력은 꽤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조차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라 학업생활이 이 정도로 휘청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참여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참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 이 참여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다니다가 뒤늦게 상담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도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경제적 독립을 재촉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 참여자도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을 뒤로 미루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소이: 상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니까 아동상담 쪽으로. (중략) 그런데 아빠가 이제 퇴직을 하실 때가 거의 다 되셔서, (중략) "이제 퇴직을 하는데 이제는 일을 하는 것보다 귀농 쪽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중략) (제가) "그러면은 우리 대학교까지만 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아빠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대학원도 가야 되고, 임용을 보려면 또 임용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자: 아, 상담 교사?

진소이: 네.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지금 취업을 빨리 해서, 나중에 제가 돈을 벌어서, 그때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는 걸로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도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학업생활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부모의 뜻에 맞춰서 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부모의 뜻에 따라 이 정도로 좌우되는 것을 보면, 이보다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온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만 의존한 상태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고등학생 시절에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부모의 뜻에 따라 어느 정도로 좌우되었을지 짐작할 수 있다.

한 참여자는 처음 대학교 입학시험을 봤을 때 재수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부모가 반대해서 재수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이 참여자는 재수가 안 되면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라도 입학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부모는 그것조차 반대했다고 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서울에 있는 전문대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세영: 제가 원래 재수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연구자: 왜요?
이세영: 그때 저희 오빠가 재수를 했는데 성과가 좋질 않았어요.
연구자: 몇 살 차인데요?
이세영: 한 살 차이요.
연구자: 바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세영: 에에에, 그니까 저랑 수능도 같이 봤잖아요. 근데 오빠가 또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래갖고 제가 "그럼 지방에 4년제를 가겠다." 이랬는데도, (부모님이) "그거보다는 차라리 서울에서 다니는 게 낫다." 그래서 서울로 오고 그렇게 된 건데,

그런데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은 단순히 자녀의 학업생활에 경제적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생활에 대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만 학업생활을 할 수 있는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학업생활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는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상황과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매개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생활에 관여하고 있는 매개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에서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현장적 조건 혹은 내부적 맥락' 인 소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현상에 작용한 '환경적 조건 혹은 외부적 맥락' 인 대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대상황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하였고, 대학교에 입학해서는 교사 임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은 이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대상황은 크게 사회 인식과 노동 환경, 이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⑴ 사회 인식

앞서 1. 소상황 ⑴ 입시 성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지 않은 데에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교 이름값에 대한 집착이 큰 몫을 차지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하는 현상에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작용했음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학벌주의였다.

또한 1. 소상황 ⑴ 입시 성적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넉넉한 성적을 받지 못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가 아니면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학과에 입학할 방법이 없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다른 어떤 곳에도 입학할 수 없었던 이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는 입학할 수 있었을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던 현상에도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가정교육 무시였다.

이제부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 중에서 사회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학벌주의부터 살펴보자.

가. 학벌주의: “지방대는 다 무시하니까”

참여자 22명 중에는 다른 대학교에 다니다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편입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4명 있었다. 그런데 편입을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들어온 참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편입하기 전에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에 다녔다는 점이었다. 이 참여자들은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효정: 서울에서는 지방대는 다 무시하니까, 좀, 그런 자존심도 상한 게 있었고, ○○대라 그러면, "쓥, 들어 본 적 없는데? 거기가 어디 있는 데야? 뭐 하는 데야?" 이러고, (중략) 서울에서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을 사귀어도 학교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어 가지고,

연구자: 경영학부랑 가정교육은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어요? 중간에?

황유선: ...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냄) 일단 학벌에 자신이 없었고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말을 제가 하기가 약간 부끄럽게 항상 학교를 다녔었고,

그런데 이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아니었다. 이 참여자들 중 두 명은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이름값이 높은 대학교로 편입을 할 생각을 가지고 그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했다.

연구자: 예전에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이언희: 원래는 유아교육과.

연구자: 어디?

이언희: ○○대요. 근데 (거기는) 갈 때부터 반수를 하거나 그렇게 학교를 갈아탈 마음이 있었지, 그때도 서울에 오기 위해서 거기는 간 곳이었고,

연구자: 학생이 일반 편입이라고 돼 있더라구요.
김효정: 네헤~
연구자: 어디 다녔는지 물어봐도 돼요?
김효정: ○○대 갔었어요. 그런데 과도 별로 흥미가 없었고, 재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학교가, 씁, 처음부터 제가 편입을 생각하고 들어간 거였어요. '수능에서는 도저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한 사람이 가진 대학교의 이름값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학벌주의가 아직 만연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학벌이 필요할까? 많은 참여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한빛대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고 있었다.

연구자: 지금 다니는 학교가 자랑스러운가?
유미나: 어... 나름 그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헤~ 그래도 '인 서울(in Seoul)에 있는 학교다.' 여기에서 '나름 나쁘진 않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웃음)

연구자: 가정교육과에 합격했을 때 주변의 분위기나 반응은 어땠어요?
한소윤: 아, 그때! 한빛대, 학교만 보면 집에서도 가깝고, 어쨌든 서울에 있고 해서 "수고했다." 그랬는데,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항상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같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고 해도 이름값이 한빛대보다 높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가 없다고 했다.

연구자: 학교를 다녀 보니까 한빛대학교가 자랑스러워요?
정선애: 히... 자랑스럽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대나 이런 친구들, ○○대나, 만나면, 그렇게 자랑... 아... 씁, 자랑, 스럽, 다?

그런데 학벌주의 사회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학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학교 이름값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생들이 실제로 이름값이 높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은 학벌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까지 포기할 정도로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하게 된 것일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학생들의 부모들 대부분은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자녀가 어떤 학과에 더 가고 싶어 하는지가 아니라 어느 대학교의 이름값이 더 높은지에 관심이 많았다.

유재현: 원래 여기도 쓰고, 특수교육 쪽도 관심이 있어서 초등 특수교육을 또 썼었어요.
연구자: 어느 대학?
유재현: ○○대. 그때는 초등 특수교육이라는 과가 되게 희소성이 있어서 서울에는 없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두 개를 써서 두 개 다 붙었는데 여기를 오게 됐어요.
연구자: 왜요?
유재현: 제 마음은 이제 초등 특수교육 쪽으로 많이 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쪼끔 더 생각을 해 보자고 해서 여기 등록하기 몇 시간 전까지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학벌주의라는 사회 인식이 대상황으로 작용할 때에는 부모의 영향이라는 매개상황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앞서 1. 소상

황 (1) 입시 성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교 이름값과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모두 챙길 수 있을 정도의 성적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포기한 현상에 작용한 사회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그 어떤 다른 곳도 아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현상에 작용한 사회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가정교육 무시: "거기서 뭐 배워? 설거지 배워?"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1) 학과 이미지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은 거의 없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정교육과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는 가정교육과에 대하여 아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적었다.

유미나: 가정교육과 하면 유아교육과랑 헷갈려 하더라구요. 제가 "사범대 가정교육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정교육과가 아이들 가르치고 이런 과예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중략) 친구들 중에도 사실 이과 쪽 애들은... (중략) "어? 가정교육과? 가정교육과가 뭐야, 미나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연구자: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자신이 자랑스러운가?

장세희: 그거...는요, 아... 모르겠어요. 가정교육과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만 많은 것이 아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이후 가정교육과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힘들거나 뭐 이런 점이 있나요?
양아정: 사람들의 인식? 보통...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왜 거기로 갔어? 국, 영, 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식이 처음엔 힘들었어요. (중략) 진짜 경비실 아저씨까지도 "학생, 과가 어디야?" 이러면, "가정교육과요." 이러면, "가정교육과가 뭐야?" 이러고
(중략)
연구자: 이성 친구는 우리 과가 아니잖아요. 우리 전공에 대해서 얘기 나눠 봤어요?
양아정: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네. 그니까 딱 다르잖아요, 걔는 공대고, 저희가 아무리 이과 과목이라 해도 화학식을 쓰고 이런 분야는 아니니까. 처음에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중략) 예를 들어서 "가정교육과 뭐 바느질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연구자: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힘든 점은 없어요?
이경진: 가정교육과로서 힘든 점은... 힘들다기보다는 주변에서 맨날 "바느질 하냐?" 약간 무시하는 듯한? "너네 뭐 배워?" 이런. 애들이 뭐만 하면 "바느질해? 음식 만들어?" 이러는.

오근화: 옛날에 <Freshman Seminar> 수업을 듣는데 (강의하시는 분이) 법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정교육과라고 했더니, "거기서 뭐 배워? 설거지 배워?" 그러시는 거예요.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⑴ 문과 vs. 이과에서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문과 계열 수업과 이과 계열 수업을 모두 섭렵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를 무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가정교육과에 와서는 본인이 문과 출신이면 이과 계열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고, 본인이 이과 출신이면 문과 계열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고 아우성을 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정교육과를 무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인이 가정교육과의 수업 내용을 정말 잘 따라갈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가정교육과를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정교육과를 무시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은 가정교육과의 수업 내용을 따라갈 능력도 없으면서 왜 가정교육과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것은 가정교육과의 수업 내용이 만만하고 쉬워서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더 나아가 가정교육과의 수업 내용인 가정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정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사실 가정교육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전공하지 않은 다른 학문에 대해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다른 학문에 대해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는다.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 무지가 탄로 나는 것 혹은 결례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도 함부로 말을 꺼내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이것은 가정교육은 몰라도 창피할 것이 없는 학문, 대충만 알아도 아는 척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교육은 가정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만만한 학문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가정교육과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더 나아가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부 참여자들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홍아람: (사람들이) 가정교육과를 잘 모르잖아요, 잘 안 알려진 과니까. (제가) "가정교육과예요." 하면 "유치원 선생님 되겠네요."

이러면 진짜 저 완전 미쳐가지고... (씩씩거림)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백수아: 학교 선생님도 그러시고, “거기 가서 뭐 배우냐?”
연구자: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일 텐데 가정 과목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런 말씀 하시지?
백수아: 수학 선생님이셔서 그랬나?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선생님 말고도 친척들이나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가기 전엔 모르니까 그냥 “가 봐야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말 들으면 쫌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중략)
백수아: 처음에요, 대학교 딱 들어왔는데 다른 과에서 우리 과 뭐 배우냐고, 저희 과 애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혼자 탔는데, 다른 과 무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중략) “쳇, 어이없어.” 이러면서 애들끼리 그런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회 인식이 없었더라면 이 학생들은 그렇게도 원하던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을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즉,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회 인식 덕분에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었고, 또 그 덕분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다른 어떤 곳에도 입학할 수 없었던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을 가지고도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는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다른 어떤 곳도 아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현상에는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

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 중에서 사회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 중에서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⑵ 노동 환경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⑵ 임용 희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전공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전공을 기웃거리는 데에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 임용에 대한 집착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교사 임용에 대한 집착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이토록 교사 임용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에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 환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취약한 노동 환경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바로 고용 불안정성 증가와 휴식 시간 부족이었다.

이제부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 중에서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대해 살펴보자.

가. 고용 불안정성 증가: “일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최근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 쏠림 현상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연합뉴스, 2008; 세계일보, 2015; 아주경제, 2016). 이 현상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공무원을 하겠다고 몰려드는 현상이다. 참여자들 역시 주변으로부터 공무원을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김다예: 저희 엄마나 아빠나 되게 “너는 무조건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하시니까, 그거의 영향으로 당연히 저는 ‘아, 나는 그럼 사범대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정선애: 엄마는 선생님 되는 거 좋아하셨고, (중략) 삼촌들, 친척들은 “공무원 시험 안 보냐?” 이렇게는 물어봤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 공무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그렇게 인기가 높은 직업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IMF 외환위기와 공무원 쏠림 현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부와 기업의 주도하에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편에 속하는 직업인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1997년에 우리 사회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주도해 온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 대외 채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거품이라는 점이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외 채무액은 외환보유액의 5배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자력으로 대외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이때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였고,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수많은 기업들은 도산하였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했다.

이처럼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도산할 수 있고,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사회

에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커져 갔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공무원 쏠림 현상 같은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IMF 외환위기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강제로 해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런 대량 해고 사태를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노동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자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음을 감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때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강제로 해고하면서 법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 받고 있는 노동자를 강제로 해고하는 것이 얼마나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때부터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에 부담이 없도록 대비를 했다. 되도록 국내에서 고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가 낮은 국가에서 저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였으며, 국내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함에 있어 법적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자 국내에는 높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가 희귀해졌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지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만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사회가 되었다.

이처럼 기업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여 놓자 우리 사회에는 정부로부터 직접 고용 안정성을 보장 받으려는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너도나도 공무원을 하겠다고 몰려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쏠림 현상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서 나온 참여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주변으로부터 공무원을 하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니었다. 교사를 하라

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교사는 공무원만큼이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은 1990년을 전후하여 출생하였다. 이 학생들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이 학생들의 부모 세대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앞서 살펴본 국내의 노동 환경의 변화, 즉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에 대해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에 대해 수없이 겪고 들었을 세대이다. 따라서 참여자들과 비슷한 또래를 자녀로 둔 부모 세대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에 집착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게다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사는 공무원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자구책이 되어 주고 있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3) 취업 불리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사원을 채용할 때 언제든 교사를 하겠다고 돌아갈 수 있는 사범대 학생들을 꺼린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업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근거가 없지 않았다.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참여자 한 명과 이미 취업을 한 참여자 한 명은 취업을 하더라도 혹은 심지어 취업을 했더라도 교사로 돌아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었다.

윤하나: 만약에 나중에 일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다시 임용을 준비하,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거 같단 생각도 들었고,

이언희: 또 모르죠.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또 모르죠.

이처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교사 자격증 더 나아가 교사 임용은, 참여자들과 비슷한 또래를 자녀로 둔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참여자 본인들에게도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자구책

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래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과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교사 자격증 더 나아가 교사 임용에 집착했던 것이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교사를 하라고 시킬 때 교사가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한 참여자는 많았어도, 교사가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교사를 하고 싶었다고 말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교사의 고용 안정성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참여자는 앞서 제시한 두 참여자가 전부였고, 이 참여자들 역시 교사 자격증의 부수적인 용도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지, 그래서 꼭 교사를 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에 우리 사회의 고용 불안정성 증가라는 노동 환경이 대상황으로 작용할 때에는 주변의 영향이라는 매개상황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에 작용한 노동 환경 한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현상에 작용한 노동 환경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한다.

나. 휴식 시간 부족: “회사는 방학도 없고”

한 참여자의 어머니는 이 참여자가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앞서 가.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서 다룬 내용처럼 교사는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교사에게는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이었다.

연구자: (엄마는) 교사를 하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셨어요?
유미나: 아무래도 안정되고 방학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좋게 보는 사람은 이 참여자의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친구들 중에 이미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 참여자가 졸업 후 교사가 되면 방학이 있어서 좋겠다고 한다고 했다.

장세희: 애들이 오히려 절 부러워하는 게, 회사는 방학도 없고, 매일 똑같은 삶, 끝없는 "오, 이런 걸 60년 동안 해야 돼." 애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지는 것을 이토록 좋게 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이래 회원국들 중에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OECD 회원국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의 평균은 1700시간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최근까지도 2000시간을 넘었다. 더욱이 북유럽 국가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1500시간대 이하에 머무르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매우 긴 편이다(통계청, 2020). 그런데 이처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매년 3개월 정도의 방학이 보장되는 교사는 꿈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교사에게 주어지는 방학은 일반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휴직 제도에서는 찾기 힘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 휴직은 직장 내의 업무가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노동자만 따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제도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휴직에 들어가면 휴직한 사람이 맡았던 업무를 동료들 중 누군가가 대신 맡아야 한다. 휴직을 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아도 직장 내의 다른 동료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휴직을 연속적으로

오래 하는 사람은 복직했을 때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다른 동료들에 비해 뒤처질 각오를 해야 한다. 따라서 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휴직 제도를 이용할 때에는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방학은 다르다. 이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모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만으로도 교사라는 직업을 좋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의 길이만으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교사들이 방학이라고 해서 그 시간을 모두 휴식에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교사에게 연간 3개월 정도의 방학이 주어지는 것만으로도 교사라는 직업을 좋게 보는 것뿐이다.

참여자들 중에도 다른 직업은 하고 싶어도 너무 부담이 되어 못하겠다는 학생이 있었다. 이 참여자는 교사는 그래도 다른 직업들보다는 “여유 시간이 있고 스트레스 덜 받는” 직업이라서 하려고 한다고 했다.

> 정선애: 입학 전에는 그런 데, 대기업 가고 싶었는데, 씁, 그게 너무 힘들 거 같더라고요. 동아리 선배들 얘기 들으면, 맨날 (아침) 일곱 시에 나와서 (밤) 열두 시 넘어서 들어온다고, 삼성 다니는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고3 때 이후로 몸 관련된 거는 쫌 많이 예민해지더라고요.[34] 그니까 생각 같은 거나. 그래서 운동도 일부러 쫌 많이 했었고, 대학교 와서는. 씁,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데는 안 가고 싶다? 그런 데보다는 여유 시간이 있고 스트레스 덜 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34) 여기서 말하는 “고3 때”란 이 참여자가 아파서 수술을 받았던 때를 말한다.

연구자: 그거에 현실적인 대안이 생물 선생님?
정선애: 네. 선생님...

그러나 실제로 참여자들 중에서 이런 이유로 교사를 하고 싶다고 말한 참여자는 이 학생밖에 없었다. 오히려 참여자들 중에서는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전부 교사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교사 임용에 집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사 임용에 집착하는 현상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부족이라는 노동 환경이 대상황으로 작용할 때에도 이러한 대상황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 부족이라는 노동 환경 역시 주변의 영향이라는 매개상황의 개입을 통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 중에서 노동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대상황을 모두 살펴보았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환경적 조건 혹은 외부적 맥락' 인 대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해석적 메타-소통 상황' 인 매개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매개상황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소상황과 대상황을 매개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매개상황은 소상황과 대상황 사이에서 여러 상황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위 주체가 어떤 매개상황을 접하느냐에 따라 같은 소상황과 대상황에서도 행위 주체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매개상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했던 매개상황은 부모의 영향, 교사의 영향, 교수의 영향, 이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1) 부모의 영향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부모의 영향을 특징별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다. 바로 무관심, 요구, 재촉이었다. 이제부터 부모의 영향을 특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무관심: "엄마는 하루하루 행복한 직업은 없다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부터 심장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의사는 정신적인 문제로 진단을 내리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까지 숨긴 채 이 참여자에게 학교를 쉬는 방법을 권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 참여자의 아버지와 아버지 쪽 친척 어른들이 이 참여자가 학교에 가지 않고 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진소이: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자꾸 수업 시간에 위축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심장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심장 판막에 이탈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중략) 근데 저 보고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이래서 정신과를 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근데 엄마는 그 사실을 좀 믿기가 싫으신 거예요. (중략) “정신과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학교 다니던 걸 쉬고 안정을 되찾은 다음에 가자.’ 이렇게 됐어요. 그니까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 친구가, 반에 같은 친구가 자살까지 하고 이런 쫌, 고등학교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그런 충격적인 걸 너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중략) 제가 마음도 약해져 있는 상태에 친구까지 그렇게 되니까 너무 충격이 컸던 거예요.

(중략)

진소이: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외에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애가 어디 공공장소에 가면 힘들어한다. 버스도 못 탄다.”(는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중략) 제가 동생도 있는데, 남동생한테도 제가 (정신적으로) 아픈 걸 얘길 안 했어요, 엄마가.

(중략)

진소이: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게 됐는데, (중략) 아빠를 설득을 하는데, 아빠가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중략) 아버지 친가 쪽에서는 저를 대안학교에 보내라고, 그니까 너무 힘들어서 쉬는데 다시 학교를 가라고 이렇게 강요하신, 전화 와서 “그래도 학교 쉬면 안 된다고, 고등학생이. 학교는 계속 다녀야 된다.” 그니까 저를 문제아 취급을 하셔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참여자의 부모에게는 이 참여자의 내면보다 남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다. 그런데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이런 부모가 또 있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⑴ 학과 이미지에서는 참여자들 중에 가정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학생이 한 명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의 부모는 가정교사가 비전도 없고 인정도 못 받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이 학생이

가정 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런 부모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었다.

한소윤: 엄마, 아빠는 (중략) “어떡하니. 가정 선생님도 위태위태한데 그거 진짜 잘할 수 있겠니?”부터 해가지고 “가정 선생님이 비전이 있냐? 학교에서 인정을 해 주냐?” 막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다른 거보다도.(울먹임) 처음에는 ‘아, 진짜 그런가?’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씁, 죄송스럽지만, 좀 듣기가... 그런 말씀은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안정성 있고, 방학 있고, 이런 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이 좋고, 애들 가르치는 게 재밌고, 내가 이거 할 때 너무 즐겁고, 이래서 나는, 공부는 비록 좀 힘들고 맞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선택한 건데... 이거를 충분히 얘기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는 다른 쪽으로 계속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근데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아예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내가 그냥 더 속 편하겠다.’ 이런 헤~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좀 있어요.

이 학생의 부모에게는 이 학생의 내면이 아니라 비전이나 사회적 인정이 중요했다. 그런데 참여자들 중에는 부모의 이 같은 태도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내면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 참여자는 “맨날맨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어머니는 이 참여자에게 그런 직업은 없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이 참여자는 삶의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황유선: 항상 엄마 하는 말씀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서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일반 회사 들어가면 맨날 시키는 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엄마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제가 맨날맨날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사실 막, 엄청...(한참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열심히 사는 거 같지가 않아서...(울먹거림)

연구자: (작은 소리로) 왜, 어떤 면에서?

황유선: 왜 눈물이 나오... 흐흐 그냥 항상, 맨날 보통으로 살아온 거 같아가지구.

반면에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이 참여자들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윤하나: 엄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엄마도... 너무 자유로워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시는데, 강요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권영오: 저희 가족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식이죠. 그니까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네 삶을 살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오상훈: 옛날부터 제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이라서... 그니까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놔두시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말씀 안 하세요. (중략) 뭐 "공부해라." 이런 것도...

그런데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다고 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학업생활을 하는지, 즉 자녀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앞서 2. 대상황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임용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과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학

생들이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학과에 입학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는 똑같은 대상황에서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업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아 줄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즉, 이 학생들에게는 대상황의 작용으로부터 이 학생들의 내면을 보호해 줄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무관심은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서 이탈하는 데에 중요한 매개상황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작용은 작위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작용이었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생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내면에만 관심이 없을 뿐 자녀의 학업생활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부모들이 많았다. 이제부터는 이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생활 중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요구: "엄마가 선생님이 꿈이셔가지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학업생활을 적극적으로 통제해 온 부모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초등학생일 때부터, 또 다른 참여자는 고등학생일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았던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심진용: 제가 초등학교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앨범도 없고. 왜냐면 졸업식 2주 전에 전학을 갔거든요. 어머니께서 "좋은 중학교 가야 된다." 퓹~ 그래갖고, 초등학교를 (중략) 총 네 번 정도 바꾼 거죠.

양아정: 엄마가 남자 친구도 못 사귀게 했거든요. 맨날 친구도 통제하고 핸드폰도 검사하고. 딴 친구들이 "야, 너희 어머니 너무 심하

신 거 같애.” 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어렸을 때에만 부모의 통제를 받으면서 학업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면담을 할 당시에도 부모의 통제를 받으며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어머니가 수학교육으로 복수 전공을 하라고 해서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교육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했다고 했다. 그러나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2) 복전 vs. 단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참여자는 문과 출신인 자신이 수학교육으로 복수 전공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어머니는 이 참여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어머니와 1년을 싸웠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결국 수학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학교육으로 복수 전공을 계속하면서 취업 준비를 위해 연계 전공을 추가로 하고 있었다.

김다예: 처음엔 엄마랑 많이 부딪혔어요. 1년 정도를 엄청 싸웠어요, 제가.

연구자: 몇 학년 때?

김다예: 2학년 때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엄마가 1학년 때 “복수 전공 그러면 수학을 해라.” 제가 수학도 복수 전공을 하거든요, 복수가 두 갠데. (중략) (제가) 이건 아니다 해서 가정으로 (교사 임용) 시험을 봐야지 했는데, (중략) 엄마가 불안했던 거죠. “그냥 너 무조건 수학을 해야 된다.” 나는 “내가 수학이랑 안 맞는다. 공부를 못 하겠다.” 이래서 엄청 한 1년을 싸웠어요.

또 다른 참여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기 전부터 교사를 하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3) 교사 자격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안 어른들이 사범대를 좋아해서 가

정교육과에 입학했고, 이어지는 (4) 전과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반대해서 전과도 못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부모에게는 교사가 되겠다고 거짓말을 해 놓고 뒤에서 혼자 몰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홍아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저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연구자: 어? 왜?
홍아람: 옛날부터도 그냥... 선생님들이랑 되게 재밌게 지내기는 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연구자: 어떤 면이?
홍아람: 그냥 맨날 애들한테 시달리고...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보여서... 그리고 제가 애들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히히 (중략) 진짜 싫어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교사를 하다가는... 뭐 시켜 주지도 않겠지만, 된다면... 내가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략)
연구자: (가정교육과에) 왔는데 어른들의 소원대로 교사가 될 생각은 없고...
홍아람: 네. 헤헤 겉으로는 “아, 네. 교사 될게요.” 이러고 혼자 열심히 복수 전공 하고 있고...
연구자: 집에서 지금 경영학 복수 전공 하는 거 모르세요?
홍아람: 알긴 아는데, 제가 임용 고사를 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토록 자녀의 학업생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체로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는 대학교 이름값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사 임용이었다.

연구자: 왜 인 경기(in Gyeong-gi) 아니고 인 서울(in-Seoul)이었어요? 집이 경기도인데?

양아정: 부모님이 “인 서울(in-Seoul) 해라. 인 서울(in-Seoul) 해라.”
연구자: 과는 상관없고?
양아정: 네, “과는 사범대면 좋겠지.”

그렇다면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자들에게 부모의 최종 학력을 꼼꼼히 물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특이하게도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모들의 학력 이야기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는 찾기가 힘들었다. 즉, 참여자들의 부모들의 학력은 거의 대부분 고졸이었다.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들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졸업한 대학교는 대부분 일반 대학교가 아닌 직업을 위한 특수 대학교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아주 가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들도 있었지만, 이 부모들 중에서 이 부모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는 없었다.

연구자: 아버지는 그러면 고졸이신 거예요?
양아정: 네. 아버님은
연구자: 엄마도
양아정: 네.

오근화: 아버지는... 고졸인 걸로 알고 있고, 어머니가 대학교...
연구자: 전공이 뭐예요?
오근화: 철학과라고 하셨어요.
(중략)
연구자: 엄마는 어느 대학 나오신 거예요?
오근화: 어머니는 그냥 ○○대학교 나오셨어요.

연구자: 어머니는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정선애: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앞서 2. 대상황 ⑴ 사회 인식 가. 학벌주의에서는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편입생인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학력으로는 학벌주의 사회인 우리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물론 우리 사회가 아무리 학벌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학력과 관계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자녀의 뛰어난 학업 성과를 부모의 능력으로 봐 주는 문화가 강하다. 즉, 학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한 자녀를 둔 부모는 우리 사회에서 마치 부모 본인이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학력을 이용해서라도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자녀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요구했던 것이다.

둘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사 임용을 요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특이하게도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본인의 어렸을 적 꿈이 교사였던 부모들이 많았다.

유미나: 제가 (원서) 넣을 때 어머니께서 과를 찝어서 접수를 해 주신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과였거든요.
(중략)
연구자: 엄마가 선택해 주실 때는 왜 가정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유도 설명해 주셨나요?
유미나: 그런 건 아니었고, 일단 어머니는 ‘교사가 좋다.’라는 마음 가지셨던 거 같아요.
연구자: 어머니가 교사세요, 혹시?
유미나: 아니요, 어머니 간호사세요.(웃음) 사실 어머니 꿈이 교사셨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얘긴데, 둘째 이모가 교사가 되셨고 엄

마는 떨어지셨대요, 예전에.

백수아: 원래 엄마(가) 선생님이 꿈이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배워서
연구자: 엄마도 그럼 가정 선생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백수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연구자: 그러면 사대 나오셨어요?
백수아: 아니, 그니까 대학을 못 가셨는데, 어렸을 때 꿈이 그거셔서,

참여자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 어렸을 적부터 교사를 꿈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특별히 말한 바도 없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에게 따로 묻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 부모들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자녀를 통해 채우기 위해 자녀에게 교사 임용을 요구했다는 점은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요구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물론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본인이 교사를 해 본 후 자녀에게 교사를 하라고 권유하는 부모도 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부모 더 나아가 이 참여자의 집안 어른들에게 이 참여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 참여자의 부모와 집안 어른들은 “교육자 집안”이라는 명예를 위해 교사를 하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이 참여자를 동원하고 있었다.

연구자: 엄마가 교사셨는데 홍아람 학생 보고 “교사 해라.” 얘기 안 하세요?
홍아람: 엄청 많이 했어요. 가정교육과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저희 집안이 거의 다 교사세요. 외할아버지도 원래 교장선생님 하셨고, 고모도 다 교사 하고, 주변에서 “교사가 좋다.”, “내가 다녀 보니까 아는 거다.”, 다 “해라.” 이러고...
(중략)
연구자: 그럼 가정교육과 선택했고 합격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이 뜨거웠겠네요.

홍아람: 엄청 뜨거웠어요. “또 교사다!”, “나이스!”, “우리 진짜 교육자 집안이다.” 이런 거. “우린 교양 있는 집안이야!”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을 통해 부모 자신의 명예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에 유난히 집착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2. 대상황 (2) 노동 환경 나. 휴식 시간 부족에서는 한 참여자가 자신의 어머니가 교사는 “안정되고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교사를 권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자녀에게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을 요구하며 자녀의 학업생활에 개입해 온 많은 부모들 중에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같은 대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대학교 이름값이나 교사 임용을 요구했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이 자녀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도 사회 인식이나 노동 환경과 같은 대상황을 이유로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학업생활을 요구하였을까? 앞서 가. 무관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모들은 자녀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대상황의 영향으로부터 자녀의 내면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대상황을 자녀의 학업생활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은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노동 환경의 변화와 같은 대상황을 행위 주체인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끌어들이는 작용을 했던 것이고, 이러한 매개상황의 작용으로 인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더욱 더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의 작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매개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모의

영향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다. 재촉: “엄마, 아빠가 제때 안 하는 걸 싫어해가지구요”

앞서 1. 소상황 ⑵ 경제적 의존에서는 김다예, 진소이 이 두 참여자가 부모로부터 졸업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압박을 받고 취업 준비로 돌아선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녀를 재촉하는 부모는 이 참여자들의 부모들만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자녀를 재촉했던 부모도 있었다.

연구자: 학생이 2011학번이니까, 3학년이면 휴학 같은 건 한 번도 안 해 봤겠다.
기보미: 네.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요.
연구자: 왜요?
기보미: 그냥 집에서도, 빨리 졸업해서, 임용 붙고, 취업 빨리 하길 원해서.
연구자: 음... 왜?
기보미: 그냥, 헤~, 몰라요, 엄마, 아빠가 휴학 하고 시간 걸리고, 그니까 제때, 제때 뭘 안 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구요.
연구자: 그럼 재수하고 그랬을 때 되게 싫어하셨겠다.
기보미: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하겠다 하고, 오빠도 옆에서 “애가 공부하겠다는데, 왜 말리냐?”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설득해서 됐...

그런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⑵ 임용 희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가정 교사는 전국적으로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었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정 교사로 임용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기대하다가는 졸업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참여자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했을 때부터 가정 교사는 교사 선발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진로에 대한 걱정을 들었다고 했다.

연구자: 여기 붙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은 어땠어요?
기보미: 그냥, 뭐, “축하해.”
연구자: 부모님은?
기보미: “축하해.” 그냥, 딱히 그런 건 없었고요. 아무래도 가정교육과가 임용 티오(TO)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진로는 너 어떻게 할 거냐?” 면서. 일단 붙었으니까 축하는 해 줬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일은 처음부터 가정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한소윤도 겪고 있었다. 이 참여자는 가정 교사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자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가정 교사 임용 준비를 포기하도록 계속 종용했다고 했다.

한소윤: 부모님은 (중략) 1학년 때 계속 임용 티오(TO)를 물어보셨어요. 걱정이 되셨나 봐요, 뉴스를 접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임용 티오(TO), 저 1학년 때는 좀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0학년도 때.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제, 서울에는 거의 안 뽑고 인원이 줄어 가니까 그런 거를 부모님이 저보다 더 빨리 찾아서 저한테 계속 알려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가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게 낫지 않냐? 네가 만약에 정말 그 임용에 뜻이 있으면 파고들어서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도 안 해 주고 뽑지도 않는데 너무 바늘구멍인데...” 그래서 좀 만류... 만류? “다른 쪽으로 네가 눈을 켜 봐라.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넓은 쪽도 있다.” 하면서...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이토록 재촉한 것은 혹시 이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두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부모들이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유재현: 아버지는 “빨리 졸업하고, 빨리 알아서 나가라.” 이건데.
연구자: 아버지는 어디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재현: 모르겠어요. 빨리 자리를 잡으라고.
연구자: 왜? 아버지가 힘드신가?
유재현: 씁, 뭐라고 할까? 요즘 취업이 힘드니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연구자: 부모님은 장세희 학생이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아쉬워하세요?
장세희: 만족하시는데, 임용이 한 번에 붙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에 붙길 바라셔서, 씁, 좀 부담스럽죠.
연구자: 한 번이라면 언제? 졸업하자마자 동시에?
장세희: 네에...
(중략)
연구자: 부모님은 지원을 해 주실 만큼의 경제적 형편은 가능하세요?
장세희: 네. 왜냐면 등록금보다는 적게 들지 않을까요? 호호
연구자: 부모님이 한 번에 붙기를 원하신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거는 아니에요?
장세희: 그건 아니고, 제가 대학을 늦게 돼갖고, 주변 친구들은 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늦춰지는 거에 대한 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부모들은 왜 자녀를 재촉했던 것일까? 앞서 1. 소상황 ⑵ 경제적 의존에서는 진소이가 아버지로부터 퇴직 후 “귀농”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뒤로 미루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귀농”을 하고 싶어 하는 부모는 이 참여자의 부모만이 아니었다.

김다예: 엄마랑 아빠는 되게 힘드셨던 거 같아요, 저희 뒷바라지 하시는 게. 엄마, 아빠 꿈이 귀농하시는 거여가지구,(웃음) 저희가 다 취업을 하면은, 아빠 원래 고향이 경기도 ○○이신데 그쪽으로

가신다구, 그런 게 있어서 빨리 취업을 (웃으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길 많이 하세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는 지금 당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의 학업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모가 많았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을 재촉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부모의 재촉에 물러서지 않고 부모에게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피력해 봤다면 어땠을까?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했던 양아정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봤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했다.

양아정: 아빠는 '나 이제 등록금 내 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너가) 임용 붙고 하면 너 세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걸 섣불리 "아빠, 나 (임용 준비를) 4년 할 수도 있어. 선배님 보면 다, 이번에 붙은 선배님들도 (임용 준비를) 3, 4년 하시고 아직도 이러는데." 그걸 말하면 아빠가 "아휴, 그건 똑바로 못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부담이 큰 거예요.

앞서 1. 소상황 (2) 경제적 의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이처럼 재촉을 받으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전과도 하지 않고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던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들까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다. 앞서 나. 요구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했던 두 가지 사항 중

에 교사 임용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학생들은 부모의 재촉으로 인해 부모가 요구하는 교사 임용을 포기하고 있었다. 즉, 부모의 재촉이라는 매개상황은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과 상충되고 있었다. 그런데 상충되는 두 가지 매개상황 사이에서 우열을 결정해 준 것은 이 학생들의 경제적 의존이라는 소상황이었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까지 뒤로 한 채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업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다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는 상태로 학업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 독립을 재촉하자 부모의 요구까지 뒤로 한 채 경제적 독립을 위한 방안부터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매개상황 중 하나인 부모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현상에 작용한 또 다른 매개상황인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⑵ 교사의 영향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했던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을 특징별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다. 그것은 무관심, 유도, 편법이었다. 이제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을 특징별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무관심: “내적인 면을 상담해 주진 않아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만났던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교사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랐다고 했다. 그러나 이 참여자가 만났던 고등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심진용: 솔직히 말하면, 청소년 때 저를 지도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연구자: 어떤 면의 지도를 말하는 거죠?
심진용: 내면을 알아줬으면 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내면을 알아줬으면. 근데 항상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중략)
심진용: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긴 하는데, 내적인 면을 상담해 주진 않아요. 항상 "공부 어느 게 어렵니? 너의 진로는 뭐니?" 진로를 물어보면 뭐 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얘기부터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이야기한 참여자는 또 있었다. 앞서 (1) 부모의 영향 가. 무관심에서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내면 상태가 좋지 않았었던 한 참여자가 휴학을 하려고 했던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장이 자신의 휴학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 참여자는 휴학 대신 자퇴를 했다고 했다.

진소이: 친구가 죽고 나서, 엄마가 "아, 휴학을 하자." 하고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화를 많이 내셨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저희 담임 선생님께도 화를 내고. "애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애가 이렇게 죽게 되고 또 다른 학생이 휴학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엄마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퇴 쪽으로 결심을 하자." 이렇게 됐어요.

이 교장은 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하거나 휴학을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교장에게는 학교 학생들의 내면보다 학교의 명예가 더 중요했다.

물론 모든 참여자들이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처럼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교사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이 만났던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은 많았지만, 이 학생들 중에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때 그 교사들 중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말렸었다고 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이 참여자들이 만난 고등학교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업생활을 하는지, 즉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앞서 (1) 부모의 영향 가. 무관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업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아 줄 부모가 없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업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아 줄 교사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의 무관심 역시 이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서 이탈하는 데에 또 하나의 매개상황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작용 역시 작위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작용이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교사들이 있다.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도 많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주변에는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만 있었던 것일까? 앞서 1. 소상황 (2) 경제적 의존에서는 이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여 학업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교사들 역시 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모의 뜻을 살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⑴ 부모의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이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생활을 통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도 있었다. 바로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임용이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의 주변에는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교사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이 교사들은 이 학생들의 부모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 학생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 매개상황으로 작용했던 교사의 무관심은 또 다른 매개상황이었던 부모의 영향에 의해 무력화된 매개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서 ⑴ 부모의 영향 가. 무관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부모들 중에는 자녀의 학업생활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러면 왜 이런 학생들의 주변에도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만 있었던 것일까? 이 학생들은 부모가 관여하지 않아도 스스로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정도로 이미 대상황의 작용에 강하게 휘말리고 있었던 학생들이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이런 학생일지라도 어떻게든 본인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려는 교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 주변에는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때 매개상황으로 작용했던 교사의 무관심은 대상황과 행위 주체인 학생들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무력화된 매개상황이었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아예 관심이 없었을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업생활에는 엄청난 관심을 보인 교사들이 있었다. 이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만났던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 중 어디에 관심이 많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유도: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만났던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학생들의 대입 진학 성과에 집착했던 교사들이 많았다. 한 참여자는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교장이 학생들에게 대놓고 대입 진학 성과를 요구했다고 했다.

심진용: 저희 학교 특성이 좀 그랬거든요? 강했거든요?
연구자: 어떤 학교인데요?
심진용: 그냥 인문계인데 ○○에서 좀 유명한 인문계라서... 그 구에서는 제일 탑이었거든요. 서울대도 저번에 다섯 명 가고... (중략) 그 고등학교 교장님이 항상 강단에 서시면 “○○고등학교는 무조건 이 혈통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 참여자가 말한 교장이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대입 진학 성과는 정확히 말해 대학교 이름값이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했던 교사를 만난 학생은 이 참여자만이 아니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1) 학과 이미지에서는 고3 때 담임이 대학교 입학 원서를 쓰는 날 가정교육과에 지원하라고 해서 가정교육과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채로 가정교육과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한 참여자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참여자에게는 이미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다. 국어교육과였다. 게다가 이 참여자는 문과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담임이 가정교육과로 교차 지원을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가정교육과에 지원했다고 했다.

연구자: 가정교육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경진: (중략) 성적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게 이과잖아요, 그래서 “이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면 더 붙을 확

률이 높을 거다. 네 성적에 국어교육과를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정교육과 넣게 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사실 합격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학과를 바꾸는 것 이외에 대학교 이름값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담임은 가고 싶어 하는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는 이 학생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낮추는 방법 대신 학과를 바꾸는 방법을 권하고 있다. 이 교사는 마치 합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과를 바꿔야 하는 것처럼 이 학생에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교사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는 이 학생을 알지도 못하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대학교에 입학할 때 이 참여자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참여자는 또 있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4) 전과 가능성에서 가정교육과에 대해 "전공은... 빼도 박도 못 하는. 허~ 그냥 거기 콱 박혀 버린 거? 어차피 따라다닐 이름표? 그런 거."라고 말했던 참여자이다. 이 참여자는 앞서 1. 학과 선택 (1) 학과 이미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정 과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고3 때 담임으로부터 가정교육과에 가서 원하는 과목으로 복수 전공을 한 후 그 과목의 교사를 하는 것이 성격에 맞을 거라는 말을 듣고 가정교육과에 지원했다고 했다.

정선애: 담임 선생님이 여기 과 가서 다른 거 선생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다른 거 교직 복수 해서 다른 (과목) 선생님 해라. 그게 네 성격에 맞을 거 같다." 그러셨어요.

얼핏 보면 이 교사는 학생들의 성격까지 파악해 가며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다른 과목의 교사가 되는 것이 이 학생의 성격에 맞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면 이 학생

에게 그 과목의 교사가 될 수 있는 학과를 추천해 주면 된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이 학생이 좋아하지도 않는 가정교육과를 추천해 주고 있다. 이 교사는 마치 이 학생의 성격까지 고려하면서 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학생에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교사는 이 학생의 성격을 무시한 채 이 학생을 다니고 싶지도 않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하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다른 학과가 아닌 가정교육과로 유도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2. 대상황 ⑴ 사회 인식 나. 가정교육 무시에서는 우리 사회에 가정교육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다른 어떤 곳보다 진입 문턱이 낮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교사 임용이 가능한 다른 학과에 가려고 했던 학생이 학과만 가정교육과로 바꾸면 대학교 이름값을 한빛대까지 높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담임들이 이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한빛대까지 높이기 위해 다른 학과에 갔어야 할 이 학생들을 가정교육과로 유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은 어떻게 해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에 이토록 집착하게 된 것일까? 앞서 ⑴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우리 사회에 자녀의 뛰어난 학업 성과를 부모의 능력으로 봐 주는 문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는 학생들의 뛰어난 학업 성과를 그 학생들을 맡았던 교사들의 능력으로 봐 주는 문화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이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교사들 중에는 학벌주의와 같은 대상황을 염두에 두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여 준 것이라고 말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2. 대상황 ⑴ 사회 인식 가. 학벌주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학벌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학벌주의와 같은 대상황을 이유로 학생들을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학과에 입학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가. 무관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교사들은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은 학벌주의라는 대상황을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사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은, 이 학생들에게 대학교 이름값을 요구했던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과도 일맥상통하였다. 따라서 두 매개상황이 동시에 학벌주의라는 대상황을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끌어들임으로써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하고 있는 학벌주의라는 대상황의 힘은 더욱 증폭되었고, 결국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고등학교 교사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의 작용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하였던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다. 편법: “공부하는 거를 학원에 가서 알았어요”

앞서 나. 유도에서는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에 집착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을까?

참여자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했었다는 학생들이 두 명 있었다. 이 참여자들은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했다.

김효정: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진짜 공부를 안 했거든요, 사실. 그때는 진

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 거의 놀러가듯이 했고, 음... 배움의 즐거움을 몰랐던 거 같아요. 학습의 즐거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다 따분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됐거든요. (울먹이며)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가짐으로 고등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서영: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삼수할 때, 그때 '아,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학원에 가서 알았어요. (재수 때와는) 다른 학원에 갔는데, 주변에 되게 잘하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 이런 것도 다르고. 선생님들도 좀 다르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아,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참여자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인 한빛대에 입학하였다. 심지어 최서영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조차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서는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이 입학할 학과만 바꿔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는 방법에는 문제가 없을까? 여기서는 앞서 나. 유도에서 살펴본, 고3 때 담임의 유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따로 두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던 두 참여자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학업생활을 하면서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참여자 이경진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국어교육으로는 복수 전공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영어통번역학전공의 교직과정에 복수 전공을 신청했지만 수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후 소비자학으로 연계 전공을 신청했지만 중간에 영양사를 하겠다고 본인이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영양으로 연계 전공을 바꿨

고, 그도 여의치 않자 휴학을 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 정선애는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⑷ 전과 가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전과를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학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교사 임용 때문에 걸려서 못 하고 있었고, 앞서 2. 학업 고충 ⑵ 복전 vs. 단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이처럼 단순히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과를 따로 두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후 학업생활을 하며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참여자들 중에는 고등학교 교사들로 인해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학업생활에서 벗어났다가 앞서 살펴본 두 참여자들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학업생활에서 혼란을 겪어 오고 있는 학생이 있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 참여자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수학과 과학은 좋아하고 잘했고 언어와 사회는 싫어하고 못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학생에게 고등학교 교사들은 문과를 추천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렇게 역으로 선택하면 다른 학생들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블루 오션”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 참여자는 이런 고등학교 교사들 때문에 자신의 이후 학업생활이 꼬여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자: 왜 우리 과로 왔어요?

홍아람: 저, 언어, 네. 제일 싫어했던 거기도 하고요, 못했기도 하고. 그냥 읽는 건 좋아하는데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연구자: 그렇게 언어 영역을 싫어하고 못하고 하면서 왜 문과로 갔어요?

홍아람: 어우,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저 원래 수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과학이랑. 근데, (중략)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니가 문과 가면 수학 잘하는 게 오히려 플러스가 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문과 애들은 수학이 싫어서 가는 애들이니까, 넌 수학을 좋아하니까 오히려 그게 취약한 부분

을 공략하는 블루 오션이 될 거다.” 했는데, 갔는데, 헤~

연구자: 주(主)를 잘하면서 부(副)도 잘하면 그게 블루 오션이 되는데, 주(主)는... 주(主)를 싫어하잖아, 지금.

홍아람: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가고 나서 엄청 후회했죠. 사회 같은 것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증오하던 과목이었는데 맨날 역사 배우고 이랬는데, 하면서 제가 ‘아,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이러면서... (중략) 그래서, 씁, 문과에 갔는데 오히려 점점 ‘부진아’스러워져서... 결국에 이렇게 됐어요.

이처럼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따로 있는 학생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학업생활에서 겪는 혼란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는 것과 학생들이 입학할 학과를 바꿔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는 것이 같은 의미일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결코 같을 수 없다. 즉, 학생들이 입학할 학과를 바꿔서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는 것은 학생들이 이후에 겪을 혼란을 외면한 채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만 챙기는 교사들이 사용하는 편법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⑴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 중에 자녀들의 학업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모들이 많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편법을 사용하는 이런 교사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앞서 ⑴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했던 것에 대학교 이름값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녀에게 요구했던 것에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나 자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원하는 능력은 자신의 자녀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능력이나 자신의 자녀가 자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가 입학할 대학교의 이름값을 높여 주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든 학생들이 입학할 학과를 바꿔서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든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을 높여 주기만 한다면 이 부모들에게 이 교사들은 능력이 있는 교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나. 유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교사들은 학생들의 대학교 이름값으로 교사 본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자녀의 대학교 이름값으로 부모 본인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이 학생들의 부모들의 욕구와 일치했다. 이로써 이 교사들은 이 부모들과 뜻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은 교사의 편법이라는 매개상황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이런 교사들을 믿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가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서 멀어져서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세 가지 매개상황 중에서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현상에 작용한 또 다른 매개상황인 학과 교수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교수의 영향

앞서 (2) 교사의 영향에서 살펴본 고등학교 교사의 영향은 특징별로 무관심, 유도, 편법,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 집중하지 않는 현상에 작용한 학과 교수의 영향 역시 그 특징이 무관심, 유도, 편법, 이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이제 학과 교수의 영향을 특징별로 구분해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무관심: “일대일 면담하는 적이 없어가지구”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학과 교수들로부터도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이번에 나와 면담한 것과 같은 정도의 면담도 학과 교수들과는 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홍아람: 오늘 상담[35]하기 전에도 손에 땀 줄줄 흘리면서, 상담이 무서워가지고 그랬는데, 쫌 마음이 편해졌어요. 헤~

연구자: 왜 나랑 면담하다가 실수하면 나한테 혼날까 봐?

홍아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면접도 그렇고 상담도 그렇고 이렇게 면대 면으로... 친구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 (중략)

연구자: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 하고 싶은 사람만 손 들라고...

홍아람: 네, 그런데 전 그냥 이렇게 해 보고 싶어서...

연구자: 어떤 면에서 해 보고 싶었어요?

홍아람: 어... 그냥... 교수님이랑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심진용: 전 면담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그냥.

연구자: 빨리 해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심진용: 그냥 무슨 얘기하나 궁금했어요. 그니까 교수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이런 상담은 처음이에요. 어... 에, 처음이에요, 교수님하고 상담하는 거는. 지금 3학년 담당 교수님하고도 상담 못 했어요. 쓥~ 바쁘셔가지고, 지금. 그냥 지나가다 밥 한 번 먹는 정도지, 이렇게 강의실이나 교수님 연구실에서 상담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연구자: 교수님들하고는 상의해 본 적 없고?

정선애: 네. 아, 한 번, 가정 관련된 전공에서 수업 시연을 하는, 그 있

35) 지금 하고 있는 면담을 말한다.

었는데, 그때 (중략) (교수님이) “나중에 뭐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마음 깊이 하지는 못했고, (교수님이) “열심히 노력해라.” 표면적인 얘기만 해서 교수님이랑 면담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소이: 이렇게 교수님...과 면담하는 것도 솔직히 처음인 거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그니까 교수님 방으로 찾아가서 짧게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한소윤: 전공 수업에서 이렇게 일대일 면담하는 적이 없어가지구, 교수님들이랑.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 중에는 잠깐이지만 학과 교수와 진로에 대해 의논한 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이 학생이 학과 교수와 했던 면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중간에 아동상담에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심진용: 네네

연구자: 그 계기나 이런 거 좀 들어 볼 수 있어요?

심진용: 맨 처음에 아동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직을 듣다가 생활지도라는 과목과 특수교육이라는 과목을 들었어요. 아, 근데 너무 매력 있는 과목이었어요. 아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지도를 정확히 해 주고... (중략) 그렇다 보니까 상담에 관심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겁고, 네. 근데 결정적으로 그거를 포기하게 된 이유는, 쓥~ 수요도 없을 뿐더러 어... 급여도 작은 게 현실적인 이유인 거 같아요. (중략) 교수님하고 밥 한 번 먹을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얘길 했어요. “교수님, 저 그거 이제 마음 접었고, 역사교육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교수님도 저한테 “잘 했다.”고, 교수님이 알아봤더니 “수요도 적고 밥벌이도 안 된다.”고 저한테 현실적으로 얘길 해 주시더라고요. 쓥~ 현실적인 이유가 저한테 가장 와 닿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과 면담을 했던 교수 역시 학과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교수에게는 학생들의 내면보다 직업의 “수요”나 “밥벌이”가 더 중요했다.

사실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에 학생들의 내면에 관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과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상태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말한 수많은 참여자들 중에서 자신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이런 상태로 입학할 때 학과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이야기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학생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업생활을 하는지, 즉 학생들의 내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정교육과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던 이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 가. 무관심과 (2) 교사의 영향 가. 무관심에서는 이 학생들에게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업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아 줄 부모도, 교사도 없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는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업생활을 하지 않도록 막아 줄 교수도 없었던 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과는 따로 두고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는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수들의 무관심 역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에서 이탈하는 데에 매개상황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작용 역시 작위에 의한 작용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작용이었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교수들은 학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교수들 중에는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어도 학생들의 학업생활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는 교수들도 있었다. 이제부터는 이 교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유도: "취업도 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교수님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는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는 교수들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자마자부터 학과 교수들로부터 취업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 유미나: 처음에 저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임용이 많이 안 뽑다 보니까 "취업 관련해서도 해야 한다." 란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교수님들이.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4) 전과 가능성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전과를 하지 않고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이처럼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전과도 못 하고 있는 이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2. 대상황 (2) 노동 환경에서는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각광 받게 된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교사 임용을 위해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한 앞서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이 학생들의 부모들이 이 학생들에게 교사 임용을 요구하는 매개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요구 사항을 고려할 때에도 사범대에 다니는 가정교육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의 행동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사범대 교수인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에 나오는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 이경진: 교수님들은 다 되게 자부심이 크신 거 같아요, 보면. (중략) 저번에도 우리 과가 취업률[36] 높게 나왔다고 가서 무슨 강연 같은 걸 하셨대요, 작년에 교수님들이 가셔서. 학교 안에서 이제 (취업률이 높은) 과를 두 개를 뽑는데, 사범대 안에선 가정교육과 뽑혀가지고. (중략) 가정과가 올해만 (신규 교사를) 많이 뽑고, 작년까지 되게 쪼끔 뽑았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임용 적게 뽑았는데 취업률을 높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하셨다고, 그런 얘기하시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는 꼭 임용 아니더라도 너네 길을 다 찾아 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신기하게도 대학 내에서 사범대 학생들이 교사 임용이 아니라 취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범대 교수들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아무리 사범대 교수라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교수의 능력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업률이라는 결과이지 그 취업률을 어떤 방식으로 높였는지 그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범대 교수가 교사 임용만으로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매년 발표되는 교사 선발 인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가정 교사는 전국적으로 거의 선발하지도 않고 있었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 학과

36) 취업률이라는 용어에서 취업은 교사 임용과 일반 취업을 합친 것을 뜻한다.

학생들의 취업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교수들은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3) 임용 vs. 취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교수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이 실제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 환경이라는 대상황과도 상충되고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과도 상충되는 교수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은 어떻게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앞서 (1) 부모의 영향 다. 재촉에서는 부모의 요구라는 매개상황과 부모의 재촉이라는 매개상황이 상충될 때 이 학생들의 경제적 의존이라는 소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재촉이라는 매개상황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교수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은 부모의 재촉이라는 매개상황과 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이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해서라도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만 하면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부모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교수의 유도라는 매개상황은 부모의 재촉이라는 강력한 매개상황에 힘입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교사 임용에 미련이 남아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 일부는 자신이 원하는 교사 임용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로 돌아섰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학과 교수들의 유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이 학과 교수들로부터 받은 영향은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다. 편법: “전공 무관을 노리는 수밖에”

앞서 나. 유도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여 학과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교수들은 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왔을까? 참여자들 중에는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학과 교수를 직접 찾아갔었다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과 교수들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결론은 "내가 도와줄 것은 없다."였다.

홍아람: 아직... 경영을 하고 있긴 한데, (가정교육과 경영) 둘 다 살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중략) 알아보고는 있는데... 둘 다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중략)

홍아람: 교수님들한테 여쭤봐도, 씁, 교수님들도 다들 제가 찾는 게 낫다고 하셔가지고

(중략)

홍아람: 제가 나름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게 가족학이나 아동발달심리 같은 거였는데, 가족 쪽이죠, 아무래도. (중략) 근데 경영이랑 가족이랑 아동은 연결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윤하나: ○○○ 교수님 수업 듣고 여쭤봤거든요, "저가 패션 쪽에 디자인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 해 보고 싶다." 해서. (교수님께서는) "복수 전공 뭐 하고 있냐?" (제가) "경제하고 있다." (교수님께서는) "경영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교수님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디자인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아카데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고. 우리가 아무래도 전공자보단 약하다, 다섯 파트 중에 하나니깐.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은 경영 (복수 전공)을 하면서 아카데미 같은 걸 다녀라." 이러시면서

이경진: 저는 처음에는 병원에서, 나중에 대학원 공부까지 해서 병원 임상 그쪽으로 해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사람

들 많이 하는지, 그쪽으로 하나도 몰라가지고...

연구자: 그럼 이 식품영양 연계 전공 해서 영양사 하고 있는 선배는 없어요?

이경진: 제가 알기로는, 그때 ○○○ 교수님이랑도 여름 방학 땐가 한 번 얘기해 봤는데,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없다고. 식품공학과에서 연계 전공 해서 하거나 이러지 우리 과는 거의 없는 거 같아가지구. 지금 우리 과 조교들도 다 여기 (식품)공학과 출신이시거든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는 학과 학생들을 취업 준비로 유도하는 교수들은 있었어도 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교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어떻게 해서 학과 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을까?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3) 취업 불리에서는 가정교육과 학생이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 중 하나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의 이야기 중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 한 명이 "우리가 아무래도 전공자보단 약하다, 다섯 파트 중에 하나니깐."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처럼 가정교육과 교수가 보기에도 가정교육과 학생이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에 취업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게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했을 때 교수들이 난색을 표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어떤 방식으로 학과의 취업률을 높이고 있었을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이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참여자들 중에는 뒤늦게 취업 준비로 돌아선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취업 현장에 "전공 무관" 이라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연구자: 취업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유재현: 아뇨, 딱히 없습니다. 전공 무관을 노리는 수밖에.
연구자: 그럼 '어떤 업종으로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없고?
유재현: 그거는 정했는데요, 농협 쪽이요.
연구자: 왜 갑자기 그런 데가 좋을까?
유재현: 아직은 폭넓게 정보를 얻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네에 농협이 많아서 그런가요?

참여자들 중에는 이미 취업을 한 학생도 있었다. 참여자 이언희는 앞서 나. 유도에서 살펴본,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가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높게 나와서 강연을 했다는 그 시기에 취업을 한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 중 어느 한 분야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전공 무관" 영역에 취업한 상태였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학과 학생들이 가정학의 세부 학문 분야에 취업하도록 돕지 않아도 학과의 취업률을 높일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공 영역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과 "전공 무관" 영역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같은 의미일까? 물론 교수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전공 영역에 취업하고자 했으나 학과 교수들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 한 번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결코 같을 수 없다. 즉, "전공 무관" 영역에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학과 학생들을 외면한 채 학과의 취업률만 챙기는 교수들이 사용하는 편법일 뿐이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편법을 사용하여 학과의 취업률만 챙기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 앞서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다. 재촉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가 최대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모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자신의 자녀가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이 교수들이 비록 학과 학생들에게 전공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해 주기만 한다면 이 부모들에게 이 교수들은 능력이 있는 교수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나. 유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교수들은 학과 학생들의 취업률을 통해 교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수들의 욕구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촉하는 바, 즉 빠른 경제적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로 작동하고 있었다. 이로써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은 이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었고, 부모의 재촉이라는 매개상황은 교수의 편법이라는 매개상황이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가정학의 영역 내에서 취업하고자 했던 학생들마저 가정학의 영역 내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다.

Ⅴ. 학업생활의 의미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 학생들의 내면이 아닌 대학교 이름값, 교사 임용, 빠른 경제적 독립과 같은 외적 성과를 향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단순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이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이끌려 대학교 이름값, 교사 임용, 빠른 경제적 독립과 같은 외적 성과를 좇느라 자신이 원하는 학업생활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내면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고 “외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의학 박사인 Medhus(2001/2002, p. 24)는 “외부 지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따르면 자신의 내면 그리고 자신의 내면과 관계없는 외적 성과를 중시하는 상황들, 이 양자 사이에서 자신의 내면보다 상황들을 우선하여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단순히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런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은 학업생활에 대해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미 부여는 다시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로 연결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의미는 어떠한 수업 태도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이 이 학생들을 얼마나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외부 지향의 특징

“외부 지향” 이라는 표현이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Medhus의 “외부 지향” 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외부 지향” 과 대비되는 “내부 지향” 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자.

> 아이들이 자아를 길러가는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이라는 정글을 헤치고 나가는 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성의 힘’ 이다. 아이들은 ‘이성의 힘’ 을 빌어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한다. ‘이성의 힘’ 이 강한 아이들, 즉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은 모든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이성적이고 내부 지향적인 사고방식은 자기 주도적인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Medhus/이상춘 역, 2002, p. 15)

이처럼 “내부 지향” 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의 힘’ 을 통해 외부의 영향을 헤치고 나아간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외부 지향” 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Medhus(2001)는 “외부 지향” 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에 휘둘린다고 하였다.

> 외부 지향적인 아이들은 외부의 통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이성적 판단으로 여과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원하는 그들의 욕구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외부의 판단’ 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점차 사회적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 자기의 참모습을 숨긴 채,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위선적인 정체성에 의존하면 할수록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굳어진다. (Medhus/이상춘 역, 2002, p. 24)

따라서 한 사람이 “내부 지향” 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내면에 갖추고 있는 ‘이성의 힘’ 이 외부의 영향을 헤치고 나갈 만큼 강해야 하고,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을 원하는 욕구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이 두 가지 특징 중 어느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외부의 영향을 헤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나약한 ‘이성의 힘’ 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에는 너무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내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에 이끌려 대학교 이름값, 교사 임용, 빠른 경제적 독립과 같은 외적 성과를 좇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이성의 힘’ 이 어느 정도로 약한지 그리고 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본인의 내면: “다 맞는 거 같은데, 뭐지?”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1. 소상황 (1) 입시 성적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단순히 수능에서 언어 영역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만이 아니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운 적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가정과 논리 및 논술> 수업에서 글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쓰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

려서부터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써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김효정: 저는 일단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글 보는 눈이 너무 없어요.

진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와서 문과 쪽으로 비문학 같은 거를 많이 안 읽어 봤어요.

백수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그거에 대한 논거를 잘 못 세우는 거 같아서... 근데 제가 책을 어렸을 때부터 안... 지금은 좀 많이 안 읽긴 하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비문학 책 이런 거 읽은 건 아니고 소설책 이런 건 꽤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쓰려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논거가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오근화: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많이 안 읽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20년 동안 내가 안 읽어서

최서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읽기도 했는데, 그게 다 문학만 읽었어요, 다. (중략) 고등학교, 수험생 할 때도 기출문제를 풀었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진 못 했던 거 같아요.

황유선: 제가 수능을 세 번 본 이유가 다 언어 때문인데, 아직까지 책을 잘 못 읽겠고, 어려운 책 같은 거나... 읽기도 싫고, (중략)
연구자: 그러면은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는 거에는 지장 없어요? 이해하는 데에?
황유선: 쫌 어려워요.
연구자: 어떤? 어렵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황유선: 이런 가논논[37] 같은 수업이나

37) '가정과 논리 및 논술'의 줄임말이다.

연구자: 내 수업?
황유선: 네헤헤헤
연구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워요?
황유선: 정리하는, 요약하는 거? 핵심을 뽑아내는 거? 조리 있게 글 쓰는 거? 그런 거. 아직 연습이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참여자들은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써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그나마 한 참여자는 글을 쓰는 교양 수업을 한 번 들어 봤다고 했다. 그러나 그 수업은 학생들에게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 아니었다.

연구자: 교양에서는 이런 수업 안 들어 봤어요?
한소윤: (중략) 글 쓰는 교양은 많이 안 들어 본 것 같애... (중략) <드라마와 영화> (수업)에서는 매주 글을 쓰긴 했는데 그건 형식이 완전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필처럼 자기 생각만, (교수님이) 사실 (글의) 분량을 많이 보셔가지구.

학생들은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쓰는 과정 속에서 타인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 속에서 외부의 영향을 헤치고 나갈 '이성의 힘'을 내면에 기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이런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또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면에 '이성의 힘'을 기르지 못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외부의 영향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한 참여자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이 다 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는데, 선생님이 없는 지금은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장세희: 저는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책상 아래 부분을 발로 쾅 치면서) 다 진리,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크면서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그래서 다 맞는 거 같

> 은데, 뭐지? 하나만 맞다고, 그런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나는 이게 맞아.”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자신... 감이 부족해서, 저는 다 맞는 거 같거든요. 이 말도 맞는 거 같고, 저 말도 맞는 거 같고.

이처럼 내면에 ‘이성의 힘’을 갖추지 못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내면을 직접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영향에 자신을 그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에서 살펴본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 상황들에 쉽게 휘말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이성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이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 앞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⑵ 타인의 시선: “제 시선이 아니라”

앞서 ⑴ 본인의 내면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이성의 힘’이 약하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성의 힘’이 약하다는 것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기준이 약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할까?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있었다.

한 참여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이 참여자 본인의 기준이 아니었다. 이 참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 중에서 누구를 더 인정하고 칭찬하는가를 기준으로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 사이에서 우열을 가늠하고 있었다.

연구자: 그 학생들,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제 사회인들이잖아.
장세희: 그런 건 있죠. ‘재가 나랑 얼마나 다르길래?’
(중략)
연구자: ‘재랑 나랑 뭐가 다르길래?’ 하는 그런 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장세희: 그런 거는 제가 그 친구를 봐서 시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 그, “너는 얼굴도 예쁘고, 대학도 잘 가고,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연구자: 장세희 학생한테는 뭐라 그러는데요? 시선이?
장세희: 시선이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뭔가 넘사벽이라는 그런 느낌이...
연구자: 그게 뭐, 넘사벽?
장세희: 네. 넘을 수 없는... 그런 무언가? 차원의 벽이란 말이긴 한데.

이 참여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남들의 외모나 대학교 이름값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남들을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 참여자가 본인의 내면에 강한 ‘이성의 힘’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자신의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파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내면에 ‘이성의 힘’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모나 대학교 이름값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자신의 친구들을 칭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자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이 학생들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 학생들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대학교 이름값, 교사 임용, 빠른 경제적 독립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성과에만 관심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이 학생들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좇는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외적 성과를 좇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이 내부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직업이 외부적으로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이 참여자는 그런 면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좋다고 했다.

이세영: 직업관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얘기할 수 있는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중략)

이세영: 그때부터 선생님이란 직업이, 다른 사람은 주말이 많고? 방학이 있고? 근데 전 그거보다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뭘 하는 거란 확실한? 그런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면에 '이성의 힘'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언제나 본인에게 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러한 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계한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애초에 이와 같은 '이성의 힘'을 내면에 갖추고 있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으로 인해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의미와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외부 지향의 결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으로 인해 학업생활에 대해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부여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부여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는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상당 부분 설명해 주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리: "아빠가 좋아하니까"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외적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외적 성공을 요구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한 외적 성공을 위해 자녀의 학업생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참여자들 중에는 학업생활을 하느라 부모로부터 받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양아정: 엄마한테 미안했던 게 많았어요. 제가 집은 ○○인데, 학교는 ○○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열두 시에 끝나고도 데리러 오셔야 되고 했었으니까, 저는 편했지만 엄마가 많이 힘드셨죠.

오근화: 학비가... 재수 학원이 한 달에 한 육십, 칠십 이 정도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걸 다 내 주세요? 육십, 칠십을?

오근화: 네. 헤~ 제가 불효를 쫌 했네요. (중략) 부모님은 교육하는 데는 돈을 안 아끼시는 것 같아요. 동생들이나, 저나, 학원비나, 책값,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장세희: 저희 부모님은 교육적인 거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해 주셨거든요. 학원도 많이 보내 주시고. 그거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못 한 거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연구자: 아... 그럼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 따로 있어요?

장세희: 그렇진 않아요. 교사되길 바라셔서.

그런데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지원에 대해 미안함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내 부모의 눈치를 살폈다.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 중에는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은 어머니가 그 남자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접으려고 했다.

양아정: 소개팅 때 한 번은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부터 또 반항심이, "아니, 엄마는 왜, 내가 만나는 건데 섣불리 "마음에 안 든다." 이러냐?" 고, (엄마가) "아, 그럼 니 마음이니까 니 마음대로 사귀라." 고, "대신 엄마는 간섭하지 않겠다." 고, "너의 연애에 대해서". (중략) 근데 엄마가 이렇게 딱 하니까 '아, 별론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네.

장세희: 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 친구인데요. 저는 그 애가 되게 좋은데, 헤~ 그 아이가 ○○에서 대학을 다녀요. 동갑인데. (중략) (목소리가 떨리며) '아~ 분명히 헤어지겠다.' 이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아, 굳이 지금 미리 헤어져

야 되나?' 이런 생각도. (중략) 근데 엄마는 절 되게 믿어주셔서 별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빨리 헤어져. 빨리 헤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연구자: 오~ 왜?

장세희: 그냥... 좀... 답이 없다? 헤~ 아직 대학교도 졸업도 안 했고, ○○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남자 애도 마인드가, 외아들이라서 그런지,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즐겁게 살고 (중략) 그래서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아, 진짜 답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치를 살피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이런 태도는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참여자들 중에는 학업생활을 할 때 자신보다 부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에서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정신적 문제를 겪게 되어 자퇴를 했던 한 참여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그때 자신에게 실망한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할 때 본인이 감당도 못할 학과에 입학했었다고 했다.

진소이: 제가 ○○대를 갔을 때, 그런 영향이 컸던 거 같아요. 아빠가 저한테,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자퇴를 해서) 실망했던 거를 만회하고자 '아빠가 좋아하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저를 잘 모른 채 들어갔던 거 같아요.

(중략)

진소이: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계 전공하신 거거든요. 그니까 딸이 같은 전공을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크셨는데, 갔는데 너무 힘들더라구요. 기계 쪽이라서 남자 학생들도 너무 많고,

연구자: 몇 년 다닌 거예요, 그러면?

진소이: 몇 년도 아니고 한 학기만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 참여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조차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이 참여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이다.

이 참여자처럼 부모의 눈치를 살피면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은 또 있었다.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 (1) 부모의 영향 나. 요구에서는 교사를 하다가는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부모 몰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 참여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참여자 역시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연구자: (부모님께는) 언제 얘기하려고?

홍아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 복수 전공밖에 안 하고 있고, 뭔가 다른 뒷받침되는 것도 없으면서 막무가내로 "아, 나 임용 고시 안 볼 거야." 막 이러면은 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뭔가 인턴십(internship)을 한두 번 정도는 해 봐야지...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연구자: 인턴십(internship)... 지금 기회가 있어요?

홍아람: 그래서 이번 겨울에 신청을 하려고요.

연구자: 학교에서 하는 것 있어요?

홍아람: 학교에서 하는 게 있긴 한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 중소기업이 많아서...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잘 아는 회사여야지 안심이 되고 이러니까... (중략) 저는... CJ나 삼성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경쟁률도 심하고...

이 참여자는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조차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참여자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부터 생각하고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 한 명은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온 자신

의 인생에 대해 한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 역시 엄마가 요구하는 학업생활에서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

정선애: 뭐든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던 거 같아요.
연구자: 엄마가 하라고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요?
정선애: “공부해서 대학 가라. 대학 가서 선생님 해라.” 엄마는 선생님...
연구자: 정선애 학생은 선생님이 좋은 직업인가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정선애: 네. 그래도
연구자: 너무 이쪽으로 많이 온 것 같다?
정선애: 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는 마치 부모의 학업생활을 대신 해 주는 것처럼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은 자신의 것이 아닌 부모의 것이었다.

이제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내 수업에서 퇴출당했던 학생이 내 수업에서 나갈 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어머니가 나서자 내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다 받아들이고서라도 내 수업에 다시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또 막상 어렵게 내 수업에 다시 돌아와서는 수업을 듣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설명된다. 그 학생에게는 듣고 싶지 않은 수업을 듣지 않을 자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학생의 학업생활은 그 학생의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어머니의 것이었다.

⑵ 거래: “칭찬만 들어 왔는데”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1. 소상황 ⑴ 입시 성적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넉넉한 성적을 받지 못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에 입학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찌 됐든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조건과 사범대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학생들 중에는 대학교 입학시험 이전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았던 학생들도 많았다.

장세희: 고등학교를 외고를 다녔는데요, (중략) 저는 중학교 내신이 좋은 편이어서 썼는데, 붙어서 갔는데, (중략) 공부 못하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갔는데,

정선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내신이 있잖아요? 9등급까지 있는데, 1.4? 1.3 정도?

윤하나: ○○○, ○○○ 이런 친구들은요, 제가 듣기론, 이번에 들었는데, 내신 전교 1등 막 이런 출신들이래요.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이처럼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특별 대우를 해 주는 교사들이 있었다.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 중 한 명은 외고에 다녔는데 그때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세희: 고등학교 때, 외고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애들이 일단 다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화장실 가는 거라든가, 이런 자유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그니까 애들을 많이 믿어 주는 느낌이 있었고.

그런데 교사들로부터 이런 특별 대우를 받으며 학업생활을 해 온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이 일부 교사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자신에게

특별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한 참여자는 2012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나에게 적대감을 드러내었던 이유가 내가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대해 지적을 했기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연구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윤하나: 교수님이 너무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애요, 그 친구들이, 제가 느끼기에. (중략)
연구자: 어떤 부분에 깊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애요?
윤하나: (중략) 지금까지 갖고 왔던 나만의 이... 행동방식을 건드리신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칭찬만 들어 왔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늘 항상 모범생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그냥 수업만 했다고 생각하면, (교수님이)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잘못된 거를 고쳐 주시려고 하시니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중략)
윤하나: 그렇잖아요? (다른 교수님들은) 수업의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코멘트(comment)가 없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게 가장 큰 거 같애요. 그냥 딴짓을 하든 말든 말씀 없으셨고,

이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업 성적이 높다는 이유로 모든 교사들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은 교사들을 상대로 한 거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이러한 생각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수정된 것이 아니라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수업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는 교수들을 보면서 단순히 교수들이 자신들의 수업 태도에 관심이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교사들과 했던 거래가 대학교에서 교수들과도 성립되

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제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수업 자체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성적에는 자기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행동하던 학생들의 행동이 설명된다. 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높은 학업 성적은 교사 혹은 교수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할 때 사용할 거래 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업에는 관심도 없던 학생들이 성적에는 그토록 집착을 보였던 것이다.

(3) 대기: “졸업은 시켜 주겠지”

앞서 1. 외부 지향의 특징 (2) 타인의 시선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좇아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윤하나: 저는 솔직히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첫 번째가 돈...이 아니어가지구,
연구자: 그럼 뭐에요,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윤하나: 저도 솔직히 돈...을 무시 못 하겠지만,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요, 의미, 의미가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애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렇지만 의미, 의미 있는 거가 1순위가, 선...택 기준의 1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연구자: 의미? 교사는 그러면 의미가 없, 윤하나 학생에게는 없는 거죠?
윤하나: 아니, 굉, 의미 있죠. 그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라는 건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선생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내면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 한 참여자는 지리교육이 좋다고 지리교육과에 가서 복수전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지리교육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황유선: 제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게 힘을 쏟을 만한, 그런 걸 찾지 않는 거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거기에 미칠 것 같은데, 그... 것이 뭔지 모르겠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지리교육 하고 싶다고, 지리 선생님 되고 싶다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거 같고. 그래서 미래가 두렵고 그래요.

이처럼 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이 참여자들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적어도 가정교육은 자신의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참여자들은 가정교육이 자신의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교육과에 남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은 그저 대기하는 시간이었다.

윤하나: 그건 쫌 많이 후회가 돼요. ‘왜 대학교에 온 게 끝이라고 생각했을까? 왜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지 않았을까?’는 지금은 후회가 되고,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전과해서) 바로 넘어간 친구들도, 그니까 열 명이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아니다. 난 성적에 맞춰서 온 거니까 다른 과로 가겠다.’ 그래서 간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갈 길 찾고 또 스펙 쌓고 평범한 아이가 아니어서, 찾지도 못했구 이래서, 그냥 경험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있으면 뭐,

연구자: 졸업은 시켜 주겠지!

윤하나: 네. 졸업은 시켜 주겠지. (중략) 그래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가

만있었던 것 같애요.

이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는 일보다 졸업장을 챙기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러면 이처럼 원하지도 않는 가정교육과에 남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의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딴짓"이었다.

연구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졸아가지고... 나한테 지적을 받았잖아요...?
윤하나: 네. 네.
(중략)
연구자: 다른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졸아요?
윤하나: 아니요, 그니까 졸지 않고, 제가요, 딴짓을 해요, 그 대신.
연구자: 아~ 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할 수 없게 하니까
윤하나: 졸아버린 거...
연구자: 아하하하 딴짓을 주로 뭘 해요, 그러면?
윤하나: 그냥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은 이 참여자만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수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38]: 교수님에 따라서 아이들이 행동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중략) 사람을 가리듯이, 교수님이 유~하시다 느낌이 들면 아이들이 확실히 지각률이 높아진다거나 (중략) 딴짓을 많이 하게 되고 핸드폰을 심하게 보는 (중략) 교수님이 시간을 오바하거나, 심하게 타이트하게 끝내 주시는 게 아닌데, 엄청 끝내 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오라(aura)가 너무 크게 풍기면, 민망하다고 해야 할까,

38) 이 참여자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비밀로 해 주길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래서 좀 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서는 이 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39]: (제가) 발표를 하는데 애들이 이어폰을 꼽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중략) 자기 할 거 끝났다고 뒤에서 딴짓하고... 최소한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근데 뒤에 앉아가지고 음악 듣고 있고...

(중략)

연구자: 교수님은 수업에 안 들어오시나?

△△△: 교수님은 평가하세요,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중략)

△△△: 수업이 워낙 프리해요, 거기. 출석 체크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학기) 초반에 하시다가 거의 안 하시니까... (학생이 강의실에서) 나가도 잘 몰라요, 호호호~ 나갔다 안 들어와도 몰라요.

이제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던 많은 학생들의 행동이 설명된다. 이 학생들의 "딴짓"은 내 수업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 학생들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자신에게 의미 없는 수업 시간을 "딴짓"을 하면서 보내는 습관을 몸에 익혀 왔던 것이다.

⑷ 경쟁: "늘봄대랑 우리 싸움인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⑵ 대학교 이름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을 얼마나 중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 참여자는 대학교 이름값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삼수까지 했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이후에도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기 위해 편입까지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 "학교

39) 이 참여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비밀로 해 달라는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다른 참여자가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참여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이 참여자의 이름 역시 가명이 아닌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가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장세희: 학교가 다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구요. 서울대를 나와도 맨날 입사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빛대서도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 보면, 학벌이 다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구요.

이 참여자의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이 참여자가 학벌주의의 허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참여자가 아직도 여전히 대학교 이름값을 의식하면서 대학교 이름값으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대학교 이름값으로만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과로도 비교하고 있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⑷ 전과 가능성에서는 사범대 내 다른 학과에 입학하고 싶었던 많은 참여자들이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넉넉한 성적을 받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도 못 했다거나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뒤에서 암암리에 자신들의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이 실제로는 사범대 내 다른 학과 학생들의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보다 높았었다는 소문을 만들어서 퍼트리고 있었다.

양아정: 가정교육과가 수능이 낮아서 오는 애들이 아니, 전 깜짝 놀랐어요, 전 처음에 입학하고 정시 애들이랑 같이 친해지다 보면 몇 점 나왔느니, 뭘 하느니 듣는데, 가정교육과가 엄청 높더라구요. 수학교육과보다 더 높던데요? 이게 언어를 망한 사람들, 그니까 언어만 낮지 다른 과목은 1, 2등급 맞은 애들이다 보니까,

백수아: 우리 학교가 가정교육과가 수학교육과보다 쪼끔 더 높다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인지, 아닌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같은 한빛대 사범대 내에서도 다른 학과 학생들과 자신들을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으로 비교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학과 내에서도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학교 입학시험을 여러 번 보거나 편입 과정을 거치느라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다른 학생들보다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나이로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소윤: 아무래도 재수나 특히 삼수까지 해서 오면요, '아, 이제부터 대학을 즐기자.' 이런 거보다도 마음이 항상 무거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니까 동기들을 보면 (중략) 어쨌든 같은 학교에 있는데 나는 돌아서 온 거 같고, 애네들은 바로 이렇게 와서, 부러움 반? 그리고 내 스스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많이 부족한 게 스스로 찾게 되는 거예요.

연구자: 왜요? 같은 시험 봐서 들어왔는데?

한소윤: 그렇긴 한데, 저는 수능을 세 번 보기까지 이렇게 좌절했던 것도 있고, 공부하면서 고생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같은 학교, 같은 과에서, 같은 수업을 받고 있는데 뭔가 차이가 있는 거 같고, 그냥 저 스스로, 속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언희: (제가) 09학번들보다는 두 살 언니고요, 그니까 07학번이 원래 제 나이예요.

(중략)

이언희: 2년이 뒤처져 있다는 강박 관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참여자들이 다른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잣대로 사용했던 대학교 이름값, 대학교 입학시험 성적, 나이와 같은 것들은 이 학생들의 내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이 학생들은 자신의 내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중요

하다고 생각할 만한 잣대로 주변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다.

이처럼 남들의 잣대로 주변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학업생활을 하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학업생활을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1) 폐과 위기에서는 늘봄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된 이후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한빛대에서도 가정교육과가 폐과될까 봐 불안해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한 참여자는 늘봄대에서 가정교육과가 폐과된 것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기회”라고 했다.

연구자: 늘봄대학교에서 가정교육과가 폐지되는 걸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한빛대학교도...

이언희: 기회

연구자: 기회? 기회는 뭐예요?

이언희: 그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아무래도 알참대[40] 애들은 진짜 선생님이 돼야겠다는 생각 아니고서야 뭔가 학자의 길을 걸을 거란,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늘봄대랑 우리 싸움인데, 그렇게 치면 애네들이 없어졌으면, 열심히 하면 여기서 더 많이 합격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알참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늘봄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그리고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정교육과 학생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늘봄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폐과로 인해 고통 받을 때 그 고통에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알참대 가정교육과 학생들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이 참여자의 이야기에서는 그러한 공감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참여자는 어떻게 해서 폐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늘봄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참여자에게 늘봄대

40) 알참대는 가명이다.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가정교육이라는 같은 길을 걸어갈 동지가 아니라 자신보다 우월한 대학교 이름값을 가진 경쟁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학과 내에 있는 다른 학생들을 경쟁자로 보는 학생들도 있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가정 교사 임용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자: 그거는 그러면 전체 학생들한테 공지가 나간 거예요?
이세영: 그건 아니고, 임용 보는 수요를 교수님이 알고 계세요, 신청자들을. 그래서 그 리스트(list) 내에서 교수님이 생각이 또 있는 친구 있는지 저희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교수님이 모아 주시는 거예요.

연구자: 간담회는 전체 학생, 희망자들은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오근화: 근데 그 간담회가 수업 시연을 하는, 시험을 봐야 되는 언니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그거를. 방학 중이었어요, 게다가. 그래서 가정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만 따로 연락을 해서 모인 경우였어요, 그 경우는.

한 참여자는 앞서 말한 모임에 자신의 친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자는 그 모임에 들어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윤하나: 그니까 임용 준비하는 친구들이 비밀스럽게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가정 교사 임용 준비에 관해서만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학업생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웬만해선 공유하지 않았다. 한 참여자는 소비자 현장 실습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이런 것을 해 보려고 해도 몰라서 못 했다고 했다. 그나마 이번에는 동기 한 명이 알려 줘서 할 수 있었다고 했다.

권영오: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정보력이 없다 보니까 무얼 해 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전 우연찮게 동기 덕분에 이렇게 됐지만, 네.

그런데 이 참여자와 이 참여자의 동기도 이 정보를 알고 나서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경쟁자로 보고 경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제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한 학생이 내 수업에서 퇴출당했을 때 그리고 그 학생이 다시 내 수업에 돌아 왔을 때 그 학생과 평소 친하게 지내지도 않던 많은 학생들이 그 학생을 두둔했던 그 행동들이 설명된다. 그 학생을 두둔했던 많은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은 경쟁자들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은 수업 태도가 좋지 않았던 학생의 편을 드는 척하면서 수업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이 좋은 수업 분위기 속에서 수업에 집중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⑸ 수집: “학위라도 하나 더 해서”

앞서 1. 외부 지향의 특징 ⑵ 타인의 시선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관심이 본인의 내면이 아니라 외적 성과에 쏠려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본인의 내면에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친하게 지내는 학생들끼리도 서로의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한 참여자는 친하게 지낸다고 하는 한 학생에게 “언니”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그 언니가

왜 자신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은지를 모르고 있었다.

연구자: 그럼 두 명만 같이 친해요?
기보미: 그런 건 아니구요. 언니들이 있어요, 동기 중에서요. 소이 언니, 진소이.
연구자: 그 동기는 왜 언니예요?
기보미: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고요.
연구자: 오, 왜?
기보미: 이 언니는 다른 대학교 다니다가 왔어요.
연구자: 그럼 2학년까지 다니다가 왔나? 왜 그렇게 됐지?[41]
기보미: 1학년 마치고 공부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자: 그럼 1학년 마치고, 재수 1년 하고, 그렇게 돼서 2년...
기보미: 에에에, 그쵸.
연구자: 아아아, 그래서. 진소이 학생하고도 친하고?
기보미: 네.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에서는 진소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정신적인 문제로 심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휴학이 안 되어서 자퇴를 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앞서 (1) 대리에서는 진소이가 처음에 입학했던 대학교에서 한 학기 만에 나온 후 반수를 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진소이는 다른 학생들보다 두 살이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 참여자는 진소이랑 친하다고 하면서 진소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파서 자퇴를 하고 학교를 쉬었다는 점, 진소이가 처음에 입학했던 대학교는 아버지를 위해서 억지로 입학한 학교였다는 점, 그리고 진소이가 그 대학교에서 한 학기 만에 나왔다는 점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참여자는 진소이와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

41) 기보미가 재수를 했기 때문에 진소이가 다른 대학교에서 1학년까지만 다니고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바로 입학했으면 기보미와 진소이는 동갑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

도 진소이가 먼저 말하기 전에 진소이의 개인 사정을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워서 진소이에게 물어보지 못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참여자의 말을 들어 보면, 이 참여자는 진소이가 왜 다른 학생들보다 두 살이 많은지에 대해 전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았다. 이 참여자는 진소이가 다른 학생들보다 두 살이 많은 이유를 진소이 본인에게 확인도 안 해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했다. 즉, 이 참여자는 그저 진소이의 내면에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서로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교우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바로 친구의 숫자였다.

연구자: 전공 친구는 나에게 어떤 의미에요?

정선애: “대학 와서 친한 친구 한 명, 선배 한 명, 동생 한 명 사귀면 대학 생활 성공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대학 전공 친구들이랑 많이 친하고 저희끼리 여행도 갔다 오고 이 정도로 친하니까 그래도 보람 있고 좋은, 인간관계? 그런 거요.

이처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서로의 내면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단순히 친구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교우 관계를 맺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숫자라도 늘려야 안심이 되는 이 학생들의 삶의 태도는 복수 전공 선택에도 이어졌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⑵ 복전 vs. 단전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른 학과에 가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학생들 중에는 특별히 복수 전공을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복수 전공을 하나라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

유재현: ‘취업 쪽으로 해서 나가 보자.’ 하고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은. (중략) 이왕 대학교 4년 다니는데 뼈

같은 돈 내고 학위라도 하나 더 해서 나가는 게 해가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래서 경제학과를 했는데

연구자: 그게 취업에 도움이 되려나...?

유재현: 저도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과연 과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니까 남들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과도 복수 전공 두 개씩 하고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구자: 나도 하나 해야 되겠다?

유재현: 네, 헤~

연구자: 식품영양 연계 전공은 왜 한 거예요?

양아정: 저는 원래는 문과여가지고 역설적이게도 식품 쪽에는 더 점수가 안 나왔어요, 처음에 기초영양학을 봤을 때. 그래서 거부감도 있고 '아, 못 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정 교사가 되면 내가 가르쳐야 할 전공 분야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더 심도 있게. '모르니까 모르는 거구나.' 생각해서 더 연계 전공을 해서 '한 번 해 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연구자: 아... 그랬구나.

양아정: 네. 어차피 뭔가 하나는 더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관념이 있더라고요.

연구자: 왜요?

양아정: 선배님들도 그러고 다 복수 전공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같은 돈 내고 하나만 전공하고 나오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학생들은 친구를 사귈 때에도,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에도 내용보다는 숫자를 중시했다. 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수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복수 전공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도 놓지 못하고 최대한 많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언희: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만약에 교직 복수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돌렸을 때, 학과 공부나 아니면 또 고학년이 됐을 때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게 많잖아요, 교생도 나가야 되고, 이런 면에서 뭔가 비효율적인? 어차피 나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니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자기가 (가정 과목으로) 교사 자격증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믿을 구석이 있어서 안심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당장 눈앞에 취업이나 자기가 진출하려는 방향, 뭐 임용이나 그런 데 시간을 뺏기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시험 기간 때나 그럴 때 힘들어하는 그런 건 본 적이 있는 거 같애요.

이제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많은 학생들이 수업 도중에 핸드폰을 받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느라 강의실을 빠져 나간 후 강의실 밖에서 배회하던 그 행동들이 설명된다. 이 학생들은 내 수업을 듣기 전부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최대한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수집해 왔던 것이다.

3. 외부 지향의 장벽

앞서 2. 외부 지향의 결과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좋지 않은 수업 태도가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으로부터 촉발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논문을 위해 면담을 진행했던 2013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이전 학기들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완전히 달랐다. 2013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상당히 좋았다.

그렇다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갑자기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본 논문을 위해 진행했던 개별 면담이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개별 면담이 처음부터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에 파문을 내었고, 그 결과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 개선을 이끌어 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개별 면담을 통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개별 면담에는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개별 면담의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⑴ 개선의 가능성: “내 길이다 생각하고 전진하려구요”

2013년 2학기에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개별 면담이 어떻게 해서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할 수 있었는지를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가정교육에 호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개별 면담 후 수업에서 자신의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가정 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가정 교사를 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었다. 그런데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⑴ 학과 이미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을 위해 개별 면담을 할 때에는 가정교육에 호감을 갖고 있던 학생들이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기 시작하였다. 특히 처음부터 가정 교사를 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입학했다고 했던 한소윤은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굳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소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교수님 같은 분이 가정 여기 과에 계신

지 몰랐거든요. 교수님들, 그분들의 전공이 있잖아요. 근데 가정과 전체로 보시는 분은 교수님이 처음이신 거 같아요. (중략) 교수님은 가정과에 대해서 자부심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서 반성 같은 게 되고, 좀 '저렇게 되고 싶다.' 하하, 그런 생각이 많이 든 거 같아요.

(중략)

연구자: 진짜 이 많은 학생들을 면담했는데 "처음에 나는 올 때부터 성적과 상관없이 가정교육과에 올 생각이었고, (가정교육)과에 맞춰서 이 대학, 저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고 하는 학생은 처음 봤어요. (중략) 또 있어요, 그런 학생?

한소윤: 아뇨, (중략) 근데 (제가) 중간에 방황을 너무 많이 해서, 한 우물만 파야 되는데,

(중략)

연구자: 언제 또 가정교육과를 버릴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야.

한소윤: 아이, 이젠... 실제로 많이 겪어가지고, 정말 이제 '내 길이다.' 생각하고 전진하려구요.

그런데 이처럼 개별 면담에서 가정교육에 호감이 있다고 말하거나 가정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던 참여자들은 개별 면담에서 자신의 속내를 털어 놓은 후 내 수업에서 수업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누가 봐도 내 수업에 정성을 쏟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였다.

물론 이런 학생들의 숫자는 전체 학생들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소수였다. 그러나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컸다. 이제 내 수업은 나만의 수업이 아니었다. 따라서 가정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내 수업을 방해하기는 힘들었다.

둘째, 개별 면담 후 나의 지도를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먼저 개별 면담을 하지 않았던 시기, 즉 2012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나의 지도에 대해 보였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윤하나: ‘교수님이 들어오시면 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 놀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들은? 아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몰랐던 것 같애요, 그 친구들은. (중략) “뭐 인사까지 바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웃으며) 진짜루.

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에게 인사를 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에게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자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내가 인사를 하고 지내자고 했던 말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반면에 2013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나의 지도에 대해 보였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이 학생들은 내가 야단을 쳐도 다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받아들였다.

양아정: 다른 수업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교수님 처음으로 저희 다 같이 훈계해 주셨잖아요?

연구자: 훈계?

양아정: 그니까 “앞으로 이래서 이래서 더 고쳐라. 열심히 해라.” (중략) 그때 딱 들었던 느낌이 ‘아, 대학 와서 그냥 하고,’ 그니까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시잖아요. “너 과제 했니? 안 했니? 공부 잘 하고 있니?” 이런 것도 안 물어 보시고 하니까,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정신 좀 차려야겠구나.’ 라는 게 가슴 깊게 와 닿아서... ‘아, 내가 3학년이라는 이유로 너무 설렁설렁 다녀왔던 건 아닌가.’ 라는 계기도 되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수업에 대해서 혹시 뭐 할 말은 없어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해야지.’

이경진: (한참 생각하다가) 그때 교수님께서 한 번 다 혼내셨을 때, 그때 그냥 혼자 들었던 생각인데요. (중략) 저도 대학교 3학년 2학기인데 처음 대학교에서 이렇게 혼나는 거잖아요. (중략) ‘1

학년 때 만약에 다른 수업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더 정신 차리고 생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1학년 때 수업을 열심히 안 들은 것도 많았거든요.

물론 2013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모든 학생들이 나의 지도에 대해 이 학생들처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들처럼 나의 지도를 자신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나의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한 나의 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나의 지도를 나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삼기는 어려웠다.

셋째, 가정교육에 관심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개별 면담을 통해 나와 거리가 좁혀졌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다. 2012년 2학기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한 참여자는 개별 면담에서 나에게 자기 속 얘기를 털어 놓다 보니까 나와의 관계가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래서 나와 면담을 한 학생들은 내 수업 방식을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면담해 보니까 하기 전하고 나랑 관계나 나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나 이런 게 좀 바뀐 거 같아요?

정선애: 되게 편해졌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것도 있고, 교수님도 되게 바쁘시고, 그 논리 수업 들을 때는 뭔가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하니까, 그때랑은 다르게 뭔가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관계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42] 듣는 학생들한테도 면담하시면 학생들이 되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수업 할 때나 그럴 때. 저희는 아무래도 자유롭게 1, 2(학년)를 보냈다가, (교수님이) 확 하시니까 애들이 좀 '어? 뭐지?' 이랬던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쓥, 그래서 관계가 딱딱했던 거 같은데, 면담하면 교수님하고 진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더 알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업할 때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42) 2013년 2학기에 내가 맡고 있었던 <가정과 논리 및 논술> 수업을 가리킨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2013년 2학기에 나와 면담을 하면서 동시에 내 수업을 들었던 한 참여자는 나와의 면담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심지어 이 참여자는 수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나와의 면담을 이어가고 싶어 했다.

진소이: 이렇게 면담을 하면서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니까 교수님과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많이 들구요. 어... 다음에, 그냥 앞으로도, 이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이런 기회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처럼 개별 면담을 통해 나와 가까워졌다고 느낀 학생들은 비록 가정교육에는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내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2013년 2학기에는 수업 분위기가 많이 정돈되었다.

⑵ 개선의 어려움: “시간이 뺏길 거 같기도 해서”

앞서 ⑴ 개선의 가능성에서는 개별 면담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개별 면담이 무조건 좋게 보이지만은 않았을 수 있다. 게다가 한두 시간의 개별 면담으로 이 학생들이 오랫동안 형성해 온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개별 면담의 한계를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시간을 쓰더라도 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한다. 한 참여자는 개별 면담 때문에 시험 기간에 시간이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이 참여자에게 자신의 내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은 시험 준비에

쓸 시간을 뺏는 일이었다.

연구자: 나랑 면담한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면담해 준다, 그러니까?
기보미: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요?
연구자: 근데 왜 (면담 순서 정할 때) 이렇게 빨리 하려고 손을 계속 들고 그랬어요?
기보미: 아... 그냥 나중에 시험 기간 겹치고 하면, 또 그냥 시간이 뺏길 거 같기도 해서
연구자: 오... 지금 아직 시험 기간 아니니까?
기보미: 네.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좋잖아요.
연구자: 음... 난 또 학생들이 하도 경쟁하고 가위, 바위, 보 하고 난리치길래, 나는 나랑 말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다들 시험 기간에 안 걸릴라 그랬구나.
기보미: 에,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는 뚜렷한 외적 성과와 연결되지 못하는 개별 면담과 같은 일에 시간을 쓰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2013년 2학기에는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본 연구를 위해 개별 면담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던 것일까?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때 당시에 우연히 학생들 사이에 경쟁이 붙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면담하면...
홍아람: 아... 그런 생각 전혀 없고, 저 그냥 “뭐 할 사람?” 이러면 무조건 손 들고 보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연구자: 내가 학생의 투지에다가 불을 탁 지폈구나?
홍아람: 네, 헤헤헤~ 갑자기 선착순인 거 같으니까 손부터 들고
연구자: (손뼉을 치며 웃음) 손 들었는데 경쟁자가 많아.
홍아람: 네. 그래서 계속 하면 할수록 ‘빨리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런데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외적 성과와 관계가 없는 개별 면담에 대한 참여를 두고 이처럼 경쟁이 붙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는 힘들다. 따라서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해도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개별 면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

둘째, 한두 시간의 개별 면담으로 학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해 온 가치관 자체를 개선하기는 어렵다. 몇몇 참여자들은 많은 학생들이 내 수업에서 수업 태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학생들이 가정교육과의 모든 수업에서 내 수업에서와 같은 수업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이 참여자들은 가정교육과의 다른 수업에서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좋지 않은 수업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참여자들이 말하는, 내 수업에서의 수업 태도와 다른 수업에서의 수업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는 나에게 가정교육에 호감이 있다고 이야기한 후 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개별 면담 후 내 수업에서 수업 태도가 개선된 학생들이 전부 개별 면담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어서 수업 태도가 개선되었던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1. 외부 지향의 특징에서는 내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내 수업에서 수업 태도가 개선된 학생들이 개별 면담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어 수업 태도가 개선되었던 것이라면, 이 학생들은 수업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업 태도를 개선했을 것이고, 따라서 수업에 따라 수업 태도를 바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수업에서만 수업 태도가 좋아졌던

학생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수업 태도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중시하는 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수업에서만 수업 태도를 바꾸었다는 의미가 된다. 즉, 개별 면담이 많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한두 시간의 개별 면담으로 이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형성해 온 가치관까지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Ⅵ. 해석 및 논의

1. 함의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런데 기존에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에 사용되어 온 연구 방법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양적 연구는 문제의 인과 관계를 연구자가 설정한 변수들로 환원하여 규명하느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놓쳤고, 질적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살피느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을 확장하여,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드러나도록 하는 연구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양상을 살피는 데에서 넘어서서, 이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들을 살피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밝혔으며, 이러한 의미구조가 이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의 맥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학업생활 속에서 형성하고 있던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이 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 문제의 원인임을 밝혀내었다.

그런데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채

사범대에 입학하며 또한 그러한 가치관이 사범대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거치는 동안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사범대의 전공 수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사범대의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에는 외재적 가치도 있지만 내재적 가치도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외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가진 대표적인 외재적 가치이다. 반면에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내재적 가치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구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교사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범대의 현행 교원양성 교육과정은 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좇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가르쳐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좇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짓눌려 신음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사범대의 현행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교육의 외재적 가치만을 좇아 사범대에 입학한 사범대 학생들 앞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수업 장면이 사범대의 전 학과에서 전반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장면이 아니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 사범대 학생들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은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한 후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이 아니다.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몰려 있게 된 데에는 한빛대 가정교육과가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

라는 외적 성과의 힘이 지대하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가 제공하고 있는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외적 성과가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을 한빛대 가정교육과로 불러들인 것이다. 따라서 한빛대 가정교육과뿐만 아니라 교사 자격증이라는 외적 성과를 제공하고 있는 사범대에는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중에서 처음부터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려고 했던 학생은 극히 소수였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고 싶은 학과가 분명히 따로 있었던 학생들이었다. 이 학생들은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성적만 조금 더 잘 받았더라면 교대 혹은 사범대 내 다른 학과에 입학했을 학생들이었다. 즉,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이야기는 얼마든지 교대 혹은 사범대 내 다른 학과 학생들의 학업생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수업 장면은 왜 유독 한빛대 가정교육과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일까? 첫째, 한빛대 가정교육과는 대학교 이름값과 교사 자격증이라는 외적 성과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에 비해 진입 장벽은 낮기 때문에 사범대 내 다른 학과에 비해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려 있을 수 있다. 둘째,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가정교육과가 폐과되는 일이 수차례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가정 교사를 거의 선발하지 않는 악재까지 겹쳤었기 때문에 가정교육과의 전공 수업이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의미 없는 수업으로 비쳐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쳐지면서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이 가정교육과의 전공 수업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임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학과에서는 아무리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 하더라도 앞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수업 장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다면 학과 내에서 이러한 수업 장면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사범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외면해도 괜찮을까?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사범대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교사로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 (2) 교사의 영향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만났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이 입학할 학과를 바꿔서 학생들이 입학할 대학교의 이름값을 높이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바로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교사들이 중등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이러한 교육 태도는 중등교육에는 교육의 질 저하를, 대학교육에는 진로 지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사범대 학생들이 그대로 중등학교 교사로 배출된다면 우리 교육이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사범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적용

그렇다면 사범대 학생들의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선행 연구들 중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이 전부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범대의 현실을 고려하여 사범대가 ‘중등학교 교사양성’이라는 정체성에 얽매이지 말고 사범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신혜원, 2013; 허은정, 2020).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사범대 학생들이 겪는 진로 갈등과

학업 부적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3) 취업 불리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사범대 졸업생들을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사범대 졸업생들을 환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범대 안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다양하게 지원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의 취업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은 그 직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사범대 졸업생들을 기피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3. 진로 난관 (3) 취업 불리에서는 한 참여자가 우리 사회의 기업들이 사범대 졸업생들을 기피하는 것이 사범대 졸업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교사를 하겠다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2. 대상황 (2) 노동 환경 가.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는 노동자들의 몫이지 기업들이 챙기고 있는 몫이 아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 중에서 노동자들의 조기 퇴직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서 사범대 학생들이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의미구조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Ⅴ. 학업생활의 의미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치관으로 인해 학업생활에 대해 대리, 거래, 대기, 경쟁, 수집이라는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즉, 이 학생들에게 학업생활은 부모를 대신해서 하는 것, 성과만 좋으면 과정은 눈감아 줘야 하는 것, 의미 없는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 주변 동료와 경쟁하는 것, 질이 아닌 양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의미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예로부터 ‘스승’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가 있었다. 따라서 사범대에서 우리 사회의 스승이 될 재목을 제대로 길러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면 사범대 졸업생들은 사범대 졸업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교사가 아니라 어디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범대 졸업생들이 사범대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기업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사범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따라서 교사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사범대는 단순히 ‘중등학교 교사양성’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우리 사회의 스승이 될 재목을 양성한다는 사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범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독특한 의미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사범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범대 학생들이 내면에 강한 ‘이성의 힘’을 기르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앞서 Ⅴ. 학업생활의 의미 1. 외부 지향의 특징에서는 이 학생들이 내면에 강한 ‘이성의 힘’을 기르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좇아 학업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본인이 내면에 갖추고 있는 ‘이성의 힘’이 약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외부 지향이라는 가치관을 버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범대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면에 강한 ‘이성의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전공과 관계없이 더 나아가 문과 출신, 이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사범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논리적인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서 Ⅴ. 학업생활의 의미 1. 외부 지향의 특징 가. 본인의 내면에서는 많은 참여자들이 논리적인 글을 읽거나 써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사범대에서는 학생들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채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선택 사항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앞서 Ⅴ. 학업생활의 의미 3. 외부 지향의 장벽 (2) 개선의 어려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내면과 관련된 일보다는 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선택 사항으로 주어진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맡았던 <가정과 논리 및 논술>과 같은 수업이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뀐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범대 학생들이 부모의 영향으로 인해 외부 지향적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 상황 (1) 부모의 영향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고, 자녀의 학업생활을 통해 부모 본인이 원하는 외적 성과를 얻고자 하며, 게다가 자녀에게 시간까지 재촉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이 사범대 학생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사범대 학생들의 외부 지향적 성향은 더욱 고착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범대가 사범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모 자신이 원하는 외적 성과가 아니라 자녀의 내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범대는 학생들의 교육 결과가 아니라 교육 과정에 관한 정보를 사범대 학생들의 부모들과 수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사범대 학생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성

과가 아니라 학업 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울 수도 있다.

셋째, 사범대 교수들의 사범대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2. 학업 고충 (3) 임용 vs. 취업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 교수들 중에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한 명도 없으며 따라서 전공 수업을 할 때에도 사범대 수업임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에 해당하는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3. 매개상황 (3) 교수의 영향에서는 이러한 한빛대 가정교육과의 교수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서 가정교육과에 남아 있는 학과 학생들을 취업으로 유도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본인도 사범대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교수들이 사범대 학생들을 스승의 재목으로 길러내기는 힘들다. 따라서 사범대는 사범대 교수들이 먼저 사범대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사범대의 각 학과에 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최소한 한 명 이상 배치되도록 교수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태명 외(2019)는 2019년 당시 가정교육과에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한 명도 없는 대학이 가정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전국 총 11개 대학 중에서 4개 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머지 대학에도 한국교원대학교에 유일하게 2명의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재직하고 있더라도 1명에 그쳤다. 물론 한두 명의 교육 전공 교수가 학과 교수들의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로라도 사범대가 사범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사범대 내 각 학과의 교수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사범대는 교육을 전공한 교수든, 그렇지 않은 교수든 모든 사범대 교수들이 사범대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수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범대 전체 교수들에게 수시로 보여 줄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는 구조적으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범대에서 예비교사로 양성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생활만을 살펴보았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중등학교 예비교사는 사범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서도 양성되고 있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 개설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역시 졸업과 동시에 무시험검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범대 학생들과 똑같은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범대 학생들은 사범대에 입학하기만 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학생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지만,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본인이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한 경우에만 교사 자격증을 받는다는 점이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3) 교사 자격증에서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입학할 때 진로로 교사를 희망하든 안 하든 일단 가정교육과에 입학하기만 하면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가가 사범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게 졸업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 자체가 사범대에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동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중에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지니는 의미는 사범대 학생들에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지니는 의미와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학생들의 의미구조와 본 연구에서 밝힌 사범대 학생들의 의미구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지를 살펴보면 더 나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가정교육과 학생들만을 연구 참여자로 선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Ⅲ. 학업생활의 양상 1. 학과 선택 (2) 대학교 이름에서는 많은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이 한빛대라는 대학교 이름값을 위해 알지도 못하고 다니고 싶지도 않은 가정교육과에 입학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있는”이라는 대학교 이름값이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외적 성과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름값이 높지 않은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에는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었다. 앞서 Ⅳ. 학업생활의 구조 2. 대상황 (1) 사회 인식 가. 학벌주의에서는 한빛대 가정교육과에 편입을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교 이름값이 낮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대학교 이름값을 한빛대 정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다. 이는 이름값이 높지 않은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 지향적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이 학생들이 실제로 편입 등을 통해 대학교 이름값을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의미구조는 이름값이 높은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의미구조와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름값이 높지 않은 대학교에 있는 사범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업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자료를 주된 연구 자료

로 사용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 자료는 크게 참여 관찰 자료, 면담 자료, 문헌 자료로 나뉜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면담 자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한빛대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이야기에는 내 수업이 아닌 가정교육과 내의 다른 전공 수업에서 있었던 이야기, 복수 전공을 하는 학과에서 있었던 이야기, 교생 실습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에 등장하는 현장들은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현장 중에서도 핵심적인 현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현장들에 대해 연구자가 직접 관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같은 현장에 대한 자료라 하더라도 참여 관찰을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간 연구자가 얻을 수 있는 자료와 그 현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그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료는 다를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사범대 학생들의 학업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 대한 참여 관찰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민수, 임소정, 최지혜(2021). 사범대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모두 교사를 꿈꾸는가?: 수도권 A대학 중등 특수교육과 학생들의 진로결정 양상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34(2), 143-168.

강은영(2010). 자발적 비혼 여성에 대한 자전적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강은정, 박진원, 이경언(2015). 예비 수학교사들의 진로 인식 변화. **교사교육연구** 54(4), 538-548.

고홍월(2017). 예비교사의 진로발달 과정 탐색. **진로교육연구** 30(3), 193-213.

김갑성(2011). 학생 관점에서 바라본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실제 분석.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22.

김병찬(2003). 사범대생들의 사범대학 진학동기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57-83.

김선영(2020). 사범계열 학생들의 학습참여 촉진 방안 연구. **문화와 융합** 42(8), 59-88.

김성교, 채정현(2008).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의 TQM 구성요소에 대한 재학생들의 평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3), 179-200.

김유경, 신세인, 이준기(2018). 사범대학 생물교육전공 학생들의 진로갈등과 방황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생물교육** 46(1), 1-15.

김재은, 조홍식(2014). 사범대학 체육교육전공 대학생의 갈등에 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4), 229-247.

김태영, 김윤경(2014). 사범대학 학생들의 대학입학전형 유형별 입학 결정 계기, 교직 지향성, 진로 선택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1(2), 315-344.

노경란, 김민희, 이은경(2013). 여대 사범대학 교육학과생의 진로개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4), 45-73.

노희연, 임소진, 김승희, 박미정(2020). 예비 가정과교사의 자기이해 변인이 변화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3), 543-572.

도종훈, 박윤범, 박혜숙(2014). 지방 중소도시 소재 사립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17(4), 679-695.

박은수(2016). 지방 사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진로 실태 조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493-512.

박은수(2017). 지방 사립 사범대학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 실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24), 1101-1123.

박진경(2017). 사범계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혜원(2013). 가정교육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1), 55-66.

양지선, 유태명(2010). 가정과 예비교사의 전문자질 및 실천적 교수역량에 관한 연구. **실과교육연구** 16(4), 101-124.

오소제(2010). 사범계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태명, 양지선, 주수언, 유난숙(2019).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년 역사의 성과와 가정과교육의 미래 비전과 사명.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4), 163-192.

윤창환(2016). 사범계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성숙과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도영(2020). 사범대학 교직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근거이론적 탐구. **한국교원교육연구** 37(2), 79-105.

이봉우, 김희경(2018). 왜 과학교사가 되려하는가? - 우리나라 예비과학교사들의 교직 선택 동기. **한국과학교육학회** 38(2), 123-133.

이정우(2004). 사범대생의 눈으로 본 사범대학 교육의 의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 43(4), 107-137.

장원형, 홍훈기(2020). 비교직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과학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43-66.

장환영, 김경민(2014). 사범대생 경력개발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HRD연구** 9(4), 75-95.

조용환(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조용환, 윤여각, 이혁규(2006). **문화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한재영(2012).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삶과 정체성 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51(1), 75-89.

허은정(2020). 교직을 희망하지 않는 사범대 학생의 진로 모색 경험 탐색. **교육학연구** 58(2), 51-74.

Geertz, C.(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2012). **문화의 해석**. 까치글방.

Medhus, E.(2001). *Raising Children Who Think for Themselves*. 이상춘 역(2002).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아이로 키우는 노하우 7가지**. 한문화.

세계일보(2015. 7. 23.). 고용절벽 몰린 청년들 '공시(公試)'에 매달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2877880.

아주경제(2016. 7. 21.). '공무원시험 쏠림현상' 심화…청년 취준생 10명 중 4명은 '公試生'. https://www.ajunews.com/view/20160721131917134.

연합뉴스(2008. 9. 24.). 대학생들 "최고의 직업은 중고교 교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2280969.

통계청(2020. 10. 6.). 근로자당 연평균 실제 근로시간(OECD).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14_OECD.

Abstract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chool Life of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Nam, Kyong I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started from my grief over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of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Hanbit Univers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cause of the students'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and to contribute to solving these problems.

There has been no research which focused on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that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re experiencing.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many researches on the student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who had the same problems. But many student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cluding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re still struggling against the problems of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This means that research methods used in existing researches exposed the limitations in solving these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se problems with a different research method to solve them.

A new research method is designed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of Geertz, which reveals the context of the students' school lives and in it we can find out the cause of the students'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Geertz(1973) believed, with Max Weber, "man is an animal suspended in webs of significance he himself has spun" and he said he took culture to be those webs. So this research tried to find the webs of significance of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Hanbit University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students'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This "webs of significance" is th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of Geertz.

This research took three steps to find the uniqu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of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Hanbit University. First, this research examined the appearance of the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experienced by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Hanbit University. Second, this research analyzed the structure of the students' school lives by deriving the situations which work behind the appearance. Finally,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students' uniqu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by scoping out which unique values they formed in the situations and which unique meanings they

gave to their school lives through the valu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tudents had the unique values of “external direction”, and because of the values, they have the unique five meanings on their school lives: substitute, trade, waiting, competition, and collection. And by confirming that thes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is connected with the class attitude these students showed in my classes from 2010 to 2013, I confirmed that these unique structures of signification could lead to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of these stud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values of “external direction”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s of career conflict and academic maladjustment which the students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cluding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of Hanbit University are experiencing. In addition, some practical ways to solve the values of “external direction”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Keywords: structures of signification, external direc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areer conflict, academic maladjustment

Student Number: 2007-30387